1994

제 28 대

李東雨道知事演說文集

(93. 3. 5~93. 12.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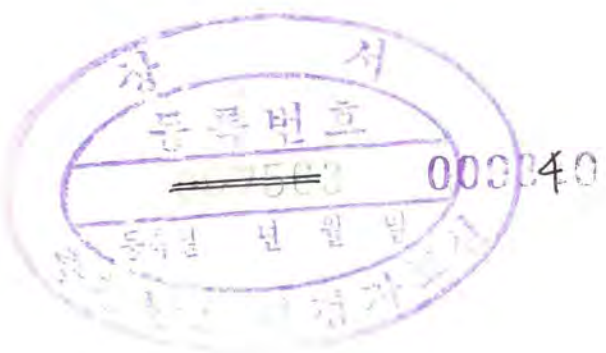
忠淸南道

1994

제 28 대

李東雨道知事演說文集

(93. 3. 5~93. 12. 28)



忠淸南道







▲ 덕산신생원 위문 ('93. 3. 7)
▼ 재경충우회 친선의 밤 ('93. 3. 12)





▲ 아산군 배방면 우박피해현장 방문 ('93. 4. 25)
▼ 전국소년체전 선수 격려 ('93. 5. 29)





▲ 농산물 금요장터 개장 (93. 6. 11)
▼ 예산사과 집하장 방문 (93. 6. 27)





▲ 청양군 정산면 벼 병충해 피해 현장시찰 ('93. 8. 9)
▼ 사랑의 책 보내기 기증 ('93. 8. 19)





▲ 보령 외연도 국교생 방문 ('93. 9. 8)
▼ 벼베기 행사 (논산 광석, '93. 10. 19)





▲ 백합양식장 방문 (서산, 부석 '93. 11. 11)
▼ 일선 경찰초소 위문

머 리 말

이 책자는 제28대 이동우 도지사의 재임 9개월간 연설문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도민 모두가 신한국 창조를 향해 힘차게 내달린 날들이었습니다.

이땅에 신한국의 봄이 찾아오고, 변화와 개혁의 물결은 일파만파로 사회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충남 공직자들도 구태의연한 껍질을 벗고, 깨끗한 공무원, 봉사하는 공무원, 창조하는 공무원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자기혁신과 자기정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신한국 창조의 과업과 함께, 충남도정은 지역의 더 큰 발전과 도약을 위한 창조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에 활력을 심어주고, 특히 백제권 개발을 위한 열정어린 노력으로 정부로부터 특정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는 성과는 도민 모두의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2000년대의 충남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그 땀흘린 과정 하나하나가 값진 기록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책자가 지역의 희망찬 미래, 복된 충남을 기약하는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1994. 12.

충청남도 공보관실

목 차

'93 년 3 월

5일 제28대 충청남도지사 취임사 ····· 21
20일 신한국 창조 참여 당부 서한 ····· 26
29일 기지시 줄다리기대회 격려사 ····· 28

'93 년 4 월

3일 창설 제25주년 예비군의 날 행사 식사 ····· 33
6일 4월중 월례조회 훈시 ····· 36
7일 노·사·정 연수대회 격려사 ····· 45
9일 '93 새봄맞이 우리농산물 팔도 큰잔치 축사 ····· 49

'93 년 5 월

1일 5월중 월례조회 훈시 ····· 53
9일 국제라이온스 309-E 지구 제16년차 대회 축사 ····· 60
13일 제5회 충남교육상 시상식 축사 ····· 62
14일 '93 방재시범 훈련 인사 ····· 64

20일 제5회 충청남도 민속대제전 격려사 ····· 66
22일 자전거 타기, 걷기운동 실천대회 격려사 ····· 68
22일 제8회 전국윈드서핑 선수권대회 축사 ····· 70
24일 사회각계에 보내는 서한 ····· 72
26일 평통지역 협의회 간담회 인사 ····· 74
26일 제2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결단식 격려사 ····· 76
27일 제23회 충청남도 미술대전 시상식 격려사 ····· 78

'93년 6월

1일 6월 월례조회 훈시 ····· 83
3일 신한국창조에 따른 지방행정의 과제특강 ····· 91
4일 체육회 이사회 인사 ····· 106
4일 체육회 대의원 총회 인사 ····· 108
7일 제74회 도의회 임시회 인사 ····· 111
12일 제4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동호인 축구대회 격려사 ····· 113
14일 민족통일 30년사 발간 축간사 ····· 115
15일 이북5도민 대회 격려사 ····· 117
15일 신한국시대의 충남도정 특강 (충남대 경영대학원) ····· 119
18일 제40주년 반공의 날 기념행사 격려사 ····· 143
18일 충남 EXPO의 밤 행사 인사 ····· 145
24일 국제라이온스 309-E 지구 총재 이·취임식 축사 ····· 147
25일 6·25전쟁 43주년 기념 행사 치사 ····· 149
26일 부여청소년 수련원 개원식 격려사 ····· 152

28일 신건식 농촌진흥원장 정년퇴임식 치사 ····· 154
29일 제19회 대일보훈대상 시상식 축사 ····· 157
29일 제10회 충청남도 여성대회 격려사 ····· 159
30일 연세유업(주) 아산공장 준공식 축사 ····· 161

'93년 7월

1일 대천해수욕장 개장식 격려사 ····· 165
2일 농어민신문 인터뷰 ····· 167
5일 7월 월례조회 훈시 ····· 177
9일 지역새마을 운동 활성화 다짐대회 격려사 ····· 184
12일 을지연습 자체 강평회 훈시 ····· 187
20일 충청남도 소방학교 청사준공 및 개교행사 치사 ····· 190
21일 '93 충청남도 4H 야영교육 치사 ····· 192
24일 한국지역사회 개발협회 대전·충남 창립총회 격려사 ····· 195
27일 제7회 전국대학생 갱생보호위원 연합수련회 축사 ····· 197
28일 농기계보내기운동 참여 당부 서한 ····· 199

'93년 8월

1일 8월 월례조회 훈시 ····· 203
4일 청풍 8월호 명사칼럼 기고 ····· 210
5일 대전EXPO 길놀이 행사 격려사 ····· 212

9일 충청남도 농어민 후계자대회 치사 ····· 214
14일 한산모시 타운 준공식 치사 ····· 216
15일 아우내 기미 독립운동 합동추모 대제전 추모사 ····· 218
17일 독립유공자 포상전수식 인사 ····· 220
24일 일본국 구마모토현 방문단 환영오찬 인사 ····· 222
24일 일본국 구마모토현과의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기념사 ··· 224
25일 일본국 구마모토현 방문단 송별 만찬 인사 ····· 226
30일 신농정설명회 인사 ····· 228

'93년 9월

1일 9월 월례조회 훈시 ····· 233
4일 충남지구 JC가족 초청의 밤 인사 ····· 240
5일 대전 라이온스클럽 30주년 기념행사 축사 ····· 242
15일 대전EXPO 충청남도의 날 행사 인사 ····· 244
15일 제240차 민방위의 날 재난수습훈련 훈시 ····· 246
16일 제77회 도의회 임시회 인사 ····· 248
17일 신한국창조를 위한 민족통일 충청남도 대회 격려사 ····· 250
19일 제2회 충청남도 생활체육 사이클대회 격려사 ····· 252
23일 제13회 금산 인삼제 치사 ····· 253

'93년 10월

1일 10월 월례조회 훈시 ····· 257

1일 민원1회 방문처리제 특강 ····· 262
2일 제18회 망향의 동산 합동위령제 추도사 ····· 265
8일 제39회 백제문화제 치사 ····· 267
8일 전국 궁도대회 치사 ····· 269
9일 제74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선수단 결단식 식사 ····· 271
12일 제4회 대전·충남 장애인 체육대회 격려사 ····· 273
16일 예산문예회관 개관식 치사 ····· 275
22일 제19회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대회사 ····· 277
22일 서해안개발에 따른 충남지역 개발방향에 관한 심포지움 격려사 ····· 279
23일 계룡산 조각공원 개원식 치사 ····· 281
25일 10. 25 간부회의 훈시 ····· 283
25일 제30회 저축의날 기념식 기념사 ····· 287
26일 제45회 도민체육대회 대회사 ····· 289
26일 제7회 천안삼거리 문화제 치사 ····· 291
27일 제2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결단식 격려사 ····· 293
28일 제45회 도민체육대회 폐회사 ····· 295

'93년 11월

1일 11월 월례조회 훈시 ····· 299
2일 '94업무계획 보고회 훈시 ····· 306
3일 이홍구 평통수석부의장 지역순방간담회 인사 ····· 316
5일 제8회 공산교육상 시상식 축사 ····· 318

6일 충청남도 문화예술인 대회 격려사 ····· 320
9일 시도 방위협의회 합동회의 인사 ····· 323
10일 제6회 충남산업 디자인전 격려사 ····· 325
11일 제20회 대일비호 대상 시상식 축사 ····· 327
11일 대전일보 창간 43주년 축하메세지 ····· 329
13일 제2회 충청남도 생활체육대회 격려사 ····· 330
15일 제7회 재인충남도민회 정기총회겸 명감출판 기념식 축사 ····· 332
16일 제8회 도지사기 쟁탈 시군남녀 궁도대회 치사 ····· 335
18일 충청남도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대회사 ····· 337
20일 9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도정연설 ····· 340
24일 국내외 농산물 포장재 전시회 인사 ····· 353
25일 '93 충남4H 시상식 및 건전한 국토가꾸기 전진대회 치사 ··· 356
27일 관광, 교통 친절운동 발기대회 치사 ····· 359
30일 '93 농촌지도자 대회 치사 ····· 362

'93년 12월

1일 12월 월례조회 훈시 ····· 367
1일 월간화보 청풍 12월호 명사칼럼 기고 ····· 372
7일 제7회 충청남도 산업미술대전 격려사 ····· 377
10일 금강지 발간사 ····· 379
10일 충청남도 문화유적 총람(금석문편) 발간사 ····· 381
16일 제80회 도의회 정기의회 '94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 ····· 382
16일 제37회 충청남도 문화상시상식 식사 ····· 384

17일 대천전문대학 기공식 축사 ····· 386
21일 평통자문위원 활동평가회의 인사 ····· 388
21일 홍주의사총 성역화준공식 치사 ····· 390
22일 각계에 보내는 도정협조 감사 서한 ····· 393
28일 제28대 이동우 충청남도지사 이임식 이임사 ····· 394

'94년 1월

6일 이임서한 ····· 399

'93년 3월

제 28 대 충청남도지사 취임사

1993년 3월 5일

달라진 모습으로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1만5천여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제가 충남도정을 이끌어갈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힘찬 새 출발과 함께 자랑스런 우리 고장 충남의 발전에 힘을 보태게 된데 대하여, 매우 기쁘고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200만 도민과 도의회,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힘을 모으고, 저의 뜨거운 열정을 더하여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지방행정에 대한 폭넓은 경륜과 높은 덕망으로 어려운 시기에 충남 도정을 훌륭히 이끌어 주신 전임 홍선기 지사님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희망찬 새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함께 공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실행하여야 할 일은 도민과 공직자 모두 하나가 되어 단결된 힘을 「신한국 창조」에 모아 나가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의 낙오자가 되면서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특히, 금년은 우리 지역으로 볼때 매우 소중한 시기입니다.

우리 충남이 근간에 이르러 국가발전의 중추지역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음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 입니다.

도민 모두의 발전의지를 다지고 힘과 지혜를 모아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일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여건속에 부여된 과제를 차질없이 실천해가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공직자들의 발상과 의식이 시대정신에 맞게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 입니다.

「자기개혁」을 하면서 크게 봉사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신한국 창조」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신한국 창조」를 위해 우리 도정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몇가지 과제를 제시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흔쾌한 동참을 당부해 두고자 합니다.

첫째,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와 여망을 받들어, 지방 행정에도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기풍이 확산되어야 하겠습니다.

급격한 경제발전과정에서 싹터온 우리사회의 병리현상들을 스스로 치유하므로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새로운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일은 누구에게도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공직자 스스로 낡은 생각과 그릇된 습성, 잘못된 행태를 과감히 벗어 버리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모든것을 던져서 나라살리는 일에 앞장서겠음을 다짐하시고 모든 공직자들은 새로운 각오로 새출발을 할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를 불문하고, 모든 도민이 흔쾌한 마음으로 「신한국 건설」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뒷받침 하는 이야말로, 이시대 우리 도정에 주어진 제1의적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다함께 안정속의 개혁을 위해 새롭게 출발합시다.

둘째, 모든 행정력은 도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민주 자치행정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사소한 일에서 큰일에 이르기까지 도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풀어주고 도민에게 기쁨과 보람을 안겨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봉사는 크고 규제는 작은 지방행정」이 새롭게 요청되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규제위주의 행정제도와 관행을 우리 스스로 과감하게 개선하고 정비하는 노력도 「신한국창조」에 한발 다가서는 일이라고 할 것 입니다.

셋째, 지역 개발을 촉진하여 충남 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은 전통적인 「농업도」로서 농업경제 활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향이 지대함을 감안하여 농어촌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냉전의 종식과 함께 접어든 개방화라는 국제 경제전쟁속에서, 우리 농어촌이 큰 시련을 겪고 있음을 늘 잊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정부차원의 농어촌 발전 10개년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지역특산물을 중점개발 육성하는등 「윤택한 농어촌」「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간에 우리 도에서 벌여온 서해안 개발사업,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금강종합개발 계획등을 보다 활력있게 추진하여, 21세기를 향한 충남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흐름을 활성화시키고 대전EXPO를 계기로 문화·관광 개발을 촉진시키는 일도 우리 모두 함께 힘써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네째, 우리 조직내부의 단결과 기강의 확립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추진하는데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모두의 단합된 「힘」과 조직 구성원 상호간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직원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가 맡은일에 대하여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투철한 책임의식을 가져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조직원이 제각기 제자리에서 자기몫을 충실히 해낼때 인화는 조성되고 기강이 서게됩니다.

불량품 하나가 완제품 만개의 신용을 떨어뜨리듯이 극소수인원의 잘못은 전체조직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모든조직원이 확고한 책임감이 있을때 창의력이 발휘되며 직장분위기는 더없는 활력을 갖게 될 것 입니다.

우리는 단합된 조직의 힘으로 밀어 닥치는 새 시대의 어려운 과제에 도전해야 합니다.

조직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가족 여러분!

우리충청남도는, 이제 나라의 중심부에 우뚝서서 새로운 도약의 기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알차게 가꾸어온 꿈을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과제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자세로 도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가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신한국 창조」의 책무를 다할수 있도록 변화와 개혁에 따르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면서, 지금 이순간부터 새롭게, 그리고 힘차게

출발하십시다.

200만도민 여러분과 1만5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만복을 기원하면서 취임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한국창조 참여 당부 서한

1993년 3월 20일

봉사는 크고 규제는 작게

만물이 소생하는 새 봄을 맞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5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 부임한 이래 많은 도민을 만나뵙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찾아 뵙지 못한 분에게는 우선 이 글월로 인사드림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충남의 발전과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큰 노력을 다하여 주신 귀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범 한달째인 새정부에서는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각종 비능률 요소와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 또는 법령 등도 국민편의 위주로 고쳐나가는 동시에, 모든 민원은 단 한번의 행정기관 방문으로 처리가 되도록 하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민원행정 쇄신 운동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도 정부의 이러한 개혁의지를 뒷받침하고 도민 편의 위주로 민원을 해결해 드리기 위하여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공무원의 행태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민원실의 환경개선, 각종 민원서류의 대폭 간소화 등「봉사는 크고 규제는 작은 행정」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원 개선시책들은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민 모두의 협조와 참여가 있으실 때만이 가능하오니, 앞으로 도나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중 잘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더욱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시책은 전화(042-255-3000)나 서신을 통해 지적을 해주시면 최대한 도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우리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우리 충남이 더불어 사는 보람을 느끼는 지역사회가 되고, 신한국 건설의 역사적 사명을 앞장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지시 줄다리기 대회 격려사

1993년 3월 29일

신한국 창조의 메아리

존경하는 당진군민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이 왔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이 고장의 전통 민속놀이인 기지시줄다리기 행사에 함께 참여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다양한 민속놀이를 즐겨 왔습니다.

이러한 민속놀이는 우리 조상들의 애환과 삶이 투영된 향토문화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특히 기지시 줄다리기는 자연재해를 토속신앙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대표적 농경문화의 민속행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400여년동안 이런 소중한 민속문화를 지키고, 오늘날까지 그 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당진군민 여러분의 불타는 애향심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적 유산을 계승 발전 시키려는 수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할때, 오늘을 살고 계시는 당진군민 여러분에게 깊은 존경과 뜨거운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2만여단의 볏짚으로 정성들여 만들어진 200m의 거대한 줄이 당진군민 여러분의 환호속에 옮겨지는 웅장한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습니다.

뜻을 모으고 마음을 합치면 사람의 힘이 엄청나게 커질수 있다는 사실앞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당진군민 여러분!

저는 충남 도지사로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우리 충남은 농업을 발전시키고, 공업을 일으키며 관광산업을 개발하기 위하여 참으로 할일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고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지사 이하 1만5천여 공무원이 몸을 던져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200만 도민의 협조와 동참이 없이는 이룩하기 어려운 과제임을 솔직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행사에서 보듯이 우리 200만 도민과 공직자 모두가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나간다면, 우리 충남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탈바꿈되는 날이 훨씬 앞당겨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새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사회는 자기 혁신, 자기 정화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1만5천여 충남 공직자는 도민 여러분의 편에 서서, 도민 여러분의 아픔과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해, 지난 날과는 다른 모습으로 큰 봉사를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충절의 역사와 기품있는 양반정신을 자랑으로 사는 우리 충남이, 도민여러분의 단결된 힘을 뒷받침 받아 활기있게 발전할때,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을 지향하는 신한국 창조 또한 앞당겨 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기지시줄다리기 대회는, 우리 충남인의 자존과 긍지를 키우고, 애향심과 화합을 더욱 굳게하는 대회가 될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당진군 여러분의 힘찬 함성이, 신한국창조의 메아리로 이어져 우리 고장 곳곳에, 그리고 우리나라 곳곳에 퍼져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뜻깊은 오늘의 행사준비에 힘쓰신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 이우영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지극한 효행으로 표창을 받으신 김응만 효자님과 이규희 효부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도민여러분 모두에게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행사가 흥겹고 질서있게 진행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93년 4월

창설 제 25 주년 예비군의 날 행사 식사

1993년 4월 3일

향토수호의 역군

오늘 예비군 창설 스물다섯돌을 맞이하여, 먼저 내고장 내직장을 지키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고장 14만 예비군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자리를 함께해 주신 향토부대와 예비군의 각급지휘관및 대원여러분, 그리고 여러 기관장님과 방위협의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영예의 수상을 하신 예비군부대와 방위협의회를 비롯한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의 향토예비군은 지금으로 부터 25년전, 내고장 내직장은 내가 지킨다는 결연한 의지와 국민적 성원으로 창설 되었습니다.

역전의 용사들로 뭉쳐진 향토예비군의 창설로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은 더욱 튼튼해 졌고, 적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분쇄할 수 있는 전술연마와 함께, 전후방이 없는 전선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자주국방 태세를 튼튼히 다지므로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망의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지금,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신한국창조의 물결이 새봄과 함께 사회 곳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금 위로부터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며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잘못된 관행과 형태를 과감이 벗고 새로 태어나는 자기혁신, 자기정화의 노력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한국창조의 물결은 나라안 곳곳으로 퍼지므로서, 정의가 강물처럼흐르고, 더불어사는 보람이 넘치는, 선진사회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범 시대적 조류에 따라 우리 200만 도민 모두가 뜻과 힘을 모아 나간다면, 우리 충남이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되는 날이 훨씬 앞당겨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비군 장병여러분, 그리고 향토부대 지휘관 여러분,

우리는 동서냉전구조의 와해와 새정부출범을 계기로 이토록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역사의 봄을 맞이하고 있지만, 최근 북한은 남북대화 창구를 일방적으로 닫아놓고, 핵사찰 거부와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등, 한반도정세를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그 어떠한 성장이나 도약도 스스로를 지킬수 있는 힘의 뒷받침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어두운 역사속으로 돌아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자리가 국가보위와 향토수호의 결연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모두가 미래를 위한 신한국창조의 주역이 될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향토방위와 지역발전에 헌신해 오신 예비군장병과 향토부대 지휘관 여러분, 그리고 방위협의회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애국충정이 더욱더 공고해져 막강예비군으로 그자리를 더욱 굳건히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향토예비군 창설 25주년을 맞이하는 예비군 장병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식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4월 월례조회 훈시

1993년 4월 6일

4대 국정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화창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이 자연의 봄은 매년 우리를 찾아와서 소생의 의미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의 순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교훈을 느끼곤 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는 자연의 봄과 함께 역사의 봄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알다시피 60년대초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했던 우리나라는, 잘 살아보자는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온 국민이 근검·절약하고 부지런하게 일을 해왔습니다.

물·불가리지 않고 앞장서 뛰어온 덕으로 우리는 한 세대만에 개발도상국중에 맨 앞장서서 선진국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세계인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경탄과 찬사와 부러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성장에 주력한 나머지 경제성장에 걸맞는 정신적 뒷받침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치와 낭비가 판을 치고 퇴폐풍조와 한탕주의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무질서와 이기주의가 곳곳에 번져드는등,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소위「한국병」을

않게된 것입니다.

사회기강이 흔들리고 우리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자, 「승천하는 용」이라고 칭찬하던 세계사람들은 우리를 「땅에 떨어진 지렁이로 전락한 나라」라고 하는등, 듣기 어려운 조롱을 서슴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국민들은 사기가 저하되었고 경제는 침체의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도 소망하는 선진국의 진입은 말할것도 없고, 우리가 애써 이룩한 이 공동체 사회의 현상유지 조차도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식자들의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바탕으로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을 지향하는 「4대 국정지표」를 바탕으로 한 「신한국」창조의 봄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봄은 매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오래만에 찾아온 천재일우의 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한달남짓 합니다만, 「위로부터의 변혁」이 거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조류를 인식하고 우리들 모두가 발상의 대전환과 체질개선을 위한 결연한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혁과 발전을 도모하는 이 「신한국」창조에 적극 동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방관자가 아니라 「신한국」창조의 주역이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4대 국정지표」를 발표하고 몸소 앞장서 뛰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만난 자리에서 「4대 국정지표」에 대한 나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4대 국정지표」를 지향하는「신한국」창조는 한두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국민이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야만 이룩할 수 있는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맨먼저 우리 공직사회부터 깨끗해져야 합니다. 깨끗한 공직사회야 말로 온 국민의 동참을 유도하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정과 결탁해서는 않됩니다. 부정과 결탁해서, 안될것이 되고 될것이 안되거나, 될것이 지연되는 이런 일부 공직자의 작태는 모든 공직자에 대한 국민 불신을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대통령으로부터「윗물맑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우리도 이미 실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윗물맑기」와 관계해서 5급이상 공무원들에게 친서를 보내주신 바 있습니다.

친서에서 우리 스스로 맑아지는 자기 혁신을 강조하시면서「이러한 일은 과거를 들추자는 것이 아니라 밝고 깨끗한 내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태어나 뜨겁게 하나되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말씀을 우리 공직자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애정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혹시 실수했던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이제부터는 우리 공직자들이 모두 단절되어야 된다는 결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배려에 부응해서 우리들이 자기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쇄신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분명코 타율적인 쇄신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타율적 쇄신이 진행될 때 우리는 큰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창조의 대열에서 탈락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간부직 공무원들이「윗물맑기」를 솔선수범할 생

각입니다.

또한 하위직 공무원들 역시 이 역사적 대열에 낙오됨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엄격한 상벌을 시행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도 말씀드립니다.

친애하는 15,000여 충남 공직자 여러분!

나는 여러분 한분한분이 바로 도정 수행을 위해서 저와 동반자 관계를 가진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역사적 대열에서 한분도 빠짐없이 저와 함께 모두 심기일전해서 새역사창조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로 경제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적 요인이 우리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율이 4.7%로써 과거 12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와서 배워가고 우리를 부러워하던 동남아 후진국들이 이제 우리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이들과의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의 모습을 보십시요. 세계 초강대국을 자랑하던 러시아는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저 보기흉한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태는 참으로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3. 19일 대통령께서는 「신경제」에 관한 특별담화를 발표 하셨습니다.

5년내에 걸쳐서 추진할 「신경제」를 위해서 우선「신경제 100일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의 내용을 보면,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우선 수용해야될 문제로서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간섭을 대폭 완화함으로서 민간기업의 창의와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회복을 위해서 정부, 가계, 기업, 근로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신경제 100일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이야 말로 「신경제 5개년 계획」달성과 우리나라 경제의 제2도약을 위해서, 기필코 달성해야될 과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앞장서서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신경제 100일 계획」에는 7대 시행 과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우리가 지방적 차원에서 수행해야될 과제를 말씀 드리면,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우리는 창의적으로 강구해야 됩니다.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는 최대한 완화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지방물가의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울러 예산절감등 고통분담에 우리가 기꺼이 동참을 해야됩니다.

튼튼한 경제의 건설에 우리 충남도 15,000여 공무원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순리가 통하고 땀흘린 사람이 더 많은 과실을 얻게되는 사회, 정직한 사람이 대우를 받는 사회, 그래서 더불어 사는 보람을 함께 나누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순리가 통해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 사회는 막힌곳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우선 우리 주위에서부터 순리가 아닌 분야를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행들을 타파해야 됩니다.

우리는 도민에게 군림아닌 봉사로서 일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 공무원 모두는 대부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모르는 사이에 고정된 시혜의식을 갖게되지나 않았는지, 또 찾아오는 도민에 대해서 불친절한 점은 없었는지, 무사안일에 빠져든 일은 없었는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도민에 대한 「규제는 작고 봉사는 큰」 이러한 형태를 보람으로 하는 본연의 공직자상을 찾아야 합니다.

도민의 편에서서 도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이야말로 큰 봉사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지방행정쇄신 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행정내부에 잔존하는 각종 잘못된 관행과 제도,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태라든가 잘못된 제도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서, 이것을 신속히 시정하자는 것이 기획단 설치의 목적입니다.

실효성이 없거나 중복된 제도는 과감히 개폐해야 합니다. 내무부장관께서는 「민원1회방문 처리제도」를 제창하시고 「모든 민원인들이 단 한번 행정기관을 방문함으로서 자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쇄신기획단」에서는 이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끼리의 의견수렴과 아이디어가 제한되기 때문에 도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수준에서 해결하고, 법령과 제도를 고칠것은 중앙에 건의하는 기동성 있는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난 2월하순에 「대한상의」가 86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내용을 관심깊게 읽은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체적인 반응이 「지방공무원은 인·허가 과정등을 통해서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집단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복잡한 행정절차가 기업활동을 제한 시키고 있다, 권위적

태도라든가, 전문지식의 부족, 이런 것이 눈에 띈다.」 이런 반응이 나온것을 보고 나는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의 행태를 빨리 정상화하고 친절봉사체제를 체질화하는 우리 자신의 변화야 말로, 도민이 피부로 행정행태의 변화를 느끼면서 「신한국」창조에 기꺼이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또한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사치와 낭비가 없는 품격높은 공동체사회를 이룩해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모든 국민이 동참을 해야 되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앞장을 서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또한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정직한 사람이 대우를 받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될것은 부탁을 하지 않아도 되고, 안될것은 부탁을 해도 안되는 이런 정직한 풍토를 만듭시다.

이기주의는 겸양과 화해로 순화해 나갑시다.

우리 공직사회가 깨끗해지고 우리 행태가 당당할 때, 지역 이기주의는 극복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는 계층간·지역간 갈등들이 많습니다.

이런 갈등 현장을 우리 공직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해소함으로서, 도민의 화합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정부가 이룩한 튼튼한 국력을 바탕으로 7천만 민족이 지향하는 조국통일을 앞당긴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벅찬 일입니다.

통일조국을 지향하기 위해서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앞장서 나갑시다.

우리 「4대 국정지표」는 역사의 봄을 맞아서 다시한번 우리나라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통치의지가 「4대 국정지표」에 그대로 담아져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모두 함께 「신한국」 창조의 대열에 동참합시다.

친애하는 충남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2/4분기를 여는 4월을 맞았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그동안 많은 변화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흔들리지 않고 자기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참으로 15,000여 충남 공직자 여러분게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또 오늘 아침 각종 업무추진에 많은 공을 세워서 수상하신 우리 수상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안정속에 발전을 기대하는 도민들의 여망에 부응해서 드높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새바람을 불러 일으킵시다.

이제 4월에는 우리가 해야될 일이 많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특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풍년농사의 착실한 준비입니다.

풍년농사야말로 국태민안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농사준비에 착오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어제 나가서 나무를 심고 돌아왔습니다만, 지금 식수운동과 산불방지를 해야될 계절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산불방지와 식수운동의 성공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셋째, 생활행정의 강화입니다.

주민생활의 기반을 개선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 불우한 영세민들에 대해서 따뜻한 보호시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EXPO가 점점 닥쳐오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서 담당해야될 EXPO 지원업무, 이것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지역발전 시책을 창의적으로 수행해 주실것을 부탁합니다.

기술농업의 확충, 공업개발의 촉진, 관광산업의 개발등 많은 분야에서 우리들의 창의와 노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금년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환절기를 맞이해서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공사간에 큰 성취를 이루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노·사·정 연수대회 격려사

1993년 4월 7일

자율적인 노사합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의 계절 4월입니다.

오늘 우리고장에서 수고하시는 산업역군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산업현장의 활력과 재도약을 다짐하는 노·사·정 연수대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시간을 내셔서 오늘 연수대회에 참여해주신, 노동조합과 기업체 대표,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그동안 산업일선에서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것은 뼈아픈 단절의 역사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이루어 낸 것이기에, 우리의 긍지와 자부심은 그만큼 큰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그것은 세계경제의 흐름이 지난 몇년간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왔다는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외부적 요인보다는 바로 우리 스스로 안고

있는 대내적 요인 때문이라고 보아야 더 옳을 면도 있는 것입니다.

세계인들이 부러워 했던 왕성한 기업가 정신, 일본사람들을 게을러보이게 했던 우리의 근면성 등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까지 성장해온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하는 것은,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우리가 지난 날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라는, 준엄한 멧세지 같은 것이 들어 있다고 봅니다.

온 국민이 잘 살아보자는 공감대속에서 물불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므로써, 우리 경제가 불같이 일어날 때 세계인들은 우리를 승천하는 용으로 비유하면서 찬사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사치와 낭비의 만연 등 여러가지 병리현상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자, 세계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경제를, 땅에 떨어진 지렁이로 비유하면서 조롱하는 냉엄한 현실앞에, 우리 모두가 망연자실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인식아래 노·사·정 및 국민 모두가 힘을 합치고 고통을 분담하면서, 제2의 경제도약을 하자는「신경제 운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간경제의 활성화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주창하신 신경제의 큰 줄기 입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 모두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고통분담의 논리」는 어느 한쪽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기업도 스스로 비용을 더 절감하고, 기술개발투자와 생산성 향상에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들도 더 열심히 땀흘려 일해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날, 극심한 노사분규는 노사 양측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그 피해자였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는 이제 더 이상, 반대급부적인 대립관계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가는 동반자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노동조합과 기업체 대표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양보를 먼저 요구해 왔습니다.

그결과 우리사회는 이기적 주장들이 깊고 넓게 퍼져갔습니다.

이제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서로가 양보할 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에는 중앙에서 올해 자금인상안에 대한 노사 대표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노사간의 자율원칙에 의한 사회적 합의를 처음으로 이루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대망의 2000년대를 앞둔 지금, 우리는 선진경제의 대열로 들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을 지향하는 신한국 창조를 위해 지금 사회 각 분야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집념어린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날의 잘못된 의식에서부터 제도나 관행을 과감히 바꾸는, 자기혁신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모두 진심으로 신한국 창조에 참여하고 협력할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저는 충남도정을 수행해 가면서, 기업이, 왕성한 의욕과 미래지향적 의지를 가지고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노사화합에 힘써 오신 노동조합 관계자와 기업체 대표 여러분께서는, 경제를 되살려야 나라가 산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제2의 경제도약 대열에 흔쾌히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의 노·사·정 연수대회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과 화합을 위해서, 서로의 가슴을 열고 정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93 새봄맞이 우리농산물 팔도큰잔치 축사

1993년 4월 9일

농촌에 꿈과 희망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향의 맛과 정취 가득한 새봄맞이 우리 농산물 팔도 큰잔치 행사에 참여해서 축하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재경 향우회원 여러분과 각계인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고향의 봄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농협중앙회와 충남도지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도시가 꽃이면 농촌은 뿌리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뿌리인 농촌이 지금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낮은 생산성, 그리고 인력마저 부족한 실정입니다.

거기에다가 농산물 수입개발의 경향으로 우리 농촌은 이래저래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고향의 도지사로 부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충남이 전국 제일가는 농업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다짐과 각오를 새롭게 하고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농촌에 대한 애정이 없이 농촌발전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즉 농업발전의 가능성은 농업에 관련된 기관,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부터, 우리 농산물을 고집스럽게 애용하는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함께 걱정해 주고 성원해 줄 때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농민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의 고향인 농촌을 지키고,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농업은 생산성이 높고 경쟁력 있는 자본. 기술 집약형으로 그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또 농촌은 도시부럽지 않는 환경으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복잡한 유통구조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농민들과 힘을 합해서 정부가 하고, 우리 충청남도가 하고, 또 우리 농협이 하겠습니다.

도시에 계신 여러분은 우리 농촌을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우리 농산물을 애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꿈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농산물 애용과, 늘 잊지 못하는 고향을 다시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93년 5월

5월 월례조회 훈시

1993년 5월 1일

참봉사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했습니다.

5월은 화창한 날씨, 소생하는 산야, 싱그러운 꽃내음이 어우러지는「계절의 여왕」입니다. 이 좋은 계절은 어버이날을 비롯해서 어린이날, 스승의날 등이 있는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달부터 농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달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 각자 일도 열심히 하고, 가정적으로도 화목하고 보람찬 한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4월에는 대통령을 모시고 도정현황을 보고 드렸으며, 서울에서 충남출신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었고, 448회 충무공 탄신행사, 61주년 윤봉길의사 의거기념일등 각종 행사로 분주한 한달이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행사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정성껏 준비해 준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우리가 각종 재난방지를 위해서 큰 노력을 경주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19일에는 논산에서 불의의 큰 화재로 많은 희생자를 냈던 바 있습니다.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도민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사건 수습에

큰 협조를 해주신것에 대해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5일,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취임 50일만에 우리도를 방문하셔서 도정을 보고 받으시고 우리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오찬을 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대통령의 말씀을 직접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대통령의 말씀을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음미하면서 우리들의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정보고회의 석상에서 대통령께서는 크게 세가지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부정부패의 척결과 경제활성화는 동전의 앞뒤와 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한국병」을 약으로 고치고, 그래도 안될 때에는 아파도 도려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못을 바로잡는 사정활동은 잠시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셨고,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받는 사회가 되도록 대통령께서 몸소 챙기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로, 민원행정에 있어서는 국민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사랑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공직자의 일관성있고 당당한 처신과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당부하셨습니다.

셋째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중소 기업을 육성하고, 지방물가를 안정시켜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경제활성화와 관련한 고통분담, 특히 공무원의 봉급을 동결한 것에 대해 공무원가족에게 미안하며, 이 모두가 나라를 위한 일이니 만큼, 고통분담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자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2~3년내에 선진국대열에 올라서지 못하면 영영 낙오된다고 하는 말씀을 되풀이 하셨습니다.

식당에서는 우리 일반직원들과 오찬을 하였는데, 과거 국가원수가 많은 지방순방을 했습니다마는, 하위직 공무원들과 직접적으로 오찬을 같이 하신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오찬장에 가시면서 우리 일선 하위직 공무원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흐뭇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오찬장에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첫머리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충청남도 공무원 동지여러분 반갑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한국병」을 고치지 않으면 전부 죽을 수 밖에 없으며 멀지않은 장래에 더 큰떡을 얻기 위해 우리 다함께 고통을 분담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도, 「깨끗한 정부가 강한 정부」라고 하시며, 앞으로 5년동안 쉬지않고 부정부패 척결에 몸소 앞장서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들과 우리들 후손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뛰어 조국을 구하자면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느끼셨겠지만, 분위기는 시종 부드러웠으나 부정부패 척결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의지는 한마디로 강력했었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2/4분기 중반을 맞고 있습니다.

「신한국」창조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특히 몇가지 역점사항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공무원은 도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발상전환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금 내무장관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 「민원1회방문 처리제」의 정착을 위해 전 내무공무원이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행정관청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 이라든가 관계부서 협조등은 우리 스스로 처리하여, 이러한 일로 민원인이 두번 세번 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화 하자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위주로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도민들에게 물적·심적부담을 주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민원1회방문 처리제」를 통해서 민원공무원의 의식을 전환하고 민원서류를

대폭 감축하면서 민원행정을 간소화하는등, 민원업무에 대한 일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제도는 새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성패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므로 전 행정력을 기울여 강력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발전시키기 위한 관건은 우리 공무원 개개인의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특히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수차례 관청을 방문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일부 못된 공직자가 자주 민원인이 방문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거나 은근히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는 이제 완전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민원행정의 개혁과 관련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공직자의 관행을 세 가지만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원이 접수되면 우선 "안된다"해 놓고서 서류를 미루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없어져야 합니다.

둘째, 민원인이 직접 찾아와서 부탁하고, 상사가 지시하거나, 친구가 부탁할 때에만 민원이 처리되기 시작하는 이러한 관행도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셋째,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지연시킴으로서 민원인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동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는 하루빨리 청산하고, 민원행정의 근본적인 개혁으로 주민들에게 참봉사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각 기관단위로 설치되어 있는「행정쇄신 기획단」을 중심으로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개혁을 착실히 추진해서, 민원행정이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도민들이 반응을 보일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힘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일은, 제2경제도약을 통한「신한국」창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업입니다.

6월말로 끝나게 되는 신경제 100일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을 튼튼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지역경제의 주체로서 역할과 책무가 막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기업의욕을 되찾아서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도정에 주어진 당면과제 입니다.

우리도에서는 440억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이중 150억원을 중소기업 설비자금으로 지원하고, 이와함께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찾아내어 이를 해소해 주고, 중소기업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판로 확보를 위한 국내외 시장개척과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에도 우리들이 힘닿는데까지 도와주어야 합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예산절감에도 앞장을 서야 합니다.

우리 관청부터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고통분담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도민의 협조를 얻어내야 합니다.

이미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수용비·여비등 일상적 활동에 필요한 예산들이 상당히 삭감되어 여러분이 일하시는데 많은 불편이 있을 것이나 이런 가운데서도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예산을 절감하고 사무실을 축소하는 등 고통을 분담하지 않으면 도민들이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도 종이한장 아껴쓰는 예산절감 대열에 앞장서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부터 9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7%로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로 잡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제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물가는 우리가 관리한다는 책

임의식을 가지고 물가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20개 중점관리대상 품목, 44개 서비스요금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지방물가가 안정되고, 나아가 국가의 물가관리가 정상화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최근들어서 우리도에서만도 논산화재사건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사고는 불가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잘못해서, 설마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인한 사고는 결코 재발되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우리모두는, "내업무와 관련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사고가 일어나면 바로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두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예방행정과 현장확인 행정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대형 사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관업무중 취약분야가 없는지 다시한번 살펴주시고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논산화재사건은 우리의 확인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났던 점을 상기하면서, 여러분께서는 자기 주변에 예의 주의력을 집중시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서 지난 4.21일에는 국무총리께서 훈령을 내려서 사고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수습방안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사고의 예방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 모든 사람들의 큰 축제인 대전 EXPO가 이제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전 EXPO에는 많은 외국인과 천만이 넘는 국내 관광객이 참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대내적으로는 경제활성화의 전기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 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다함께 즐기는 한마당 축제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범도민적 참여분위기를 확산하면서, 우리도에서는 홍보활동의 적극 전개, 충남관의 설치준비, 시도의날 행사 및 문화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

합니다.

이제 5월은 본격적인 영농철이 됩니다.

우리도는 농업인구가 40%를 차지하는 농업도 입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등 농업개발이야말로 우리도 산업발전에 관건이 되는 사업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년도에도 풍년농사가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는 각 분야에는 93년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입니다. 맨먼저 대통령께 보고드린 업무내용이 집행력 있는 계획이 되도록, 각자 자기 분야에서의 실천계획을 성실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신한국」창조를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하는 자세를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한 가운데 도민에게「참봉사」를 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한번 가다듬고, 이제 5월이 생산적이고 보람찬 한달이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달에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국제라이온스 309-E 지구 제 16 년차 대회 축사

1993년 5월 9일

봉사의 가치와 보람

신록이 푸른 5월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 고장 라이온스 가족의 16차 지구 연차대회가 역사의 현장인 이곳 해미 읍성에서, 이처럼 성대히 개최된 것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축하를 드립니다.

봉사단체로서 가장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녀온 라이온스 자취를 되돌아 볼때, 라이온스 가족 여러분은 남다른 의지와 헌신적 봉사 활동은, 지역발전과 건강한 사회구현의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라이온스 동상 건립과 안구은행을 설치하고 앞을 못보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찾아주는등, 라이온리즘 구현에 혼신의 힘과 정성을 기울여 사회의 어둡고 외로운 곳에 빛을 밝혀주셨고, 화목하고 인정어린 사회조성에 앞장서 오셨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전반에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환경보존운동 참여와 장애자 복지증진 사업에 힘쓰면서, 우리 도정 발전에도 애정과 협조를 보내주신 임석노 총재님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이온스 가족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강한 사람이란, 몸이 튼튼하고 신체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회 또는 우리 사회 내부에 병패적 요인이 없어야 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최근 우리 사회는 새힘과 건강한 기운이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길들여져 왔던 우리의 잘못된 의식과 병폐적 요인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속에서,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랫만에 찾아온 소망스러운 이러한 기운을 우리는 나라와 지역발전에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라이온스가족 여러분의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여와 노고에 큰 기대를 겁니다.

봉사는 우리 사회가 건강할 수록 그 가치는 더욱 빛이 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사람의 아픔이 전체의 아픔으로 나누어질때, 또 한사람의 기쁨이 전체의 기쁨으로 확산될때, 그것은 바로 봉사의 가치요,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의 대회가 이러한 봉사의지를 다짐하는 라이온스 가족여러분의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우리지역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해오신 임석노 총재님을 비롯한 라이온스가족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임석노 총재님의 뒤를이어 충남도의회에서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고계신 공균의원께서 차기총재로 당선되신데 대하여, 축하와 함께 큰 기대를 갖습니다.

모쪼록 오늘 연차대회가 회원모두의 보람과 기쁨을 나누는 대회, 새로운 결속을 다지는 대회로 치루어 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5회 충남교육상 시상식 축사

1993년 5월 13일

최선의 의미

오늘, 제12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충남교육의 발전과 2세 교육에 헌신하고 계시는 백승탁 교육감님을 비롯한 2만 3천여 충남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영예로운 충남교육상을 수상하신 세 분 선생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나라가 발전 하려면 여러 분야에서의 성장과 발전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미래 지향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교육이 국가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것도 생각해 보면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함께, 선생님들의 훌륭한 가르침이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선생님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나라와 지역의 발전은 곧 선생님들의 신념과 열정의 결실이요, 보람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많은 일 가운데서도,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야 말로 가장 가치있고 즐거운 일이라고 선인들은 말해 왔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는 전통적 미덕과 가치관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각계 각층에 번져버린 한국병을 치유하고 신한국을 창조하려는 오늘날에, 그 참뜻이 더욱 아쉬워 지고 있습니다.

더없이 무거운 선생님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 온 국민의 반성과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꼭 이루어져 우리나라가 건강한 사회로 제자리를 찾을수 있게 되기를 진실로 열망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사회적 존경을 받으며,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2세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이 땅위에 정착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오늘, 제5회 충남교육상 시상식에서 영예로운 교육의 참모습이 과연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최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노력의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밝고 건강한 사회, 영광된 21세기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데 교육의 힘이 가장 크다는 것을 다시한번 가슴속에 새기며, 존경하는 여러 선생님들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겠습니다.

하나의 등불은 주위가 어두어 질수록 더욱 빛이 납니다.

분명, 선생님들의 큰 사랑과 가르침은 변함없이 이 사회를 밝게 비치는 등불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숭고한 사도의 길을 새롭게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 큰 보람과 영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세분의 영예로운 수상을 거듭 축하드리면서, 오직 한 길, 스승의 길을 걷고 계신 충남 교육가족 여러분의 건승과 앞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93 방재시범 훈련 인사

1993년 5월 14일

재해는 예방이 첫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고장에서 93년도 방재시범훈련을 실시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먼길에서 저희 충남을 찾아주신 이영래 민방위 본부장님을 비롯하신 관계관여러분, 그리고 각시도에서 오신 재해대책 관계관 여러분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도민여러분과 관내기관, 단체장님, 지방의회 의원여러분, 훈련관계관 및 참가요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는 단비가 내렸습니다만, 이러한 비도 그 양과 시차에 따라 우리에게 이로움도 주고, 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재해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피한 자연재해가 있고, 우리 인간의 방심에서 오는 인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사회가 복잡해지고 도시화되면서, 우리 스스로 재난대비를 소홀히 하게 되면, 크게 피해를 입게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재해는 그것이 자연재난이건, 인재건간에 예방이 첫째입니다.

내무부장관님께서도 5월은 재난대비를 준비하는 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불의에 닥친 사고나 재해는, 지역안정은 물론 우리가 땀흘려 이룩한 결실을 한꺼번에

허물어 뜨립니다.

우리가 재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지난 87년에 있었던 참혹한 금강수해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재 시범훈련의 의의도 그만큼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훈련이 기대이상의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농번기중에 바쁘실텐데 훈련에 참여해 주신 도민여러분과 훈련준비에 애쓰신 관계기관 여러분에게 거듭 고마운 뜻을 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5 회 충청남도 민속대제전 격려사

1993년 5월 20일

잠재된 민속문화의 숨결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짙은 신록이 무르익은 초여름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다섯번째 맞이하는 충청남도 민속대제전 행사가 이곳 구드레공원에서 벌어지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와같이 뜻깊은 행사를 해마다 마련해 주시는 중도일보사 이웅열회장님, 이기창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기 고장을 대표해서 출전하신 각시군 선수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우리 민족은 옛부터 흥겹고 멋이 넘치는 여러가지 놀이를 생활속에 즐기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이곳 부여는 찬란했던 백제문화의 본 고장으로서, 민속문화 또는 다양하게 발달해 왔고, 지역의 독특한 문화로 가꾸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고도 산업사회로 접어들고 물질문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러한 고유의 풍습이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국력이 커지고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깊은

향수와 애정이 되살아 나고 있는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입니다.

곳곳에서 전통문화를 잇고자 하는 행사가 빈번해졌고, 우리의 옛것들이 기성세대 못지 않게 젊은이들로 부터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들, 가슴속 깊이 잠재해 있던 민족문화의 숨결이 되살아 나고 있다는 증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민속대제전 행사로 추진되는 씨름, 그네, 화계놀이등은 우리 조상들이 흥을 돋우며 힘과 재주를 겨루어 오신 한마당 축제로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이어받아, 우리들의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전통민속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민속대제전은 정말 우리들의 몸에 배어있는 정서가 무엇인지, 가꾸어야 할 문화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오늘의 행사가 신한국창조를 위한 도민화합은 물론 전통민속을 길이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는 알찬 잔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군을 대표해서 출전하신 선수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하루 우리의 전통민속 놀이와 함께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자전거타기, 걷기운동 실천대회 격려사

1993년 5월 22일

깨끗한 환경, 건강한 모습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새마을 가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싱그러운 계절 5월 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서해바다가 확트인 이곳 대천에서 자전거타기와 걷기대회를 갖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 합니다.

먼저 오늘 이와같이 뜻깊은 행사를 마련 해 주신 새마을운동충남도지부 오장섭회장님과 새마을가족 여러분, 그리고 함께 참여해 주신 내빈여러분과 대천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타기는 유럽이나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생활속에 자리잡고 있는 운동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자전거행렬로 줄을 잇고 있는 중국과 유럽의 도시들이, 활력넘치는 시민들로 가득찬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자전거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하여 싼값으로 구입 할 수 있고 경제적이며, 에너지 절약과 깨끗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좋은 교통수단 입니다.

따라서 자전거 타기는 밝고 여유있는 사회의 가능성을 여는 국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시민의 생활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국민적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물질문명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히는 면이 있는가 하면, 환경오염과 공해로 찌든 미래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자전거 타기가 생활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교통문제, 환경문제 또한 훨씬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행사는 바로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환경을 가꾸려는 의지가 담긴 대회입니다.

이렇게 좋은 국민운동을 새마을가족 여러분이 앞장서 추진하는 것은, 아주 시의 적절할 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을 한차원 높게 승화시키는 계기가 될것으로 믿으면서, 지난 70년대 이래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운동으로 가난했던 우리나라를 이토록 발전시킨 새마을가족 여러분께서 다시한번 일어나, 값진 국민운동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뜨거운 성원을 보내 드립니다.

존경하는 충남 새마을가족 여러분!

깨끗한 자연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인간의 모습, 이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건강한 사회, 열려있는 미래를 향하여 힘껏 페달을 밟아 봅시다.

감사합니다.

제 8 회 전국윈드서핑 선수권 대회 축사

1993년 5월 22일

바람과 물살을 가르며

윈드서핑 가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고장이 자랑하는 이곳 대천해수욕장에서 제 8회 전국 윈드서핑 선수권 대회가 개최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길에서 우리고장을 찾아주신 배길진 회장님을 비롯한 윈드서핑 가족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불과 10년전만 하드라도 원드서핑은 우리에게 생소한 스포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윈드서핑은 새로운 생활 스포츠로 발전해오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드서핑은 진취적기상과 모험심을 길러주고, 스릴과 낭만을 즐길 수 있는 해양 스포츠입니다.

앞으로 우리 생활이 더 풍요해 지고 다양해질 수록 윈드서핑 인구는 더 많이 보급·확산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윈드서핑 가족여러분

저는 오늘 선수여러분의 구리빛 건강한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활기찬 미래를 봅니다.

바람과 물살을 가르며 어떠한 조건에서도 이를 이겨내는 용기와 인내심은,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윈드서핑 가족여러분!

미래를 향한 돛을 힘차게 올립시다.

바다를 가로질러 열려있는 저 넓은 세계로 나아갑시다.

바다에 도전하는 진취적기상으로 미래창조에 동참 하십시다.

끝으로 오늘 대회가 윈드서핑 가족여러분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잔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5월 24일

깨끗한 공직사회

희망찬 신한국창조의 새시대를 맞이하여 귀하의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는 큰 뜻으로 도정수행에 각별하신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귀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제 우리 충남 도정도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도민의 기대와 여망을 받들어 새롭게 달라져야 한다는 큰 흐름이 행정의 곳곳에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민주자치 행정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 내부의 정화와 기강의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공직자를 비롯하여 사회 각분야에 잔재하고 있는 부정 부패의 요인을 하루 속히 제거하여, 신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정의가 넘쳐 흐르는 신한국을 만드는 일은 국민의 절실한 요청이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라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는 변화와 개혁의 진정한 의미와 필연성을 깨닫고 도민들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공직 내부를 깨끗하게 하는 한편, 신속 공정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공직사회의 부조리 근절은 공직자 자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도민과 함께 민간단체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청탁이나 압력, 금품제공등의 지난날 바람직스럽지 못했던 일들을 자제하여 부조리 매개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민간단체가 앞장서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민간단체 중심의 변화된 자제분위기가 사회전반에 흐를 때, 우리 사회는 진정 튼튼하고 건강한 사회로 변모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비록 고통이 따르더라도 조국의 미래가 활짝 꽃피운, 역사의 새봄을 가꾸는 마음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전폭적인 성원과 협조가 계시기를 거듭 바라마지 않습니다.

귀하와 귀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평통지역협의회 간담회 인사

1993년 5월 26일

통일의지를 다지는 자리

존경하는 유경현 평통 협의회 사무총장님, 한기수 부의장님, 이대희 도의회의장님, 충청남도 협의회 자문위원님과 시군 협의회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고장 평통가족여러분의 활동 평가회에 나와서,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통일에 대한 지방적 실천의지를 다지고, 지역안정에 힘써오신 평통가족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 25 대통령께서는 취임연설을 통해서, 갈라진 민족이 하나되어 평화롭게 사는 통일된 조국을 위해, 역사와 민족이 맡겨준 책무를 다해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전심전력 할것을 천명하셨습니다.

또한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를 이룩해 통일된 조국을 실현하겠다는 것을 국정지표로 내세우셨습니다.

최근 그동안 가시적 성과가 보일듯 하던 남북 대화는 북한의 NPT 탈퇴와 관련해서 어려운 국면을 맞이 했으며, 어제는 북측에서 남북정상회담 논의를 위한 특사교환을 제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은 국제정세와 여론에서의 불리한 여건을 핵 카드로 돌파하고,

아울러 대내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주민의 동요를 막고자 하는 의도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할 때라고 봅니다.

지난 40년간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인내와 노력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나라의 위기는 대부분 내부결속의 부실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남북문제는 계속해서 인내속에 우리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국가기강 확립과 경제활성화로 국력을 튼튼히 하고, 국민모두가 더불어 사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도록 우리사회가 건강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새정부 출범이후 우리고장에서도 정의로운 사회,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신한국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의 기운이 충만되고 있으며 의식과 행태, 관행등이 각분야에서 폭넓게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흐름을 도정전반에 확산시키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민주평통활동 평가회의가 우리의 통일에 대한 역량이 더욱 확대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한 인사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22 회 전국소년 체육대회 결단식 격려사

1993년 5월 26일

최선을 다했느냐

친애하는 선수와 임원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각급 기관장님, 그리고 체육지도자와 학부모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랑스런 아들 딸들이 제 2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출발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학업에 열중해오면서, 틈틈히 훈련에 땀흘려, 장도에 오르게된 어린 선수 여러분에게 먼저 애정어린 격려와 성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먼길에 오셔서 우리 선수들을 격려해 주시는 각 기관단체장님과 도민여러분께, 마음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력이 커지면서, 나라의 스포츠 수준도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지난해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울려퍼진 우리 대표선수들의 승전보는, 지난 88올림픽에서의 영광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것을 입증해 준 바 있습니다.

어렸을때부터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해 냈던 소년체전의 활성화는, 곧 오늘의 스포츠 한국을 이룬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소년체전을 통해서, 우리 고장에서도 체육 한국을 빛낸 많은 체육선수들을 배출해 냈습니다.

그만큼 우리 고장은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꿈나무 선수들이 많다는데, 우리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선수의 발굴은, 곧 많은 체육팀의 창단과 우리고장 체육고등학교의 탄생을 가져 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선수들이 미래의 스타를 꿈꾸며 고장의 명예를 빛내기 위해서, 오늘도 훈련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성장의 씨를 뿌리고,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헌신해 오신, 백승탁 교육감님을 비롯한 체육지도자 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수단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고장 체육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고향의 명예를 빛내기 위해서,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동안 땀흘리고 닦은 기량을 힘껏 발휘한다면,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것을 충분히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스포츠는 이기는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최선을 다했느냐가 더욱 소중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승리의 기쁨과 보람을 안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필승의 신념으로 장도에 오르는 선수단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200만 도민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거듭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선수단 여러분,

그동안 훈련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하고 자랑스런 모습으로 개선해 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23 회 충청남도 미술대전 시상식

1993년 5월 27일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

존경하는 충남 미술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충청남도 미술대전이 시작된 지 스물세해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미술대전은 우리 고장 향토미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오면서, 향토화단을 빛낸 많은 분들을 배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훌륭한 작품을 내주셔서,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행사개최에 많은 애를 써주신 예총 충남지회 조창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 인사 여러분, 그리고 함께 참여해 주신 미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최근,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문화 예술에 대한 욕구가 점점 다양해지고,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실 한곳에 그림 한점 걸어 놓는것에서 부터 조각공원이 조성된다던지..., 문화공간도 많이 생기고, 전시회나 공연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욕구는,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삶의질」향상과 더불어 문화예술의

중흥기를 맞이하게 될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우리 충남은 1400년전, 동양예술을 찬란히 꽃피웠던 백제문화의 본 공장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자존과 긍지를 바탕으로, 우리는 한차원 더 높은 문화역량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전세계박람회 개최는 이러한 우리 문화예술의 참된 모습을 우리 국민과 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고장 미술가족 여러분께서도, 우리 지역이 훌륭한 전통문화를 가지고 발전하고 있는 고장이라는, 문화적 이미지 선양에 흔연히 동참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같이 예술은 그 자체에 내재된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대중과 같이 호흡함으로서, 그 가치는 더욱 빛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향토문화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건전한 문화를 향유한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도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건전한 문화공간 조성을 비롯해서,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충남예술가족 여러분!

우리 충남 예술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문화의 뿌리가 튼튼히 내릴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창작활동에 전념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향토 화단을 지키고 있는 우리 충남미술 가족여러분께 거듭 격려와 성원을 보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3년 6월

6월 월례조회 훈시

1993년 6월 1일

관편의에서 민본위로

녹음이 짙어가는 6월입니다.

짙어가는 녹음과 함께 만물이 생명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상반기까지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마는, 이제 6월에는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착실히 준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난달에도「신한국」창조의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또한, 각자 자기 맡은 분야에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도정의 발전과 지역 안정에 크게 기여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오늘 으뜸도정상등 여러 측면에서 훌륭한 업적을 세우고 귀한 상을 받은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6월 4일이면 새정부 출범 100일을 맞습니다.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신한국」창조의 노력은 대통령 각하의 확고한 신념과, 몸소 앞장서 뛰는 솔선수범을 바탕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새정부 출범이후 사회 각 분야에 변화와 개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개혁을 지지하는 국민이 90%를 넘고, 비용부담을 해서라도 개혁을 지지하겠다는 국민이 과반수를 넘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외국의 언론들은 한국이야말로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민주국가의 표본이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의 변화와 개혁에 발맞추어서 우리도도 지난 한달 동안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첫째로, 「신경제 100일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단위에서 여러가지 실천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각종 자금지원 이라든가 「해외시장개척단」을 보내서 구라파 시장에 우리도의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우수한 과학기술자들과 우리도내 기업간에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충남기업들의 기술 혁신 바탕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밖에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세제혜택, 인력난 해소, 기타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힘써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충남지역의 물가안정에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업체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는 우리들의 노력, 고통분담을 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잘 결실을 맺어서, 3월까지 가장 높았던 우리도의 물가가 4월들어서 서비스 요금이 0.9%나 인하되는 등 물가가 상당히 안정세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경제 계획 추진과 함께 우리들은 그동안 의식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공직자들의 행정쇄신다짐대회, 의식개혁다짐대회, 그리고 각종 감찰활동 등을 통해서 우리들은 깨끗하게 새로 태어나는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두번째로, 그동안 우리들은 행정쇄신에 관한 노력을 기울여서 참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5월 10일 이후부터, 내무행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쇄신기획단 설치를 비롯하여 「친절 365일 운동」, 「친근한 관청만들기」등 우리들이 해야될 행정쇄신과제가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절감등 각종 고통분담 시책에 잘 순응하면서 여러분들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관청에 가졌던 도민들의 회의적 시각이, 최근들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때마다 '우리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구나'하는 만족감과 함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의 노고를 생각케 됩니다.

이제 금년 상반기를 마감하는 6월을 맞았습니다.

그간 국정과 도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달에 꼭 실천해야 될 과제를 몇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교육과 대화, 또 회의등을 통해서 공무원의 의식 개혁이야말로 「신한국」창조의 역사적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한 첫번째 과제라는 말씀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가짐으로 고통을 잘 이겨내서, "공무원의 의식이 그야말로 많이 달라졌구나"하는 말을 주민들로부터 듣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아무리 반복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식개혁 분야에 대해서 정리해 봄으로써, 여러분들의 의식개혁에 관한 결의를 다시한번 다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들은 「깨끗한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참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나라발전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공무원들이 부정과 관련

되어서 일을 해왔던 것도 숨길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정과 연결된 공무원이 잔존하는 한 도민들의 신뢰획득은 어렵습니다.

한 두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들이 이토록 힘들여 추진하고 있는「의식개혁 운동」, 깨끗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는 취임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깨끗한 정부가 강한 정부다", "윗물맑기 운동을 확산해서 다시는 이땅에 부정부패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각종 교육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정과 단절해서 깨끗하게 다시 태어나자"하는 말씀을 해왔습니다.

다시한번 호소드립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부정과 연계되는 공직자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 전체를 위해서 단호하게 도태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우리들은「봉사하는 공무원」이 됩시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도민들을 보다 편하게, 잘 살게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문제입니다마는 우리들은 과거에「관위주」의 행정에 안주하다보니 우리 스스로 시혜의식을 갖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모두 시혜의식을 버리고「봉사는 크고, 규제는 작게」하는 본래의 봉사하는 공무원 자세를 다시한번 다져나갑시다.

셋째, 우리는「창조하는 공무원」이 됩시다. 우리 도민들은 우리도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될 일들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볼수 없는, 기술적으로 내용이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는 전문서적도 읽고 현장에 나가서 도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서 도민들이 가장 바라는 행정, 기술적으로 가장

알맞는 행정을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술적인 판단을 한가지 잘못하면 5년, 10년뒤에 가서 큰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달라져가는 기술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공부하는 공무원, 창조하는 공무원이 됩시다.

이제 이달 말일에는 「신경제100일계획」이 마무리됩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께서는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통치철학을 앞세워 「신경제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신경제100일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신경제100일계획」 추진상황 보고회에 참석하시어 회의를 주재하는 등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도에서도 100일계획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난 5월 17일에 대통령께서는 「신경제100일계획」중간평가회에 참석하셔서 "침체된 경제가 움직이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면서, 남은 기간동안 100일 계획의 각종 시책을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할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신경제 100일계획」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도에서 해야할 일은 물가안정과 중소기업 육성에 계속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민원행정 쇄신에 큰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관편의」 위주로 된 각종 법령과 제도·관행을 「민본위」로 개혁해서 도민들이 가지고 있던 유보된 권리들을 되돌려 주자는 것이 민원행정쇄신의 목표입니다.

민원행정 개혁이 성공되어야만 새 정부의 행정개혁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민원행정이 성공되어야 민주행정은 내실을 기할수 있게 되고 주민의

신뢰를 획득해서 4천만이 동참하는「신한국」창조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쇄신에 있어서 가장 앞서 말씀드릴 것은 첫째로,「민원 1회 방문처리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이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각자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예상외로 빨리 적응하는 등, 이 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현 내무장관의 역점시책일 뿐만아니라 그보다 내무행정이 가야할 출발이면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이 서류를 들고 행정관청의 이곳저곳을 방황하게 하는 이런 모습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여러분의 노력이 더 한층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들이 그동안 힘써 추진해온 행정쇄신작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도의 행정쇄신작업은 여러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직원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어서, 다른 도에 비해서 많은 시책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도민의 참여속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쇄신 과제를 발굴하여 우리 행정이 민주행정을 향하여 한차원 높게 발전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쇄신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친절365일운동」입니다. 사람을 대할때 친절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 인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더구나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에 대해서 친절봉사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100가지시책을 잘하는 것보다 찾아온 민원인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야말로, 주민들이 우리 행정관청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이 도민을 대할때 친절하게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

로써, 도민의 도정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은 1993년 상반기를 정리하는 달입니다. 따라서 몇가지 당면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께 보고드린 주요업무 계획을 비롯해서 모든 도정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업무추진이 하반기까지 잘 연결되어서 금년말에 가서는 당초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요즈음 지방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내기가 예년에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농사는 절반정도 지었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도 풍수해등 재해에 대비해서 사전 점검과 재해발생시 대처방안을 착실히 강구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EXPO가 두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충남에서는 5개 분야에 걸쳐서 EXPO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XPO는 대전에서, 관광은 충남에서"라고 하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 차질없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특히 EXPO를 앞두고 우리 지역에서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의회와의 관계입니다. 오는 6월7일부터 도의회 임시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임시회는 도의회 2년을 중간결산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의회와의 관계를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좋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다루어집니다.

여러분께서는 의회의원들과의 개별적 접촉과, 상임위에서의 접촉을 강화하여 이번 임시회에는 원만한 분위기속에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달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위해 몸을 던져 산화한 호국영령들의 뜻을 기리면서 유가족에게 따뜻한 동포애를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각자 공적·사적으로, 유가족에 대한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충남 공직자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신한국」창조의 역사적 중심에 서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위에는 유례없는 변화와 개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지금까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나라발전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한국」창조의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또다른 시련이 닥치고 있습니다. 먼저 봉급동결과 각종 관리성예산의 절감등의 어려운 고통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하위직 공무원들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할때 참으로 가슴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들은 동지애를 가지고 따뜻하게 서로 감싸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은 나라를 구하자는 역사적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시련이라고 받아들입시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이 당하는 고통분담은 경제적 논리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꿋꿋이 자기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일선 공무원동지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우리는 절대로 이런 시련에 꺾이지 말고 꿋꿋이 일어서서 「신한국」창조의 대열에 한사람도 낙오되지 말자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때 각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1993년 6월 3일

깨끗한 정부가 강한정부

친애하는 충남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내린 비로 인해서 공기도 맑고 푸르름이 한결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기 때문에 5월이 더 좋은 계절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3월초 부임한 이래 벌써 두달이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변화와 개혁의 큰 역사가 도도히 흐르고 있었고, 우리 도는 주민 위주의 봉사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정부 출범이후에 짧은 기간에 큰 변화를 겪으면서 여러분이 의연히 자기 역할을 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틈을 내서 엊그제까지 각 시·군 순방을 마쳤습니다.

절대 다수 우리 공무원들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의 복지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해 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주 마음 든든하게 생각 했습니다.

더구나 봉급동결등 고통분담 시책에 적극 동참하면서, 신한국 창조에 동참해

주신 우리 충남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함께, 다시한번 격찬을 표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겪고 있는 여러가지 고통들은 한국병 치유를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리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모자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불편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변화와 개혁의 물결속에서 국민앞에 깨끗하게 다시 태어나자 하는 결의를 다지면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 보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훌륭하신 강사선생님들한테 좋은 말씀을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강의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다시한번 마음을 가다듬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새정부 출범이후 여러분이나 저나 신한국 창조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신한국 창조의 역사적 큰 물결 가운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신한국이란 내가 각 시·군을 다니면서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60년대 까지의 형편없이 가난했던 굴레를 벗어 버리고 세계 선진국과 같은 대열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자 하는 운동이 줄기차게 벌어졌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니까 40대 후반, 50대 우리 동료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우리 어렸을때 참으로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서럽디 서러운 보리고개를 넘길때, 못먹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 얼굴이 누렇게 뜨고 몸이 붓는 가난한 백성, 이것이 매년 되풀이 되었습니다.

60년대 초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60불 내지 70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참으로 의식주 모든 면에서 너무너무 가난했고 우리들이 서럽게 자라온게 사실입니다.

그때 "잘살아 보자"하는 한마디는 온 국민의 공감을 가져온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보자는 하나의 공감대속에서,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른데를 쳐다볼 생각않고 앞만 보고 뛰어온 시대였습니다.

다른 나라가 100년, 200년 걸려 이룩한 경제건설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단 한세대만에 그 기초를 튼튼히 하고 우리 경제가 중진국 선두대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했고, 우리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우리는 큰 성취를 이루어 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러한 경제 일변도의 성장정책은, 경제쪽에서의 성취는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각계 각층에 소위 한국병이 번져왔던 것입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놀고 먹는 한탕주의가 활개를 쳤습니다.

사치와 낭비가 나라를 뒤엎었고, 퇴폐와 나태가 우리 사회를 좀먹었습니다.

한탕주의가 거두어 들인 불로소득으로 할 게 없으니까 나태, 방탕, 퇴폐, 전에 없던 마약이 판을 치고 퇴폐풍조가 만연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면서도 누구하나 만족한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불평 불만속에 자라왔습니다.

근래에 각 매스컴을 통해서 사정의 내용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한 분야 안전한 곳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개탄의 소리가 나옵니다.

물론, 나타나는 것은 일부분에 속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고 안정되어 있는 것은, 나타나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우리 한국병은 갖가지 형태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만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들, 솔직한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도덕 불감증에 걸려있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래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지고, 사회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한국병이

논의되었고, 정말 이대로는 안되겠다, 이런 한국병을 그대로 놔두고는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은 어렵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우디나 쿠웨이트가 국민소득 2만불 3만불에 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 보고 아무도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제 국민소득만 높아진다고 해서 선진국이 될수는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우리 한국병이 너무나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이대로 놓아 두고서는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놓아 두어서는 애써 가꾸어온 우리 소중한 공동체, 대한민국이 현상유지도 어렵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되어 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 역사를 되돌아 보면 나라가 망하는 건 간단합니다.

내부가 붕괴되면 이 나라 망합니다.

우리 구한말 역사를 보십시요.

외국에서는 지금 산업혁명을 일으켜 고도로 발달된 기술들이 들어오고 개발되는데, 우리 선조들은 장죽물고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당쟁에 휩싸였고, 조금 쓸만한 인재들은 다 성장도 하기전에 중간에 꺾어나갔습니다.

이러다가 나라 망하지 않았습니까?

망하고 났을때 최고의 피해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 백성들이었습니다.

정신대가 왜 생겼습니까?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앞만 생각하다가 나라 망하고, 나라가 망하니까 온 백성들이 정신대에 끌려가고 만주, 시베리아로 이사가고, 이렇게 죄없는 백성들이 참으로 참을 수 없는 고초를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나라 망하면 이지경이 되는데 안 망하려는 우리들 한국병 고쳐야 합니다, 하는 얘기들이 논의되는 가운데 새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에 이대로는 안된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경제를 희생하겠다는 공약을 하셨고, 이제 각계에 번진 한국병을 고쳐나가겠다, 하는 결의를 천명하셨습니다.

한국병 치유를 통한 신한국 창조에 대한 대통령 말씀은 여러분들도 다 들어서 잘 알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몇 대목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주위를 환기코자 합니다.

"한국병은 약으로 치유해서 안되면 도려내서라고 치료해야 된다. 한국병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을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임기 5년동안 쉬지 않고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 서겠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고자 하는 것은 강물을 손바닥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제일 강한 정부는 깨끗한 정부다, 정부가 허물이 없을때,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게 될것이다.

지금 변화와 개혁을 지지하는 국민이 94%에 이르고 있고, 세금을 더 내서라도 개혁을 지지하겠다는 분들이 과반수를 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지지는 참으로 좋은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 없다, 이러한 국민적 여망을 바탕으로 우리가 변화와 개혁을 이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추에 한을 느끼게 될 것이며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그밖에 아주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우리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 어느 정부에서도 못했던 일을 해 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변화, 우리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는 4천만 국민 모두가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공직자 사회는 물론이고 개인회사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군부도 그렇고, 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우리 공직사회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보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바뀌지 않고 다른 국민들 보고 의식을 바꾸자, 이래서 납득이 되겠습니까?

나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참으로 나라발전에 큰 몫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때에 제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사실 뭐를 해라 뭐를 해라 하는 말씀을 드리기 민망할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반성할 점도 없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니뭐니해도 우리 공무원들은 이나라에 있어서는 지도적 위치, 전위적 세대기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의식을 바꾸고 발상을 전환해서 개혁과 창조를 선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 처럼 곳곳에 병든 이나라, 이대로 놓아 두고는 우리가 이 공동체 사회를 유지할 수도 없다. 이렇게 볼때 누군가가 앞장서야 되는데 앞장설 세력,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다, 서로 자기 몫을 챙기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이래서는 신한국 창조가 어림없는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공무원들 참으로 나라를 구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새로운 다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들 주위에 있는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우리 스스로 찾아서 이것을 타파해 나가야 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와 관행을 우리가 고수해서는 우리 자신이 살아 남기도 힘들고, 신한국 창조에 역사적 과업을 이룩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이나라를 이만큼 건설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때로는 국민 위에 군림한 것이 없다고 단정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나라를 이만큼 건설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때로는 국민 위에 군림한 것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개발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공사업을 강요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로써는 불가피한 면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새시대를 맞아서 우리의 자세와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군과 도청 계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무원법을 다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 의무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수임자로써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국민에게 군림해서는 안되지요.

과거에는 그것이 통했을런지 모르지만 문민시대를 맞아서, 민주화 시대를 맞아서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행동을 국민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앉아 있다, 하는 식으로 발상을 전환합시다.

우리가 우리주위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과거의 고리를 끊고 명실 상부하게 깨끗하게 다시 태어난 뒤에 국민을 위해서 참봉사를 해야 될 때 입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 내무장관께서 지난번에 시·도지사 회의때도 말씀하셨고, 부지사, 부시장 회의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을 버리자 하는 말씀을 나는 인상깊게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특정인에게 무슨 인·허가를 한다, 받아가는 분으로서는 큰 혜택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 드려야 될 일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우리는 국민을 보다 편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발상전환을 합시다.

민원이 접수되면 일단 "안된다", 우선 이렇게 해 놓고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찾아와서 부탁하거나 뭐를 좀 집어주거나 하면 안될 일도 되도록 처리해 주고, 부탁이 안들어 오면 될 일도 틀어서 오래 끌거나 안되도록 만들고, 이런일이 없었는지 되돌아 보아야 됩니다.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일, 이런일이 없었는지 반성할 때입니다.

국민을 위한 참봉사, 이것의 집결체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내용은 많이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이 1회 방문 처리제야 말로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직자의 의식을 개혁하면서 부조리의 고리를 끊어 주는, 말하자면 민원의 혁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원인이 서류를 들고 군청을 찾아갔다고 합시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검토해야 되고, 농지전용을 검토해야 되고, 그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것들이 다 해결된 뒤에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각 방에 다니면서 민원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관청에 갔을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퉁명스럽습니다.

아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친절하고, 간이라도 빼 줄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주 불친절합니다.

길거리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 마주보면 잔뜩 화가난 표정들입니다.

서양사람처럼 웃어가면서 윙크해 주고 인사를 해 보십시오.

저사람 미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직된 생활속에서 자라 왔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농지과에 갔다, 산림과에 갔다, 또 문화재가 있는데는 문화공보실도 갔다가

도시과에 갔다, 주택과에 갔다, 이것을 하려면 피곤합니다.

갈때마다 누구 아는 사람 없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부탁하면, 물어보면 턱짓으로 저기 가 보시오, 저기가 어디입니까?

아무개 아무개 찾아가십시오 해도 어려운데 "저기 가 보십시요", 이 시대의 일반 국민들이 관청을 보는 눈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구청이나 이런데에 증명서 발급받으러 가보면 아주 불친절 합니다.

구청가서 인감증명하나 떼려도 아는 사람통해서 전화 해 놓고 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민원인들이 서류를 한번 내 놓으면 우리끼리 다 해결하자 하는 것이 1회 방문처리제 입니다.

그래서 제가 1회방문 처리제를 시행하는 현장을 가 보았기 때문에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사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태안군청을 방문했을 때 1회 방문 처리제 사례가 두건이 나왔습니다.

한건은 민원인이 토사 채취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그것을 받은 산림과에서는 농지담당 부서에 내고 몇군데 내서 다른데는 다 좋다 이렇게 왔는데, 이것이 관광도로의 가시구역에 있습니다.

토사채취의 필요한 농지전용도 좋다, 다 좋다 했는데 가시거리라는 사정때문에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불렀습니다.

본인에게 연락을 해서 선생님이 제출하신 토사채취 허가 민원을 가시구역이라서 안되겠다, 다른 지역으로 바꾸면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차례 절충끝에 본인이 어디어디쯤 하나 구했는데 되겠는지 보아 주시오, 민원심사위원회에서 그러면 담당 계장이 한번 가 보시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계장이 가서 보니까 여기같으면 되겠다 해서 들어와서 복명해서 토석채취허가를 해준 사례입니다.

종전같으면 가시구역이니까 해 줄 수 없습니다, 하고 문서를 내면 됐죠.

이것을 어떻게든지 되도록 이분에게 도움을 준 것입니다.

이방 저방에서 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처리 주무과에서 이방, 저방 연락을 했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낸 서류가 잘못되었거나 내용이 잘못되었는데도 딱 한번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경우처럼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정당한 내용보완을 위해서 오라고 한 것, 이것은 1회 방문처리제와 상치되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오라가라 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 1회 방문 처리제의 내용입니다.

또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같은 태안군인데 어느분이 주유소 허가신청을 냈습니다.

주유소 허가를 위해서는 거기도 농지전용, 산림훼손, 소방관계법령등,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신청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면적을 신청했습니다.

주유소에 필요한 면적보다 너무나 많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본인을 불러서 이것은 너무 많으니 면적을 줄여오면 해 주겠다, 재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나는 줄일수 없다, 그대로 다 해 달라, 그러니까 재심위원회에서는 이것은 민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되는 것이니까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든 본인을 설득해서 본인이 하고자 했던 주유소 사업을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재심까지 거치면서 면적을 줄여오면 해 주겠다. 이렇게 정의했는데, 본인이 끝까지 부당한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1회 방문 처리제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공무원의 프리미엄을 버려야 됩니다.

해 주는 것이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의무다 하는 발상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1회 방문처리제가 만일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민원 행정은 한차원 높게 발전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내무장관께서는 이것만은 기여코 정착시키겠다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가지 1회 방문처리제가 장착이 된다면, 우리 행정은 거의 선진국 수준을 향해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가보면 참 친절합니다. 뭐를 물어보면 아주 민망할 정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자기들끼리 전화해서 다 해결해 줍니다.

또하나 사례를 말씀드리죠.

제가 지나번에 10일, 1회방문 현판식을 하러 민원실에 갔습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현관입구에 손님 세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만한 서류를 하나씩 들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상당히 수심에 찬 표정들입니다.

그래서 무슨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말씀드렸더니 큰일났다 이겁니다.

그날 얘기로 내일 저녁 비행기로 외국을 가야 되는데 신원조회를 했더니 신원조회가 가부가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오후에 가부가 나온다는데 그때 나와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가고 자기들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외국여행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좀 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되었나 하고 봤더니 도청 민원실 옆에 있는 경찰 단말기에서 눌러 보니까 안나와요.

다시 확인해 보려면 도경찰청에 있는 메인 단말기에서 이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거리에서 경찰청까지 거리는 걸어서 5분거리입니다.

제가 지나치려다가 딱한 것 같아서 옆에 있는 직원보고 경찰청까지 멀지 않으니

한번 가서 다시한번 확인 해 보아서 보내드릴 수 있으면 보내드리는 쪽으로 도와주자 했습니다.

알았다고 갔습니다.

볼일보고 저녁때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경찰청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하니까, 해외여행에 지장이 없다 해서 저녁때 여권이 나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당신 단말기를 눌러 보니까 답이 안나와서 못갑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도경찰청에 가서 직접 조회해 보니까 해결이 되었습니다.

민원인들이 "나는 내일 저녁에 꼭가야 되는데 이것 좀 도와줄 수 없느냐"고 할때 자기 형제나 아는 사람이 왔으면 내일모레 오라고 했겠습니까?

자기가 직접가든 옆에 동료에게 얘기하든, 경찰청에 전화하든 어떻게든 도와줘요.

우리가 민원처리하는데 1회 방문처리제를 비롯해서 우리가 참으로 도민을 위해서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도움을 받은 민원인들이 변화를 실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를 실감하면서, 우리 신한국 창조에 자기도 동참하겠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것입니다.

친애하는 충남공직자 여러분!

우리 깨끗하게 다시 태어나, 도민을 위해 참봉사하는 새 공무원이 됩시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들이 가야될 가시밭길, 형극의 길을 우리들이 가야 됩니다.

가면서 우리가 하나 더 할일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다시 태어나 도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면서, 더하나 욕심을 부린다면 도민을 위해 공부하는 공무원이 됩시다.

지금 우리들이 해야될 각종 행정은 참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전문적인 행정을 하려면 우리들이 쉬지않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모든 행정은 나날이 발전하고 행정 여건은 쉬지않고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들이 공부하지 않고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시대조류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쉬지않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각 시·군 순방을 하면서 참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할일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들이 도정을 수행하는 목적은 우리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을 보장해 주는 일입니다.

우리 충남은 여러면에서 낙후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 못지않게 우리 충남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런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내가 우선 당면하고 있는 당장 해결해야 할일이 무엇이냐, 낙후된 충남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 도민들의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첫째는 도로를 확·포장해 주어야 됩니다.

고속도로, 국도를 늘리고 국도를 4차선으로 늘리고, 동서 교통망을 확충하고 시·군도, 지방도를 늘리고, 확·포장하고, 농촌 도로, 마을 진입로 개설등, 할일이 참 많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흙탕길에 사는 도민들 입장을 생각하면 도로개설이 아주 급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들 지방 재정을 동원해서 도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다른 분야에 투자를 늘려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보다 질좋은 행정을 위해서 공부하는 공직자가 됩시다.

이제 2/4분기 중반을 맞고 있습니다.

몇가지 더 당면 사항에 대해서 강조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경제 100일계획 실천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과 지방물가 안정에 여러분들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들이 이미 예산 절감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절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여름철을 맞아서 각종 대형 사고의 예방과 사후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마하는 방심이 빚는 재난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총리 훈령까지 내려가 있습니다마는, 재난 사고 방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이제 대전엑스포가 눈앞에 닥쳐 왔습니다.

각 시·군은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맡은 엑스포 준비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제 본격적인 농사철입니다.

오면서 보니까 들에 모내기 하는 농민들이 많았습니다.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영농지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매듭짓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모두는 시대적 사명과 우리들의 소명을 바로 알고 상하 관계와 수평 관계를 잘 재정립해야 됩니다.

상사는 부하를 사랑하고 부하는 상사를 존경하는 관계, 이것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상사로써 할 일, 부하로써 할 일, 이것을 각자 제대로 해 내면 상하 관계는 재정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료직원들간의 인화와 단결을 도모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 어려운때에 살면서 같은 직장 동료로써 서로믿고 인화를 이룩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단결된 힘으로 난국을 같이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아침 MBC뉴스를 들었습니다.

충남 도청과 각 시·군에서는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는 흔적이 나타난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행태 변화는 눈에 뛰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지적이 맞든 안맞든, 그런 비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시대, 같은 자리에서, 같이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으로 좋은 인연을 훼손되지 않도록 각자 자기의 역할을 잘해서, 우리 충남 1만5,000명의 공직자들이 신한국 창조의 대열에서 한사람도 낙오되지 말고 좋은 결과를 얻고,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재목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가 너무 딱딱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거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우리 같이 가시밭길을 손잡고 서로 위하면서, 위로하면서, 잘 헤쳐 나갑시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체육회 이사회 인사

1993년 6월 4일

한단계 더 높게

존경하는 충남체육회 이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녹음이 짙은 여름을 맞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초에 충남지사로 부임한 이래 도정 파악과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행정을 수행하느라고 여러분 찾아 뵙는 기회가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게 이런 자리를 마련한데 대해서 여러분께서 넓은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충남체육회의 지도자일 뿐 아니라 우리 도정에 참여하고 계신 유지들이십니다.

우리 충남체육회 이사회는 우리 충남체육회 발전의 산실이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9년 분리후 약화된 충남체육의 재 도약을 위해서 여러분께서는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결과 지난해에는 74회 체전에서 안정된 체육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이토록 충남체육의 발전에 노력해 주신 이사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에 각계에 걸쳐서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깨끗하게 다시 태어나는 공무원이 되고자하는, 공직자 의식개혁 운동이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경제 100일 계획을 지방적으로 수용하므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라경제를 되살리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행정 쇄신에 관한 노력을 기울이므로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이기회를 빌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개혁에 맞추어서 우리 체육계도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충남체육을 이끌고 계시는 지도자들이시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유지들이십니다.

도정도 이해해주시고 체육발전에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진직할시 분리후 약화된 충남체육을 도약시키기 위해서 충남체육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저해 요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아내고 고쳐서, 우리 지역이 낳은 우수선수들을 발굴하면서 이들을 효율적으로 훈련시키고 지혜로운 대응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금년 가을에 열리는 광주 전국체전에서는 우리 체육이 한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한 모습을 내외에 과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큰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충남체육회 이사 여러분의 큰 노력을 부탁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충남체육발전에 계속 협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진행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회 대의원 총회 인사

1993년 6월 4일

충남체육의 새로운 도약

존경하는 충청남도 체육회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월초 도지사로 부임 이래 그동안 업무파악과 정부의 각종 지침에 대한 행정수행에 전념하느라 여러분을 찾아뵙는 기회가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충청남도 각분야에 체육경기단체를 맡고계신 우리 충남의 체육지도자로써, 그동안의 우리 충남의 체육을 이끌고 뒷받침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89년도에 대전직할시가 충남으로부터 분리된 이래 약화된 충남 체육을 재도약시키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오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 지난해에는 74회 전국체전에서 전국 1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또한 우리 충남의 각종 경기단체의 폭넓은 선수를 확보해 주셨습니다.

어려우신 여건하에서 충남체육을 잘 이끌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대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 노력이 각계에서 광범하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도는 이러한 국가적 추세에 발맞추어서 깨끗하게 다시 태어나는 공무원이 되자는, 우리 공직자들의 의식 개혁 운동이 행정 내부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경제 100일 계획의 지방적 수용 실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므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나라 경제의 안정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원행정 쇄신의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므로써 도민 편의 위주의 각종 행정제도와 법령을 정비하고 공무원 사회에 내재해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충남의 체육계를 이끌고 계시며 도민들을 지도할 수 있는 계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모인 기회에 우리 도청에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한국 창조 운동에 대해서 널리 이해 해주시고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한가지 이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오전에 충남체육회 이사회가 이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는 그동안 공석으로 있던 충남체육회 사무처장에 현 천안시 부시장으로 있는 김 학현씨를 임명하는데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김 학현 현 천안 부시장은 도내 군수를 몇군데 거쳤고 현재 천안시 부시장으로 있습니다만,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대인관계가 좋으신 분입니다.

뿐만아니라 지난 제60회 갑년체전에서 우리도의 상황실장으로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큰 기여를 한 그런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우리 충남체육회 실무를 담당하려면 이렇게 행정 경험이 풍부함과 대인관계를 고루갖춘 분이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러분을 놓고 그동안 검토를 해왔습니다만, 오늘 오전 체육회 이사님들께서 김 학현 천안 부시장으로 선정을 해서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주셨슴을 말씀드립니다.

대의원님들께서는 김 학현 처장을 잘 지원해주셔서 충남체육회가 올바로 발전할

수 있도록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지금 사회곳곳에서 신한국 창조의 노력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 체육회도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충남체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우리가 잘 찾아내서 고칠것은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가을 광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서 이자리에 계신 각 경기 단체를 맡으신 대의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노력있으시길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변함없는 열정으로 충남체육 발전에 더더욱 기여해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도정 발전에도 지속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생산적이고 유익한 회의가 되길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제출 제 74 회 도의회 임시회 인사

1993년 6월 7일

고통분담 차원에서 재원확보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

올해도 어느덧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신한국창조를 위한 개혁과 변화에 도민들의 동참을 선도해 오시면서, 도정의 모든 분야가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에는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서해안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계부처를 직접 방문하시고, 정부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촉구해 주신 서해안 개발사업 지원 특별위원회 전용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의원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

지금 우리는 새정부 출범이후 사회 모든분야에 걸쳐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새로운 가치관과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개혁과 변화에, 보람과 희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민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무엇인가 달라져야하고, 이제는 나부터 달라지지 않으면 않된다는 사실에 점차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각자가 자기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고통분담에 대한 사회적 동참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정과 비리가 성역없이 척결되면서 침체되었던 경제가 서서히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역사적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공직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도 막중함을 절감하고 더욱 새로운 결의와 자세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성립된 일지라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과감하게 절감하여 씀씀이를 줄여 나간다는 기본인식과, 당면한 시대적 과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443억원과 특별회계 74억원을 합하여 모두 517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작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을 비롯하여 지방세수입의 증가예상분과, 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등 의존 재원의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의 조정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고통분담 차원에서 봉급인상분을 전액 삭감 조정하고 그외 경상적 경비를 과감하게 절감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에 있어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치 못한 필수경비와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우선 계상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정속에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는 도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신한국창조를 위한 지역적과제를 착오없이 수행하기 위한 우리의 정성과 의지를 담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통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4 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동호인 축구대회 격려사

1993년 6월 12일

참여하는 스포츠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활체육 동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서깊은 역사의 고장인 이곳 공주에서, 제 4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동호인 축구대회를 갖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대회 개최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신 충청남도 생활체육협의회 김용철 회장님과 공주시 생활체육 축구연합회 조중현 회장님, 그리고 대회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군을 대표해서 대회에 출전하신 선수단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신 내빈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8올림픽에서 체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성원은, 생활체육 활성화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 처럼, 보는 스포츠에서 참여하는 스포츠로 점차 전환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오늘 동호인 축구대회도 이러한 국민적 관심과 배경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축구는 누구나 즐길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기간 동안 국민모두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아온 인기스포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컵 축구 예선경기에 집중된 국민들의 관심과 열기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국민체력 증진과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해서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누구나가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생활체육 동호인을 확대하는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사회가 건전해지고, 건강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대회가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함께 동호인 여러분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것은 물론, 우리의 시대적 과제인 신한국창조에 대한 축구동호인 여러분의 흔쾌한 참여를 다짐하는 한마당 축제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선수단 여러분의 선전분투와 축구동호인 가족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격려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6월 14일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민족통일은 우리민족의 염원이며,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부하된 역사적인 소명입니다.

그간 민족통일협의회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역량 배양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여 온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더우기 이번에 지난날 통일운동의 발자취와 회원들의 활동상황을 더듬어 보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운동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1981년 5월 14일에 민족의 지상과업인 민족통일을 이룩하겠다는 거룩한 의지로 민족통일 협의회는 발족 되었습니다.

그동안 민족통일을 위한 지방적 실천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우리고장 통일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담아 도민앞에 내놓는다는 것은,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도민들에게 보다 큰 정성과 지혜, 무한한 인내와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상적인 통일지상주의가 아니라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다지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촉매역활을 다하면서, 내내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소중한 기록으로 남겨지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책자발간에 심혈을 기울이신 민족통일충청남도협의회 김진환 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더없는 찬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1993년 6월 15일

자랑스런 한민족 시대

존경하는 우리고장 60만 이북5도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내빈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오늘 뜻깊은 이 행사를 마련하는데 힘써 주신 이북 5도연합회 안현진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고컨대 하늘을 찢고 땅을 흔드는 파괴와 살상의 총성이 멎은지도 어느덧 40년이 지났습니다.

두고온 고향, 북녘산하를 그리며 통일을 염원해 오신 이북5도민 여러분의 아픔도 덧없는 세월속에 묻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6월이 오면, 우리는 이땅을 피로 물들였던 경쟁의 참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형제와 생이별을 하고, 아늑했던 삶의 터전을 잃은 채 생사의 고비를 헤쳐왔던 참혹한 전쟁은 그야말로 비극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국토는 초토화되고, 우리는 찌든 가난과 또다시 싸워야 했습니다.

지금도 전쟁의 상처는 1천만 이산가족의 가슴속에 한이 되어 뼈속 깊숙이 흐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6·25의 고난을 딛고 보리고개를 넘어서 선진사회로 도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북5도민 여러분께서는 맨몸으로 월남하신 후, 불굴의 의지로 생활의 터전을 일구었고, 이제는 제2의고향 우리고장에서 중추적 세력으로 자리잡고 계십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우리는 불과 한세대만에 중진국의 선두에 서면서, 선진국의 문을 두드리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북5도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지금 외곬으로 달려온 경제개발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한국병을 치유해서, 순리가 통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신한국을 창조하자는 역사적 대열에 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대, 세계속에 우뚝 선, 자랑스런 한민족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우리다같이 힘을 합쳐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이땅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구축하고 7천만 겨레가 더불어 사는, 자랑스런 통일 새한국을 건설해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이북5도민 여러분!

비록 오늘 이자리가 고향을 그리워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자리입니다만, 우리는 머지않은 장래에 꿈에도 그리운 고향땅을 밟을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통일된 조국을 위해서,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우리 모두 신한국 건설에 흔연히 참여합시다.

끝으로 다시한번 여러분의 제2 고향인, 우리 대전·충남 도민들의 진심에 찬 성원을 보내드리면서 이북5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특강

1993년 6월 15일

신한국시대의 충남도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대략 아시겠지만, 지난 3월초 우리고향 충남의 지사로 부임한지 이제 100일이 갓 넘었습니다.

조금전에 대학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서부지역 경영자 과정에 와서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받고, 제가 승락한 이유는, 우리 충남의 서부지역을 이끌고 계시고 지도적 위치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학문, 또 새로운 경영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만학의 정열을 불태우고 있는데 가서 한번 뵙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도 드리고, 제가 하는 일이 대략 어떤것인가 하는것을 설명드릴 수 있게 돼서 응락을 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각자 바쁜 직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께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래 우리 세기를 기술경쟁시대라고 합니다. 기술이 날로 새로와지고, 경영기법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적응하고 보람있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더운 날 시련을 자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제가 보기에는 장한 모습이고 슬기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도민중에 이렇게 슬기로운 분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에게 찬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또한 서해안 지역의 경영자 과정을 개설한 우리고장 명문대학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구상과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마지않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신 경영대학원 당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사로 부임한 이래 각 시군을 돌면서 시군의 현황을 설명듣고 각계 각층의 도민들을 만나뵐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의 개발현장도 많이 가 보았고, 생산현장을 찾아 다니면서 농민과 근로자, 그리고 기업인들도 많이 만나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통계청에서 발표한 91년말 GRP가 충남이 15위로서 전국에서 맨꼴찌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다니며 봐도 우리 도는 곳곳에 개발의 손길이 다른지역보다 덜 미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도정 발전에 대한 의욕이 아주 굉장히 많았습니다. 뭘 해라, 뭘 해주시요, 뭘해야 되겠다는등 지역개발을 위한 도지사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것을 느끼면서, 참으로 제가 고향발전을 위해서 해야될 일이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발전해야될 계제에, 우리 고향에 와서 도정의 책임을 맡은 것은 저로서는 큰 보람이고 또 한편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밤늦은 상아탑 속에서 뵙게 된 것을 저는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약 한시간 반가량 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학문적 차원이 아닌 우리 도정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말씀 나누는 격식을 편하게 하기위해서 저도 벗고 여러분들도 저고리를 벗고 이렇게 강의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벗으면 저도

벗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대략 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충남도의 면적은 83만 정보가 됩니다.

전국이 992만 정보이기 때문에 전국토의 8%를 우리 충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지가 32%입니다. 전국 평균으로 봐서 도별로는 23%로 전국에서 가장 경지가 많은 도입니다.

우리 충남에는 51만가구가 187만명의 인구를 구성해서 살고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업인구가 40%입니다. 전국평균 13%~14%에 비해서는 농업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범위입니다. 따라서 우리도는 아직까지 산업이 덜 분화된, 소위 전통적인 농업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공무원 수는 도와 시군을 합쳐서 15,000명입니다. 도와 시군의 전체 예산은 2조2천500억입니다.

이 예산중에 우리 도민이 부담하는, 소위 재정자립도는 겨우 40%에 불과합니다.

또, 우리충남에는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두개의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13개의 국도등 총 4,200㎞의 도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도는 99.7%가 포장돼서 금년말이면 포장이 다 끝나게 됩니다. 지방도는, 소위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는 75%가 포장이 돼 있고 시군도는 60%가 포장이 돼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되는 국도의 4차선율은 국도가 1,100㎞됩니다만 4차선율이 5.6%로써 전국평균 10.2%에 비해서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국도의 4차선율이 낮은 것은 교통소통에 큰 장애를 가져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도로망의 미발달은 우리 충남의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도로망의 확·포장, 이것이 도민들의 당면한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도는 공업발전도 저조한 편입니다. 10%~14%로 추정되고 공업 인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져 있습니다.

7백만평의 각종 공장에 약 2천 7백여개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기업 공장은 47개밖에 안됩니다. 우리 공업이 아주 미발달된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가 개발이 덜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서해안 시대를 맞이해서 충남을 개발한다고 볼 때 참으로 다행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궤변같기도 합니다만, 지역에서의 실패를 우리는 안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울산지역 개발을 둘러싸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가?

저는 지난번에 석유화학 3사가 들어와 있는 대산지역 공장을 가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울산지역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만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충남을 훌륭하게 개발해야될 의무가 여러분과 나, 이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충남인들의 공통된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충남의 현황을 대략 설명해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도정현황」이라는 유인물에 나와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현황을 가진 우리 충남을 이끌어갈 도정의 목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맨먼저 제가 중점을두고자 하는것은 새로운 공무원상의 정립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신한국창조의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는 중심부에 서 있습니다.

신한국이란 무엇입니까? 신한국이란 우리들 모르게 우리들 몸에 배어있는 한국병을 고치고,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나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그래서 더불어 사는것이 자랑스런 나라가 신한국입니다.

여기 수강생중에는 30대부터 60대까지 있다고 얘기듣고 있습니다만, 40대 후반되신 분들은, 혹 40대 초반도 생각이 나겠지요. 우리의 60년대가 얼마나 가난했느냐 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일제의 수탈, 8·15 해방,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처참하리만큼

피폐했습니다.

60년대에 들어와서 잘 살아보자는 구호 하나로 온 국민이 하나돼서 허리띠 졸라매고 물불 가리지 않고 경제 개발을 향해서 뛰어왔습니다.

드디어 우리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남들이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겨우 한세대만에 중진국 상위그룹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100년, 200년 걸려야만 하는 경제개발을 우리는 단 한세대만에 이루어 냈습니다.

세계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승천하는 네마리의 용이라는 등, 참으로 입에발린 칭찬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조그마한 성취에 만족해 있을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위 한국병을 앓게된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가 곳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부정부패를 바탕으로 해서 사치와 낭비, 한탕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우리들이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러나 옛날보다 더 불평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잘 살면서 불평은 더 커져왔습니다. 각 분야에 소위 도덕불감증이 만연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뛰고있는 것은 바로 선진국에 가겠다는 그 한가지 목표때문에 밤잠 못자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들 모르게 소위 한국병을 앓게 되면서, 너나없이 자기몫 챙기기에 급급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어느날 우리 스스로도 놀랄만큼 곤두박질 치게 됐습니다.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빠지자 우리를 칭찬하던 세계 사람들은 우리를 갖가지 말을 동원해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로 오르던 용이 떨어져서 지렁이가 됐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등의 비아냥이 우리들 가슴을 아프게했습니다.

이러한 한국병을 뇌두고서는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중동산유국들의 소득이 2만불이 넘지만 누가 선진국이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도덕적 바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선

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도덕적 바탕을 구축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으로 가기는커녕 애써 가꿔온 우리의 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이것마저 유지하기도 힘들다, 사회가 내부로부터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우리 사회의 중견층들, 나라를 사랑하는 그룹들이 수없이 외쳐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금년 2월에 새로운 문민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는 한국병을 고치고, 약으로 치료해서 안되면 도려내서라도 한국병을 고치고, 신한국을 창조하자는 역사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직접 진두지휘 하면서 맑은물, 윗물맑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정부의 노력은 참으로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신속하고 광범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상을 통해서 듣고 보셨을 터이지만,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광범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소중하게 가꿔온 우리 나라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 4,000만 모두가 제자리를 찾아서 이나라가 건전하게 발전할수 있도록 해야될 계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국병의 치유는 우리 다같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안됩니다.

공무원만 잘해서도 안되고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민간인들 이분들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4000만이 다같이 참여해서 신한국을 창조하자, 그러자면 어디서 이 한국병의 고리를 끊어야 하느냐?, 그래서 나는 그 고리를 맨먼저 끊어야할 대상이 바로 우리 공직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공무원들이 새로 태어나는 진통을 겪고 시련을 잘 겪어내므로써, 우리를 보고 있는 4000만 국민이 「자, 나도 참여하겠다」하는 자발적인 동참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맨 먼저 도정의 목표로 내세운 깨끗한 공무원상의 정립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공무원상은 뭐고, 새로운 공무원상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 저는 세가지로 나누어 우리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무원상의 첫째 대목은 깨끗한 공무원입니다.

둘째는 봉사하는 공무원입니다.

셋째는 창조하는 공무원입니다.

먼저, 깨끗한 공무원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 대부분은 박봉속에서 참으로 일요일 없이, 그리고 노는날도 없이 밤새워서 자기 맡은일을 해오는 이나라 건설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과 결탁해서 해서는 안될 일들을 해온 사람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께서는 깨끗한 정부라야 강한 정부가 된다, 강한 정부로써 민주 제도를 정립해 나가자…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스스로 나는 어느 누구한테 부터도 단돈하나도 받지 않겠다, 윗물맑기를 할테니 밑에서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가지 수범적인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윗물맑기 운동이 지금 밑으로 밑으로 전파돼서, 지금은 우리 최하위직 공무원에까지 이 운동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윗물맑기에 혼연히 동참할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깨끗한 공무원이 안된다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과감히 도태하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무원, 이것이야 말로 신한국 창조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될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15,000 충남공무원과 깨끗하게 다시 태어나기 위한 진통을 기꺼이

감내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둘째로, 깨끗하게 다시 태어난 우리 공무원들은 도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을 보다 편하고 잘 살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의 권한은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나는 우리 직원들에게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도민 어느분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그 도민에게 어떤 혜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져야할 것을 되돌려 드리는 것뿐이다… 이렇게 강조해 마지않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관청을 찾아올때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공무원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중의 하나입니다.

관청을 자주 출입하지 않는 도민들이 관청에 오면 아는 사람도 없고, 참으로 긴장한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데, 자기 형제나 친척이 있다고 하면 현관에서부터 마중나가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도민 누가 오든지 자기 형제자매를 맞이하듯 친절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공무원은 자기 직무를 수행하면서 「규제는 작고 봉사는 크게하는 공무원이 되자」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사회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규제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무슨 단속권을 준다, 규제할수 있는 근거를 내주면, 요만한 권한을 잔뜩 불려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없어져야 할 행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공무원은 규제는 작고 봉사는 크게하는 이런 공무원이 되자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새로운 공무원상으로써 강조하는것은 창조하는 공무원이되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도민 편에서서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가지고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최근들어 도민들의 욕구가 양적으로 증대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복잡하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현장에 나가서 보는 노력도 필요하고, 전문 서적을 뒤져보는 이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될 행정수요는 여러분의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 연구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그러한 창조하는 공무원이 되자… 하는 말씀을 우리 공직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므로써, 수준높은 행정 서어비스를 도민에 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세가지 새로운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저는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교육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들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 그리고 그 행태를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도계층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을 이해하시고, 잘못돼 가는 경우가 있으면 이것을 같이 고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정목표에서 둘째번 대목이 되겠습니다.

나는 우리 도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행정쇄신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새 정부 출범이래 각계 각층에서 변화와 개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행정 내부에서도 똑같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와 각 시군에는 행정에 있어서 제도와 관행, 그리고 공무원들의 행태를 원점에서 다시 분석을 해 가지고, 잘못된 내용들을 전부 바로잡아 나가자… 이것이 바로 행정쇄신의 목표입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우리 제도를 고쳐나가는 이 자세야말로 새 문민정부 하에서 우리 행정기관이 해야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와 각시군에는 지난 4월 1일부터 「행정쇄신기획단」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끼리 지금 갖가지 의견들을 짜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민원업무를 취급하면서 무엇을 고쳐야할 것이냐, 제도를 어떻게 바꾸고 법령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공무원들 행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730건의 개혁과제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105건은 우리 도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 법령을 고쳐달라 건의해 놓고 있으며, 64건을 우리 도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끼리 제도를 어떻게 바꿀것이냐 의견을 내 보니까 나오는 의견이 제한돼 있습니다

우리들 생각은 비슷비슷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도민들이 바로 관청을 상대하면서 여러가지 불편을 느꼈으니까 도민들로부터 뭘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는가를 받아 보자, 이래서 여러가지 형태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도민들의 호응이 그렇게 높지 않은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의견을 잘못내면 자기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에게 내주시는 개선의견은 전혀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우리가 제도로써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우리와 같이 고쳐나간다 하는 그런입장에서 좋은 의견을 내 주시면 그 중에서 좋은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저희는 행정쇄신에 관한한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내주시는 좋은 의견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행정쇄신은 빨리 성취됩니다. 돌아서서 불평하지 마시고,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시군이나 도에 의견을 내주시면 최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행정쇄신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는「민원1회방문 처리」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군청이나 시청을 찾아가서 여러 과를 찾아가야 해결되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합민원이라고합니다만, 민원인들이 한 과에 가서 일을보고 또 다른과에 가서 일을 보고 하기때문에 아주 불편합니다. 어느과 어느과는 좋다고 해서 다 되는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네번째로 간 과가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안됩니다 했을때 민원서류 처리를 위해 그동안 공들였던 것이 다 허사가 됩니다. 한사람이 자기 민원을 위해서 여러차례 같은 관청을 출입하는 것, 이것을 막자고 하는것이 바로「민원1회방문 처리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하느냐? 민원인이 관청에 서류를 한번만 내면 나머지는 우리 관청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협조하고 확인하고 해서 본인은 두번 다시 안와도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것 입니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관청에 오면 관청에 1회방문 접수창구가 있습니다.

그곳에다 접수를 하면 접수하는 접수증을 떼어주고, 이 서류를 누가 취급하게 된다는 것을 이름과 성명을 써줍니다. 본인은 이 접수증을 가지고 돌아가서 궁금할때 자기는 만나본 일이 없는 그 번호에다 확인을하면 이 서류가 어떻게 돌아갑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접수창구에서는 그 서류를 예를 들어서 건축과 아무개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이 서류를 문화재에 관련되느냐, 농지 정리에 관련되느냐, 산림훼손과 관련되느냐를 확인합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문제가 관련되니까 이 각과에 있는 사람들을 48시간 내에 건축과에서 부릅니다.「이런 서류가 들어왔는데 내용을 검토해서 의견을 내달라」하고 공무원끼리 희의를 합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거기서 전부 모아서 O·K하고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내용이 몇가지 문제가 있으면 허가를 못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실무자가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의 경우에는 국장급으로 구성되는 재심위원회에 올립니다. 이민원은 이러이러해서 처리가 안되어 반려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사람은 다 좋은데 이 서류 하나가 미비됐으니 내용을 좀 보완하면 되겠다 할때는 불허가 처분을 안하고 본인한테 연락을 해서「이 서류를 이렇게 보완해 오시오」하고,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처리되는 방향으로 다룹니다. 그래도 그 재심 위원회에서 안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이 서류를 그 기관의 기관장까지 올립니다. 이 서류는 아무리 검토해도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는 것, 이게 바로「민원1회방문 처리제」입니다.

저희가「민원1회방문 처리제」를 시작한 것이 이제 한달남짓 합니다. 지난 5월10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참으로 생각보다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서류가 접수되면 접수할때 서류 맨 위에 딱지가 붙습니다. 민원처리 진행기록부입니다. 이 서류가 몇월 몇일 몇시에 접수돼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됐다, 담당자가 누구이다라는 것을 씁니다. 이 서류가 처리된 과정이 기록됩니다. 이 서류가 어디가서 지체됐느냐 하는것이 다 밝혀집니다.

누가 서류를 서랍속에 넣어 놓고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는 많이 걱정을 했는데,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각군에서는 잘 하고 있는것을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봐서 아! 이것은 잘했다 하는것에 대해서 지체없이 다른군에 전파해서「어느군에서는 이렇게 잘 하고 있다」하는 것을 알려주면 그 군에서는 그걸보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지도하고 교육시키고, 또 한쪽에선 우리 감찰팀을 내보내서 잘못하는 것이 있나 없나 전부 챙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중 이 민원1회방문 처리제를 직접 겪어보신 분들은「참으로 달라지고 있구나」하는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는 민원제도 개선의 새로운 이정표로써 이 민원1회방문 처리제를 꼭 정착시킴으로써, 우리 민원인들이 서류를 들고 이방 저방 방황하는 그런 사례를 막아낼 것입니다.

우리 도정목표의 세번째 대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경제계획을 우리지방에서 수행하겠습니다. 신경제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경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통제 대신에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보장해서 기업의 생산의욕과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우리경제를 빨리 선진국에 진입시키자 하는 것이 「신경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하자마자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세워라, 대통령 임기중 5년동안 할일을 마련해라 해서 수립된 것이 신경제인데, 이 신경제 5개년계획의 1단계 계획으로 신경제 100일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신경제 100일계획」은 7가지 대목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 대목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단위에서 수행해야 할 것이 두가지입니다.

첫째가 중소기업 육성, 둘째가 지방물가의 안정입니다. 우리는 지방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각 중앙기관과 국영기업체, 그리고 각 도의 집행예산을 줄여서 1조 4천 2백억을 마련했습니다.

이돈을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기술혁신부분에 지원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께 안내해 드려서 중소기업들이 자금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번에 우리도에서 이 중소기업 활성화자금을 신청하는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돈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치더니 그 실적은 매우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담당국장·과장을 불러다가 기합을 줬습니다. 「다른지역에서 1천억 가져가면 우리도도 1천억 가져와야 될 것 아니냐, 기업인들에게 빨리 다시 안내해드려라」하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하도 많이 속아서 신청을 안합니다」라고 대답 하길래 「그러니까 몰라서 신청안내는 것은 우리책임 아니냐? 두번이고 세번이고 자꾸 알려드려라」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엔 제가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편지를 내가지고 이 기회에 꼭 신청해서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 이 자금은 예를 들어서 담보가 모자라면 신용보증 기금도 많이내서 지원해줄 준비도 돼있다라고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의 기업은 지금 뒤져있는데도 이런 자금 신청이 적더라고요.

기업에 따라서 더러 혜택을 받았겠습니다만, 시군에 취업정보센타를 두어가지고 지금까지 1,100여명을 취업 알선해준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는 구라파쪽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보내는데 우리 도비를 지원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충남의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하나 혜택이 있다고 하면 대전에 과학단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충남의 기업이 기술혁신을 하면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쪽하고 접촉을 시도해 봤더니, 그곳에서는 기술을 얼마든지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주는 기술은 너무 고급 기술이면 안된다, 우리 중소기업에서 받아들일수 있는 신용기술이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런 실용기술은 자기들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하자면 기업과 대덕연구단지를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 도비를 내서라도 하겠다 하는데도, 또 지역에 다니면서 기업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기술이 뭐뭐다」하고 알려주는 회의를 한다고 하면 안 온대요. 그것 참 알수가 없는 일이지요. 우리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 시장과 경쟁해야 되는 그런시대 아닙니까? 기업이 기술혁신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업인들의 부담없이 도에서 부담을 하고, 연구단지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등 그런 기술 연수 회의를 하겠다, 안내 회의를 하겠다 하는데도 안온다 이겁니다. 시장군수들이 오십시오 하고 막 끌다시피 해야 겨우 오고, 바쁜데 왜 사람 오라마라 하느냐하며 매우 소극적이라 하는데 이런식으로 해서는 우리 충남기업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기업을 하시는 분, 공장을 하시는 분 계시다면 이러한 기술혁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농업하시는 분도 기술농업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업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우리 충남물가가 금년 들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심하게 얘기안해도 기업하시는 분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물가안정에 협조해 주신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특별히 협조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네번째 도정목표를 말씀드리면 지역발전 사업을 적극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30여년 동안 외지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고향에 대한 애정과 향수를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도정현장에 와서 들여다보니까, 우리 충남이 개발이 덜돼서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이제 우리 충남은 더욱 좋게 개발하기 위해서 아껴놓은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역발전에 헌신코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지역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충남개발은 이제부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을 5~6가지로 나눠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해안개발사업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 서해안 개발사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26개 사업으로써 22조원이 들어가는 막대한 프로젝트 입니다. 우리 충남에만도 34개 사업에 9조 9천억이 투입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서해안지역에 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서해안 지방의 도로망 확충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당진으로부터 130㎞가 거쳐가게 돼 있습니다만, 제1

단계로서는 당진I·C, 서해대교, 서천부근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대통령께서 저희도에 오셨을때 당진~홍성에 이르는 구간을 '96년까지 마치는 제1단계 고속도로 사업에 포함시켜 줄것을 건의드렸습니다.

그뒤로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챙기고 있고, 아마도 제1단계에 당진~홍성간의 고속도로가 추진되고, 천안~홍성까지 4차선 국도가 확장되면 이 지역의 수송수요는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서해안 지역에 있는 각종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약 8~9개 노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4차선으로 확장하는데 킬로당 50억이 듭니다.

우선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123㎞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이 사업만 다돼도 4차선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서해안 지역의 국도 포장이 현실성있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아산만 ~ 당진 석문 ~ 대산공단 ~ 가로림만 ~ 태안반도 ~ 대천에 이르는 해안 관광도로, 이것이 200㎞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아산만 ~ 당진 석문지구까지는 지금 포장사업을 개시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되면 가로림만, 대산지구로 연결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만일에 해안 관광도로까지 된다고 하면 우선 서해안 지역의 교통망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개발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서해안 개발을 위해서는 용수해결이 큰 과제입니다.

지금 보령댐을 막고 있습니다.

한편에서 보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상이 70%가 넘고 있습니다.

댐을 만들기 위한 공사가 13% 진행되고 있기때문에, 당초 목표인 '95년까지는 1~2년 늦는 한이 있어도 이 공사는 꼭 되도록 해서, 서해안 지역의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물만 가지고는 공업용수까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강계통에서 하루 40만톤 취수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아산호에서 30만톤을 개발해서 서북부 지역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등등으로 해서 서해안 지역의 물이 모자라는 곳에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계획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해안개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인 공업단지는 석문 공업단지가 350만평, 장항공업단지가 1,000만평, 보령의 관창, 웅주공단과 당진 한보 철강등등, 많은 공업단지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개발을 위해 이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홍보지구 개발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한때 내년부터 중단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일전에 조부영 의원을 만났는데 이것을 농림수산부에서 다시 내년도 사업지구로 시행한다는 것으로 돼있고, 태안의 이원 간척사업, 당진의 석문 간척사업도 착실히 추진됩니다.

또한, 서해안 지역의 관광개발을 위해서 안면도 관광단지 93만평을 교통부측과 합의가 거의 이루어져서, 내년부터라도 이 사업을 착수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태안 해안국립공원 사업도 교통부측과 적극 협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발전 사업중 서해안 지역을 말씀드렸고, 두번째는 백제 문화권 개발사업입니다.

오늘 정부로부터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백제문화를 재현해서 관광 자원으로 하자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충남이 가야할 길이 농업을 일으키고 공업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하나 할일이 관광을 일으키는 일 입니다.

우리 서해안이 관광 천혜지이지만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찾아오는 사람이 제한받습니다.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레저시대가 되면, 역사 탐방을 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문화권을 재현시켜서 우리 후손에게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전수하면서, 그것을 충남의 관광자원으로 하자 하는 것이 바로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까지 약 5개 부분에 걸쳐 34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을 개발하고 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고도를 개발하는 등등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서 꼭 하나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이 공주·부여쪽에 치우쳐 있습니다만 옛날 도읍지가 그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만 돼있는 것이고, 충남은 백제 문화유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을 종전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추진합니다.

주변에 있는 문화재들이 복원돼야 중심부에 있는 백제문화권이 살아납니다. 71개 문화유적 사업중에 공주·부여쪽에 있는것은 20개 밖에 안됩니다. 이런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 개발도 충실히 해서 전체 문화 유적의 질을 지금보다 한단계 높여주고, 서해안 관광지역과 연계해서 우리 충남이 관광도가 되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에서 거기에다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해야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각 도에서 이 지정을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더욱이, 특별한 의의가 있는 것은 각 도에서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에서 올린 백제 문화권 계획이 그래도 많이 진전이 돼 있었습니다.

기본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도에서는 기본계획이 안됐지만 충남하고 같이가야 특정 지역으로 고시된다, 특정지역으로 고시되면 정부 예산을 많이 딸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우리 충남을 자꾸 붙잡고 늘어진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백제권 개발이 또 늦어지겠다 해서 도민들의 여러가지 의견도

올리고 서울에 계신 출향인사도 동원하고, 대통령에게까지도 말씀드리고 해서 대통령께서 결정했습니다.

「요것 하나떼서 먼저 해라」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5개지역은 이번에 안올라가고 우리 지역만 특정지역으로 지정 발표가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발표했기 때문에, 백제권 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충남은 균형있는 발전이 되고 충남에 놀러와서 볼게 많다, 또 해수욕도 하고 문화관광도 하고 계룡산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도록해야 관광메뉴가 많아져 사람들도 많이 온다… 이렇게 볼 때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은 상당한 충남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와함께, 우리 충남에는 도로망 확충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도로가 5만 4천㎞인데, 그중에서 충남이 4천 2백㎞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의 4천 2백㎞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국도의 4차선율이 낮다는 것 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차선 도로율이 6.5%밖에 안됩니다.

1㎞ 확장하는데 50억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전국 평균 비율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되느냐? 당장 50㎞가 있어야 전국 비율을 따라 갈 수 있습니다.

50㎞면 ㎞당 50억원씩 따라서 2천 5백억원 아닙니까? 2천 5백억원을 당장 투자해야 다른 도를 따라 갑니다. 경기도 같은데는 30%가 됩니다.

우리도의 도로사업에 있어서는 4차선 도로로 넓히는데 있어 서해안쪽에서 다른 지역보다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4차선 확장사업과 아울러서 고속도로가 빨리 건설을 해야됩니다. 내가 엊그제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을 만나 "당진에서 대전가는 고속도로가 빨리 되야합니다"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과 천안~논산 나가는 고속도로, 그리고 공주~서천 나가는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되면 두말 할것도 없습니다만, 이쪽 서북부 지역을

생각한다면 당진~대전가는 고속도로가 추진돼야만 합니다.

4차선 확장과 더불어 이것을 빨리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업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여러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겠습니다만, 현재 9백만평에 이르는 공장 면적을 2001년까지 총 2천 7백만평으로 3배를 늘리게 됩니다.

지난번 GRP 순위가 전국 15위로 발표되고 나서 우리 도민들 모두 기분이 상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이것을 '92년말로 보니까 10등이 됩니다. 전국 10등이 되는데 왜 되느냐? 대산 공업단지 3개에서 나오는 것을 따지니까 금방 5위가 뛰어버립니다. 공업화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89개 단지 2천 7백만평에 3천개의 공장을 입주시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망을 확장해서 수송애로를 타개해 주고,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금강계통, 또 대청호계통에서 용수 공급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남 공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해 공장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생각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덧붙인다면 우리 충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14개 지구에 280만평의 관광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내륙에는 유적지와 경관이 좋은 곳을 찾아서, 또 온천지대를 찾아서 관광지역을 개발하고, 서해안 990㎞에 달하는 리아스식 해안이야말로 참으로 보배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직접 가보셨겠지만 헬기타고 내려다 보면 우리 서해안은 21세기에 가면 참으로 비싼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동해의 바다는 보는 바다고 서해의 바다는 즐기는 바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때 우리 충남의 관광산업은 21세기에 갔을때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농업발전에도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어렵고 문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농업이 취약 산업인데다가 UR 협상등으로 인해서 개방이 촉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다른 분야보다는 처방이 복잡하면서도 좀처럼 해서는 약효도 안나는 이런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농업이 망하고서는 절대 선진국에 못간다, 농업은 소위 생명산업으로서 꼭 지켜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길이 없느냐? 하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런 시련을 더 좋은 기회로 승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농민들의 생산 기반을 조성시켜 줘야 합니다.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 42조를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2조를 투자하는 숫자 중에는 우리 충남이 7조 5천억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에서 볼때는 충남은 다른 도보다는 농업개발의 필요성이 더 많기 때문에 7조 5천억원에 6조 2천억원을 더 보태서 13조 7천억원을 기간 동안에 투자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2조를 투자하면 우리나라 농가가 168만호인데 한호에 2,500만원씩 투자되는 꼴이 됩니다. 13조 6천억원을 우리 도민에게 투자한다면 숫자가 너무 많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만도 우리 충남에서 농촌에 투자하는 돈이 1조 5천 4백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투자되는 돈이 농촌에 들어가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촌에 들어가는 돈을 한 파이프라인으로 모아서, 이 돈이 보다 고르게 효과적으로 들어 가도록 조정하는 소위 「종합 농정 추진체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홍성군의 박 군수님께서도 그 시범 지역을 하나 홍성군에 유치해서 해 보겠다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각 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을 한군데에 모아서

다만 몇사람이라도 완전히 자립하는 농가로 만들어 나가자 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농가에게 줄돈을 10농가한테 모아주면 10농가는 자립이 되지만 100농가를 주면 금년에도 줘야하고, 내년에도 줘야하고, 그래도 자립이 안돼요.

그러나 10농가 한테 한꺼번에 주면 그 사람은 완전히 그 방면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집중지원 할 것이냐? 농협 돈도 있고, 수협 돈도 있고, 축협 돈도 있을 것입니다. 또 농림수산부 돈도 있고 진흥청 돈도 있고, 산림청 돈도 있을 것인데, 이런 여러 기관에서 나오는 돈을 우리가 한군데에 모아서 비빔밥을 만들어서 먹는 사람을 제한시켜서 딴 사람은 참아라,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많은 돈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자립하는 농가를 많이 만들 생각을 하면서 또, 거기에 더하여 기술혁신을 위한 분야에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기술도 지원해주고 또 농어민후계자도 양성을 하고, 그리고 농민들이 생산한 제품을 보다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생산지에는 집하장, 저장고를 만들어 드리고 소비지에는 공판장과 직판장을 만들어 드리는 이런 계획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영농하는 분도 몇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첨단기술을 도입한 농민들은 편하게 그리고 돈벌면서 영농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일년에 3~4천만원 벌어들이는 사람은 상당히 있습니다.

억대가 넘는분도 꽤 있습니다.

제가 볼때 한 4~5천만원 되는 분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잘 버느냐? 첨단기술을 농업에 도입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을 만날때마다 「이렇게 어려운때 일수록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차리면 산다」는 격언을 상기시키면서,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면 우리 농업도 세계 농업과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농민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선진지를 찾고, 시찰하는 이런 방향으로

농정을 끌고갈 생각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30분하고서 대화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했는데 제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를 바라보는 충남의 미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진정 서해안시대가 됩니다. 서해안시대야말로 우리 충남이 주역이 되는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12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 대륙이 우리 충남에서 제일 가깝습니다.

아산만, 대산단지, 보령항 등등… 중국대륙으로 진출 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서 우리 충남이 신산업의 개발여지가 어느 지역보다 크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그때를 대비한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충남은 2천만의 소비자를 가지고 있는 수도권에서 한두시간 거리입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8차선~6차선으로 확장됐고, 또 전철도 들어 옵니다. 전철이 들어오면 대전이 39분대 거리 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서해안산업관광도로가 개발되고 나면 서울사람들도 동해안으로 가지 않고 서해안으로 옵니다. 동해안보다 훨씬 좋습니다.

동해안가서 뭘합니까? 바다 한 두번 바라보면 볼 것 없습니다.

우리 서해안 해수욕장의 평평한 모래밭, 여기에 한번 맛들인 사람은 또 안올 수 없습니다.

이 수도권 2천만 인구를 상대로 해서 관광도하고, 우리의 신선한 농산물을 팔아 먹을수 있는 이런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사람들이 우리 백제문화권에 와서 무어라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빨리 개발하지 마십시요, 서둘지 마십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늦어졌던 것은 어떻게 보면 기분나쁜 일이지만 길게 보았을때, 우리 충남이 보다 훌륭하게 개발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은 자연과 개발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전국제일의 농업도,

공업도 그리고 관광도로 가야된다는 것이 충남의 미래상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저의 말씀은 지금 우리 충남에서 개발하고 있는 도 발전 장기계획, 이것이 2001년까지 해당되는 계획입니다만, 그 계획과 중앙에 있는 각종 계획을 망라하고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우리도 이제 잘 살아보자 하는 일념으로 똘똘 몽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힘을 합치고 잘 살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 제일의 농업·공업·관광이 발전된 그런 이상향이 우리 충남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서없이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40 주년 반공의 날 기념행사 격려사

1993년 6월 18일

통일된 조국을 향하여

존경하는 한석복 반공청년회 지부장님을 비롯한 반공애국동지 여러분, 그리고 200만 도민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뜻깊은 반공의 날 40주년을 맞이하여 나라와 겨레를 위해 신명을 바치신, 호국 반공용사들의 거룩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자리를 빛내주신 이종수 도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최덕룡 평북 도민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날 자유수호를 위해서 젊음을 바치셨고, 지금도 우리고장 발전과 지역사회의 참 일꾼으로, 맡은바 역할을 다하고 계신 반공애국 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5,000년 민족사중에서 지난 반세기만큼 수난을 거듭하고, 급격한 변화를 체험했던 때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기쁨도 잠시일뿐, 우리는 동서냉전구도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하늘을 찢고 지축을 흔들었던 포성이 멈춘지도 어언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맨몸으로 탱크와 맞서 싸우던 역전의 용사들은 반백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우리

한반도는, 지구상에 있어 유일한 냉전의 현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155마일 전선에 걸쳐 서로를 노려보는 총구는, 전쟁의 아픔과 응어리진 한을 품은채 팽팽한 긴장의 세월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분단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언제 또다시 침략해 올지 모르는 북한의 위협속에서도, 오늘의 번영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무너지고 공산당이 역사의 골동품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피로써 지킨 자유민주주의가 인간의 존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결정적으로 우월하다는것이 입증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반공애국동지여러분, 우리는 이제 국민의 선택에 의하여 새로운 문민시대를 열었습니다.

새 문민정부는 모든것이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 신한국 창조의 과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우리 모두 보다 자유롭고 건강한 사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깨끗한 사회, 갈라진 민족이 하나가 되어 평화롭게 사는 통일조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여러분들이 피를 흘리고 생명을 던져지킨 소중한 이땅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 줄 수 있는 신한국을 건설해 나갑시다.

끝으로 장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반공의 날을 되새기면서, 우리고장 반공청년회 한석복지부장님을 비롯한 반공애국동지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격려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엑스포의 밤 행사 인사

1993년 6월 18일

미래에 대한 자신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EXPO의 밤" 행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이대희 도의회의장님을 비롯한 각계 인사 여러분께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50일 앞으로 다가온 대전 EXPO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하는 우리도민의 행사에 참석해 주신 EXPO 조직위원회 손종석 사무총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모임은 세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전 EXPO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 도민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EXPO의밤」행사가 전국 14개 시도를 순회해서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EXPO 개최 배후지역인 우리충남에서의 오늘 행사는 더욱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EXPO 개최가 우리나라의 비약적 발전은 물론, 우리지역의 발전에도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는 기본 인식아래, 개최지와 인접하고 있는 여건을 최대로 활용하여, 숙박, 교통, 문화, 관광분야에서의 역할분담차원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깨끗한 숙박시설의 제공과 안전한 교통체계의 정비와 확충, 그리고 특색있는 문화·관광 사업 추진과 함께, 질서있고 친절한 손님맞이 준비와 범도민 참여분위기 확산등 5개분야 42개사업을 추진 완료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 88년 서울올림픽으로 우리 민족의 역량을 전세계에 과시하고, 동서 화해무드 조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성공의 활기를 우리민족의 도약으로 잇지못한 뼈아픈 경험도 겪었습니다.

이번 EXPO가 88올림픽과 다른점은 승패를 겨루는 체육행사가 아니라 우리 인류가 이룩한 엄청난 첨단과학기술을 전시 비교 함으로써,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의 미래와 꿈을 심어주는 행사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전 EXPO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우리지역의 발전은 물론 우리모두가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우리 청소년층에게 꿈을 심어주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우리고장은 전통적 양반의 고장이며, 예절과 도덕적 가치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던 고장입니다.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천만명이 넘는 국내·외의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해, 이분들이 인심좋고 산천좋은 우리고장을 다시 찾아오고 싶도록, 지도층 인사 여러분께서는 200만 도민들을 지속적으로 계도해 주시고, 동참을 유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라이온스 309-E지구 총재 이·취임식 축사

1993년 6월 24일

봉사의 보람

존경하는 300-E지구 가족여러분, 황명수, 이재환, 김범명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제라이온스 309-E지구의 총재 이·취임식을 갖는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이임하시는 임석로 총재님께서는 지난 1년동안 탁월한 봉사정신과 지도력으로 라이온스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취임하시는 공균 총재님께서는 빛나는 라이온리즘 구현과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시리라는 기대의 뜻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진실된 봉사와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 그늘진 곳을 찾아 밝게 비춰주고 계신, 라이온스 가족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우리고장 라이온스는 보람찬 봉사활동과 함께, 그 어느때보다도 내실있는 발전을 거듭했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라이온스 가족 모두가 국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각장애자 돕기 모금에 라이온스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고, 농업 협동 조합과의 자매결연 추진으로 농촌

일손돕기, 농기계보내기, 우리 농산물 애용캠페인등 보람있는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년동안 우리 309-E지구에 6개의 클럽이 늘어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성실한 노력과 일관된 의지로 라이온스 정신 구현에 힘쓰신 임석노 총재님과 라이온스 가족여러분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17대 총재로 취임하시는 공균 총재께서는 지난 75년 라이온스 가족이 된 이래, 강경 라이온스 클럽을 이끌어 오셨고, 또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많은 경륜을 쌓으신 분입니다.

공균 총재께서는 이제 역사와 전통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온 라이온스 조직을 이끄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 한세대동안 경제성장에 몰두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번진 한국병을 치유함으로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더불어 사는 보람있는 신한국을 창조해 나가는 역사적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충남은 서해안시대를 맞아 희망과 풍요가 넘치는 지역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도민 모두가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아 라이온스 가족여러분의 값진 봉사활동은,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 우리 지역이 선진된 고장으로 발돋움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동안 흘리신 땀의 봉사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면서, 나라의 운명이 걸린「신한국 창조」대열에 라이온스 가족여러분의 열렬한 지지와 참여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취임하시는 임석로 총재님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오늘 새로 취임하시는 공균 총재께는 거듭 우리 모두의 기대와 환영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국제 라이온스 309-E지구의 앞날에 큰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6·25전쟁 43주년 행사 치사

1993년 6월 25일

자랑스런 신한국으로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6·25 참전용사 여러분,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한만우 회장님을 비롯한 재향군인회 가족여러분,

오늘 우리는 6·25전쟁 마흔세돌을 맞이하여 이땅의 자유수호를 위해 젊음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거룩한 희생과 애국충절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동족상잔의 처절했던 6·25 전쟁일 것입니다.

동서냉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치른 댓가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1950. 6. 25 평화롭게 잠든 미명에 북한집단의 불법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수많은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국토는 폐허가 되었으며, 사랑하는 부모형제를 생이별의 비극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난지 40년이 지났건만 그 파편은 아직도 우리의 가슴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지척인 고향 땅을 밟지 못하는 1천만 이산가족의 눈물은 지금도 뼈속으로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40년의 세월은 많은 것을 묻었습니다.

서슬퍼랬던 살기어린 눈빛도, 치밀었던 분노도, 할키고 찢긴 상처까지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6·25 전쟁을 결코 잊을수가 없습니다.

또한 비극의 역사를 잊어서도 안됩니다.

지금 세계는 동서냉전 구도가 와해되고 공산주의 종주국인 러시아에서도 자유화의 물결이 도도히 흐르고 있음에도, 유독 북한만은 남침적화야욕을 버리지 못하므로서, 우리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나 우리는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폐허와 황무지를 빌딩숲과 옥토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참한 가난을 벗고, 세계인이 놀라는 한강의 기적을 낳음으로서, 우리는 중진국의 선두에서 선진국을 향해 줄기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올림픽에서 공산권 국가들은 자유롭고 번영된 한국의 참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선택했던 자유민주주가 참으로 값진것이었음을 내외에 과시한 것입니다.

이 모두가 호국영령들과 자유용사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위에서 꽃피운 결실입니다.

호국영령들께서 꿈꾸신 우리 나라는 이땅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복된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모두가 힘과 뜻을 모아 건설하고자 하는 신한국의 참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꽃피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나라 …,

7천만 국민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통일된 조국,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힘있는 신한국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역사의 어려운 고비마다 끈질긴 생명력과 지혜를 모아서, 발전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던 우리 민족은, 그 저력을 다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자유용사와 유족여러분, 그리고 재향군인 가족여러분,

우리가 겪은 전쟁의, 비극적 체험과 쓰라린 교훈은 내일을 풍요롭게 살아가야할 전후세대들에게, 역사의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유비무한의 역사적 철칙앞에 냉정을 되찾아 나라의 내실을 다지는 일에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30년만에 문민정부를 탄생시키고 변화와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듯이, 북한에도 「자유의 바람」이 거세게 일기를 소망합니다.

6·25 마흔세돌을 맞는 오늘, 우리모두 전쟁이 주는 교훈을 되새기면서, 나라발전과 통일을 위한 결의와 각오를 더욱 새롭게 다져나갑시다.

잿더미 위에서 일어섰던 민족의 저력을 되살려, 신한국 창조의 새역사 대열에 흔연히 참여해 나갑시다.

아픈 역사를 삼키며 꿋꿋하게 살아오시는 자유용사 여러분과 유가족 여러분, 행사준비에 힘쓰신 재향군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각기관·단체장님과 시민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여청소년 수련원 개원식 격려사

1993년 6월 26일

활짝열린 미래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백제의 고도인 이곳 부여에서, 김종필 민주자유당 대표위원님을 모시고, 청소년 수련원 개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해 주신 부여군민 여러분과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먼길 마다않고 찾아주신 재경인사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도단위 청소년의 전당이 전국에서 맨처음으로 준공되기까지에는, 많은 분들께서 힘을 써 주시고 성원해 주셨습니다.

김종필 대표위원님을 비롯하신 각계의 후원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거듭 심심한 사의를 표해 드립니다.

세계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로 청소년은 그나라의 미래를 열어나갈 소중한 자원입니다.

때문에 청소년의 육성에 대한 문제는 비록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공통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교육 개혁의 차원에서, 청소년 교육을 미래산업으로 분류해 놓고, 21세기를 대비한 청소년정책의 근복적인 변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학계인사와 청소년 전문가가 참여해서 한국청소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의 수련공간을 대자연과 사회의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수련의 터전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심신을 닦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닙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유서깊은 백제고도 부여에 이렇게 훌륭한 청소년 수련시설이 마련된 것은, 정말 뜻깊고 기쁜 일입니다.

더구나 20년 숙원사업이 되어 왔던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고시가 김대표님의 노력에 힘입어 정부안으로 확정 발표된 시점에서, 오늘 청소년 수련시설의 개원은 우리가 지역발전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갖는 또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저절로 건전하게 육성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좀더 다양하고 유익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청소년 여러분의 시설이 된 이 수련원은 청소년 여러분을 위해 그 문을 활짝 열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취적 기상과 미래에 대한 꿈을 펼치는 수련의 광장으로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고장 청소년들이 이 시설을 통하여 참된 것을 배우고 올바르게 자라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자랑스런 신한국의 주역이 되어준다면, 오늘의 수련원 개원식은 더욱 빛날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고장에 이런 훌륭한 시설이 더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이고장 출신 인사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빈여러분, 청소년여러분, 그리고 도민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오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신건식 농촌진흥원장 정년퇴임식 치사

1993년 6월 28일

농촌지도 30년의 보람

오늘 우리는 한평생을 오로지 복지 농촌건설에 헌신해 오시다가, 정든 공직 사회를 떠나는 신건식 농촌진흥원님과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신원장께서 공직에 첫발을 디딘 지난 60년대 초는, 우리나라 농촌이 보릿고개의 슬픈 고통과 싸워야 하는 어렵고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농업과 농촌은 엄청난 성장과 변천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 30년은 우리 농촌지도 공무원들에게 참으로 힘든 인고의 길이요, 또한 보람의 역정이었습니다.

집안 살림도 꾸려가기 힘든 박봉에다가, 논두렁 밭두렁을 누비며 농촌지도에 지친 몸을 달랬던 수많은 나날들이…, 새삼스럽기만 하실 것입니다.

분명, 오늘날 농업기술의 발전과 성장된 농촌의 모습은, 우리 농촌을 지키고 이끌었던 농촌 진흥가족들의 땀의 결실이요,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원장님은 이러한 우리 농업의 시련기이며, 격동기였던 지난 33개 성상을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새로운 발상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특히 제가 농촌진흥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항상 새로운 사업구상과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우리나라 농촌진흥사업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힘을 주신바 있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라든가 지역특화 작목의 시험장 설치 추진을 위한 혁신적인 구상등, 지금도 저는 그 고마운 일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원장님의 노력과 남다른 업적은 충청남도 농촌진흥원이 91년도 농촌 지도사업 분야에서, 92년도는 시험 연구사업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보람을 안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앞서가는 혜안으로 큰 일을 해오신 흔적은, 우리고장 곳곳에 그림자처럼 남아서, 우리 공직자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은 「회자정리」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곁을 떠나시는 신원장님의 앞날을 위해서, 힘찬 성원의 박수를 보냅시다 ….

그리고 이 자리에는 신원장님의 부인이신 현영애 여사께서 같이 계십니다.

어려운 살림에 시달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조하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신원장님의 영예로운 이 자리는 바로 현여사님의 내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여사님께도 마음으로 부터의 따뜻한 위로와 박수를 보내 드립시다.

지금도 진흥원 시험장에는 싱그러운 여름햇살을 받은 많은 작물들이 그 푸르름을 뽐내고 있습니다.

떠나시는 신원장님, 언제나 잊지 마십시요

이곳은 신원장님의 영원한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남아있는 공직자는 모두 가족과 같은 정든 식구들입니다.

비록 공직에서 떠나시더라도, 애정을 쏟았던 우리 농촌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끝으로 제 2의 인생을 출발하시는 신원장님의 앞날에 영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19 회 대일보훈대상 시상식 축사

1993년 6월 29일

인간승리의 표상

오늘,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보훈의 달을 맞아, 열아홉번째 대일 보훈대상 시상식을 갖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모범 보훈가족으로 선정되어 대일 보훈대상을 받으신 네분들께 마음속깊은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해마다 보훈대상 제도를 마련해서 시상을 해주시는 대전일보 서춘원 사장님과, 관계 임직원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통치로 부터 해방된 지도 어느덧 반세기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발발한지 43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도 1천만 이산가족의 슬픔이 말해주고 있듯이, 전쟁의 상흔은 쉽게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생존과 자유를 지키다가 신명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전상을 입으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을 거듭한 것은 이분들의 희생 위에서 이룬 결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훈가족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펴온지도 30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그 희생과 아픈 상처에 비한다면, 우리의 관심이나 예우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오늘 수상하신 네분들은 민족의 아픔과 수난을 직접 내 아픔으로 받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꿋꿋하게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전쟁의 상처로 남다른 인고의 세월을 참고 견뎌야 했을 이 분들은 오히려 다른 보훈가족과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또 다른 봉사와 보람을 찾고 계신분들 입니다.

저는 이 분들의 빛나는 봉사와 헌신에 뜨거운 찬사를 보내면서 진심으로 부터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새로운 문민시대를 맞이한 지금, 여기 네분들의 삶은 우리 온국민이 뜻을 모아 이룩하고자 하는 신한국 창조의 과정에서 인간승리의 표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한국은 자유 민주주의가 꽃피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7천만 겨레가 하나가 되어 사는 통일된 선진조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서 꿈꾸는 나라도 이땅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숨쉬는 풍요로운 나라였을 것입니다.

신한국 건설은 바로 민족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영령들께 드릴 수 있는 값진 보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계신 네분을 통하여 나라와 지역의 밝은 미래를 봅니다.

또한 이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활과 자립의지를 키우고 계신 또 다른 보훈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훈가족들의 재활의 산실이 되어온 대일 보훈대상 제도가 더욱 선양되고 발전을 거듭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수상하신 네분의 앞날에 더 큰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제 10 회 충청남도 여성대회 격려사

1993년 6월 29일

신한국으로 열린 문

여성지도자 여러분, 오늘 녹음짙은 성하의 계절에 우리고장 각계각층의 여성지도자 여러분이 자리를 함께해서 열번째 충청남도 여성대회를 갖게된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표창을 받으신 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내일의 삶을 개척하고 있는 소녀가장 여러분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상 지녀온 습관과 고정관념을 바꾸는 일은 매우 힘든일입니다.

실제로 담배나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남편에게 그것을 억제하도록 주부들께서 애를 쓰시는 경우에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물며 사회전체의 잘못된 의식·관행과 비정상적인 일을 바로 잡는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어려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선택한 문민정부에 의해서, 변화와 개혁의 신한국창조의 역사로 우리 사회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모임의 주제를「신한국을 창조하는 새로운 여성」으로 택한것은 매우 시의에 알맞는 선택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오늘날 여성들이 차지하는 사회적 역할은 과거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회를 소리없이 떠받치고 있는 것이 우리 여성들의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꽃피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이땅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나라, 이러한 신한국은 모든 여성들에게도 그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변화와 개혁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검절약하고 씀씀이를 줄이는 일, 아이들을 건전하게 키우는 일, 그리고 우리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는 우리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야 큰 성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즉 우리 여성들이 변화와 개혁에 앞장설때, 우리모두는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성대회는 이러한 여성들의 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여성지도자 여러분의 의지요, 다짐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속에서 가정을 훌륭하게 지켜오시고 지역발전과 건강한 사회 구현에 힘써오신 여성지도자 여러분께 거듭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대회가 보다 유익하고 신한국 창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뜻깊은 대회를 마련하신 여성 단체협의회 강원자 회장님을 비롯한 여성지도자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연세유업(주) 아산공장 준공식 축사

1993년 6월 30일

자율적 경쟁시대

연세유업 이우주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재단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만섭 국회의장님, 황명수 사무총장님, 송자 연세대 총장님, 김우중 대우그룹회장님을 비롯한 내빈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세유업 아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세유업이 우리 충청남도에 터전을 잡게된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준공을 본 연세유업은 우리 지역낙농가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유가공 기업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고용증대와 낙농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4천여 농가에서 7만여두의 젖소가 사육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전국의 13%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유의 과잉생산으로 많은 낙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산이 늘어난 데도 원인이 있지만, 유제품 가공기술과 시설의 미비 그리고 다양한 상품 개발을 하지 못한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가공식품의 개발은 국민건강 증진이나 우유의 안정적 수급 측면에서도,

많은 연구와 노력이 뒤따라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연세유업 아산 공장 준공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더구나 새 문민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의 준공식은 제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변화와 개혁의 신한국 건설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새정부에서는 기업들이 자율적인,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품질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경제외적 요인을 지금 과감하게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올바른 제도개선에 큰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창업의 문을 연 연세유업도 기존의 유가공 업체들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이익금은 우리나라 사학의 명문인 연세대학교의 발전과 유가공업의 발전을 위해 활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준공을 본 연세유업이 우리나라 유제품 가공기술 향상과 낙농업발전에 큰 기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지역과 연고를 가진 기업인 만큼, 지역 낙농가들과도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여, 우리고장의 건실한 기업으로 무궁한 성장과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93년 7월

1993년 7월 1일

활력과 번영의 고장

존경하는 대천시민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충청남도의회 이대희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오늘 7월이 열리는 여름바다를 바라보면서, 대천해변제가 개최되는 해수욕장 개장식에 참석하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눈부시게 하얀 조개껍질 백사장, 잔잔한 은빛 파도, 멀리 보이는 다보도의 한가로운 풍경등……, 예로부터 천혜의 피서지로 유명한 대천 해수욕장은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멋진 추억과 낭만을 듬뿍 안겨주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동양최대의 해수욕장으로 개발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 89년부터 시작된 대천관광지 조성사업은 우선 1차로 10만평을 개발하면서, 해마다 그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1년까지 이곳 대천 해수욕장은 65만평의 방대한 면적과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천시민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반면에, 시민 여러분의 의지와 땀, 그리고 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친절한 관광안내원이 되고 쾌적한 환경을 가꾸는 주인의식을 먼저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곳 번영회를 중심으로 숙박료, 대여료, 음식료등의 각종 요금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 것은, 대천해수욕장의 명성을 위해서도, 신한국 건설을 위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번영회측과 시민여러분의 결의에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이제 21세기 서해안 시대가 열리면 중국과의 교류와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우리고장은 활력과 번영의 힘이 넘쳐날 것이며, 특히 이곳 대천의 성장과 발전에 큰 전기가 될 것입니다.

이토록 자랑스런 대천 해수욕장이 오늘의 개장식을 계기로 전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질서있고 친절한 피서지로 탈바꿈 되므로써,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이 되도록 여러분의 다짐과 노력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개장준비에 힘써주신 번영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어려운 시간을 내주신 국회 김용환 의장님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성원해 주신 대천시민 여러분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어민 신문 인터뷰

1993년 7월 2일

얼굴있는 특산품 개발

(대담 : 농어민 신문사 지방부차장 김미숙)

질문 : 농촌진흥청장이라는 농업, 농촌, 농민의 지도행정의 책임을 수행하시다가 충남도지사로서 현장도정의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지난 4개월을 보낸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 무척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부임후 시군을 비롯하여 농어촌 지역, 중소기업, 각종 개발현장등을 방문하며 각계 각층의 주민과 직접 대화하고 현장을 살펴보는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낀 점은 김영삼대통령께서 이끄시는 새정부 출범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민은 물론 각 기업체, 공공기관등에서 예산절감등의 어려움을 견디며 「신경제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고통분담에 기꺼이 참여하는 모습이며, 몰라보게 달라진 공직사회의 의식개혁등은 실로 엄청난 변화와 개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15천여 우리도 공무원들에게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가짐으로 고통을 이겨내며 깨끗한 공무원, 봉사하는 공무원, 창조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신한국을 창조하는 역사적 시점에서

고향의 도정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새로운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질문 : 평소 이동우지사님이 갖고계신 "농업관"에 대해 그리고, 우리농어업의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 농업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기간산업이라 생각합니다.

그간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며 우리의 교역규모가 세계 12~3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주곡의 자급이라는 농업기조가 뒷받침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근래에 들어 우리농업은 UR협상등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압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농수산업은 식량안보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우기 도민의 43%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경지 비율이 전체면적의 32%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도로써는 농업경제 활동이 지역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볼 때 우리도정의 주요 목표가 농어촌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도는 앞으로 전지역을 지역특성에 맞게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생산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전통적인 농업도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 우리의 농수산업과 농어촌문제는 사실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만 이를 한탄하고 낙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결코 농수산업의 장래가 어두운 것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술농업을 선도할 젊고 능력있는 정예 농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생산기반을 빠른 시일내에 정비하여 기계화 영농을 실현하는 동시에, 노동력부족현상에 대처하고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꾀할 수 있는 시설현대화를 촉진하는 한편, 유전공학을 활용한

기술혁신으로 과학영농을 이룩해 나간다면 선진농업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해 나갈 수 있을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오는 2001년까지를 목표년도로 농어촌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고 이기간에 우리도만도 13조 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농촌진흥청장 재임시절 "기술농업"을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이라는 현지 특성에 맞는 농업기술개발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도 차원의 지원책은 무엇인지요?

답변 : 농업도 이제 과거와 달리 안팎으로 엄청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농업이 이제 국제경쟁력에서 살아남고 수출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여러 분야의 첨단기술을 농업부문에 과감히 도입하는 기술농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충남의 경우, 청양의 구기자, 부여의 토마토, 논산의 딸기, 태안의 백합, 예산의 사과, 금산의 인삼들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특산농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도에서는 이러한 특산물을 세계최고의 우수농산물로 개발하고 수출전략 상품화하기 위한 지역 농업기술개발을 위하여 지난해 청양과 태안에 구기자 및 백합시험장을 개설하였으며 올해에는 부여 토마토, 논산 딸기, 예산 국화, 대전 관광농업등 4개 지역특화 시험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6개 시험장에서는 세계최고의 품질로 평가받는 수출작목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

질문 : 신정부는 "신농정 추진계획"을 통해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하여 자율적인 생산과 출하조정을 꾀하는 한편, 나아가 가공·유통부문을 혁신하려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품목별 전문조직 육성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지원계획도 덧붙여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 우리 농산물은 그간 취약한 유통구조로 가격경쟁과 품질유지면에서 크게 뒤떨어져 농가의 실질소득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었습니다.

농수산물의 과잉생산시에는 수급과 가격불안정으로 인해 타격을 받는가 하면 유통과정에서의 중간상인의 폭리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손해를 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앞으로는 농어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시장 및 유통을 주도할 수 있도록 시장대응력이 있는 품목부터 품목별 생산자 조합을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품목별 생산자조합은 지금까지 작목반 중심으로 운영하던 산발적인 유통체제를 품목이 같은 여러개의 작목반을 하나로 묶어 유통조합을 조직한 후 시장판매전략을 세우고 자재, 종자, 비료등을 일괄 구입하는등 모든 과정을 일괄처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생산비절감은 물론 농가수취가격 향상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도에서 품목별 생산자조합 결성이 가능한 농산물은 전국 생산량의 50%가 넘는 구기자를 비롯, 30%선을 약간 웃도는 마늘과 표고, 그리고 지역 특산품으로 밤, 사과, 토마토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는 올해 우선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후에 내년부터 오는 95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품목별조합에 집배장 설치등 산지유통시설과 포장, 판촉활동을 적극 지원하는등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충남농업발전을 위한 도 자체적인 중요시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 네. 간략하게 세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종합추진협의체의 구성·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에는 행정기관을 비롯, 농·수·축협등 여러기관에서 많은 지원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상호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미흡하여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사사업의 중복지원 또는 산발·다원적인 지원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는가 하면, 지원기준이나 지도기법이 서로 달라 혼란이 야기되는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에서는 도·군·읍면단위로 농정관련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농정종합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기관단위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사전에 협의·조정 및 합동지원키로 하고 지난달에 1차 회의를 갖고 상호의견을 교환한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연구해서 농정시책의 실효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첨단기술농업생산단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도내에는 수출유망품목의 자생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의 자생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22억을 들여 15개소에 성장 작목단지를 도자체적으로 육성하면서 정부지원의 첨단기술 농업생산단지와 연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135억원을 투자하여 태안의 화훼단지와 예산의 사과, 부여의 토마토 단지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도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성장유망단지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대상」제 운영입니다.

지금 농어촌지역은 국내외적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농정현실로 매우 침체되어 있으며, 또한 많은 농어민이 농수산업의 장래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는 농어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수 있도록 과거 70년대 정부주관으로 실시하던 「봉황대기」수준에 버금가는 「충남농어민발전대상」을 제정, 올해부터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이 대상은 작목별로 독농가는 개별상을, 농어민단체와 작목반은 단체상을 주게되며 수출전략작목개발에 우선하여 시상하게 됩니다.

질문 : 충남도는 서산의 땅콩가공, 당진의 꽈리고추등 지역특화산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97년까지 5개년 동안의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요.

답변 : 올해부터 오는 97년까지 군별로 지역특성이 큰 「얼굴있는 특산품」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해에 3개군씩 5년간 모두 15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군당 2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1군 1명품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주로 농산품의 포장, 상품개발, 시설현대화, 직·공판장 설치사업등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중점투자하게 됩니다.

사업첫해인 올해는 보령군의 「딸기잼」 가공, 서산군의 땅콩가공, 당진군의 꽈리고추재배단지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농어촌지역의 경제회생과 활력증대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질문 : 신농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수한 영농인력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충남도의 영농인력 육성시책을 설명해 주십시요.

답변 : 현재 우리도내에서는 전체인구의 약 43%에 달하는 74만 6천여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력동원이 가능한 20세 이상 59세 까지의 인력은 농업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6만 4천여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농업인구의 감소현상이 비단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만, 10년전에 비하면 연평균 3.9%씩 줄어든 것으로써 만약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10년후에 우리도의 농가인구는 50만명에도 못미치고 그나마 노동이 가능한 인력은 20여만명을 약간 웃도는 현상이 초래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볼때 앞으로 우리농수산업이 고도의 기술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기술과 경영기법을 수용할수 있는 젊고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는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도는 농어민후계자의 병역특례, 학사 개척농육성등 일련의 중앙정부계획을 착실히 뒷받침하면서, 올해 신규로 선정된 1,310명을 비롯, 모두 7천 6백여명의 농어민후계자를 대상으로 각종지원을 강화하고 예비후계자와 농촌지도자의 선도 농업화에 주력하는 한편, 성장단계별로 경영진단을 지도하여 명실공히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핵심향토일꾼으로 양성 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이와함께 모든 농업인의 사랑방 구실을 하고 있는 도내 70여개소에 설치된 「농어민의 집」운영을 활성화하여 농어민 누구나가 스스럼없이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와 현장교육을 확대하여 첨단기술을 직접 체득할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 : 충남도의 농림수산물 수출전략 품목의 육성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 세계 농산물의 국내시장 공략에맞서 우리도 세계시장에서 이에 적극 대응할수 있는 주산작목의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사과, 배, 선인장, 딸기, 백합, 팬지, 관상조류등은 국제경쟁력이 있는 수출유망 전략작목입니다.

따라서 우리도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15개작목의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21개소를 조성하고, 712개 원예작물 생산단지를 육성하는등, 대외수출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내 41개 지역 특화사업지구를 대상으로 27억원을 들여 시설현대화, 품질고급화, 생력협업경영, 생산가공사업을 펼치는 한편, 해외수출 전진기지에 상설전시판매장을 설치하여 우리 상품의 판촉홍보는 물론, 수출·입 동향파악과 해외시장 정보 수집·제공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우리도는 지난해 8월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상설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해외시장판로 개척에나서 지금까지 모두 343만불(약 28억원상담)에 달하는 수출상담실적을 올린바 있으며 올 가을에는 LA현지에서 5일간 일정으로 「충남의 날」행사를 개최, 우리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질문 : 농어민들은 확실한 예산상의 뒷받침, 행정조직내의 구조개선사업 전담부서의 부재등 신농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여러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는 신농정 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별 : 신농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재원이 필요한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당초 오는 2001년까지 42조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3-4년정도 앞당겨 조기실현 한다는 방침아래 계획의 일부를 수정하다보니, 추가재원 조달에 따른 문제등을 제기하며 일부 걱정하는 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농업발전이 보장되는 부문에 집중투자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중앙부처간에 적절한 협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염려가 된다면 신농정 추진을 정부만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농어민이 등한시 할때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신농정계획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 못지않게 농어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국민 모두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을때 목표성취가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는 농업의 구조개선을 위해 최대한 힘쓰고 우리농민들은 보다 발전된 기술을 과감히 도입해서, 부지런히 노력해 값싸고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해 주신다면, 우리농산물은 국민들이 애용할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농민들의 슬기로운 대응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질문 : 휴일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많이 돌아보아 "발로 뛰는 도백"으로 도내 농어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로 돌아본 현장은 어디이고 보고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십시요.

답변 :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농어민이 땀흘리며 일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은 물론, 때로는 중장비의 굉음이 요란한 공사현장, 그리고 중소기업, 행정기관, 각종 행사장등 도민이 있는 곳이면 어느곳이던 마다하지 않고, 찾아다니며 많은 이야기도 듣고 직접 보고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열심히 연구하면서 새기술을 과감히 받아들이고, 부지런히 일하는 농민은 도시 봉급생활자 보다 훨씬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여유있는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었으며, 이러한 모범농민의 모습에서 우리농업도 희망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되었습니다.

분명한것은 가는곳마다 굳은 의지와 확고한 신념으로 맡은 일에 모두가 충실했으며 이러한 도민의 열정어린 마음을 볼때 충남의 미래가 매우 밝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질문 : 끝으로 충남도내 농어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 그동안 우리의 농수산업과 농어촌의 발전은 경제발전과정에서 타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둔화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여러가지의 국내외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우리의 농업현상이 매우 어렵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농수산업과 농어민, 그리고 농어촌의 역활과 기능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농어촌이 우리모두의 마음의 고향이요, 농수산업이 국가산업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적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농어촌을 되살리기 위한 구조개선대책에 모든 노력을 기우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2천년대에는 우리의 농수산업도 자주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의 농어촌은 떠나는 농어촌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탈바꿈하게 될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경제로 도약하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모두 고통을 함께 나누며 새로운 변화에 적극 대응할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우리가 계획한 모든일이 성취되도록 해야만 할것입니다.

충남농업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농어민 여러분의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7월 월례조회 훈시

1993년 7월 5일

신한국창조의 중단없는 추진

친애하는 충청남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성하의 계절, 7월을 맞았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맞는 7월은 금년도의 하반기를 여는 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7월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신한국」창조를 표방한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국정 지표에 따라, 4개월동안 우리나라는 큰 변화와 개혁을 이룩해 왔습니다.

먼저, 깨끗한 정부구현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윗물맑기 운동」에 솔선수범하면서 이 운동은 각계로 확산되어 왔습니다.

우리 공직사회는, 전에 없는 진통을 겪으면서 다시 태어나는 자기혁신운동을 활발하게 벌임으로써, 이제는 깨끗한 정부의 구현이라는 목표가 상당히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튼튼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 또한 꾸준히 추진되어 왔습니다.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대통령의 통치이념에 따라 지난 6월말까지 「신경제 100일계획」을 착실히 추진해서, 그동안 침체국면에 있던 경제가 이제 좋은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2일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신경제 5개년계획」에 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1998년 1인당 GNP 14,000$을 바라보는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한 계획,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 바로 「신경제 5개년계획」이라고 정의하시면서, 각 부처에서는 일치단결해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국민 각계각층에 대해서 각자 자기들이 해야될 일이 무엇이냐를 환기시키면서 온 국민의 역할분담과 고통분담을 호소 하셨습니다.

이러한 「신경제」계획의 꾸준한 추진으로, 또 부정부패의 척결에 의한 사회개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는 지난 상반기동안 큰변화와 개혁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변화와 개혁에 대해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90% 이상의 국민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도에서는 1만 5천여 공무원들이 뜻을 모아 변화와 개혁에 동참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대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들은 깨끗한 공무원이 되고자 「윗물맑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자성과 각종 교육을 통한 자기혁신으로 인해, 큰 희생없이 우리 공직사회를 맑고 투명하게 정착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우리 1만 5천여 공직자에 대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충남공무원들은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고자 크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4월 1일부터 발족한 「행정쇄신기획단」을 통해서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되어 왔던 제도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여러가지 개혁조치들을 우리 스스로 찾아내는 자정노력을 해왔습니다.

참으로 그동안 많은 성과를 올려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5월 10일부터 추진한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이제는 상당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내무장관께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정착이야말로, 내무행정의 선진화와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할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충남공무원들은 사명감과 보람을 가지고「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착근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약 2,300건이 접수되어 1,900여건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우리들이「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시행할 때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공직자들이 이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의 정착에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이제는 상당한 자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정착으로 인해서 우리 내무행정의 새로운 이정표가 수립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같이 자랑스럽게 여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충남 공무원들은「창조하는 공무원」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사정분위기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과 책임회피등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우려섞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보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극히 일부의 잘못된 사람을 전체인양 보도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우리 충남공무원들은 도민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정쇄신 과제라든가「민원1회 방문처리제」등을 혁신적이고 자율적으로 창안하여 적극추진해 옴으로써, 전국적으로 우리 충남이 이분야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던 물가를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지역 중소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 보이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그동안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밖에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고시 및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위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중앙정부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와의 협력동반 관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고, 예년에 없이 조용한 가운데 영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을지연습도 알차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충남공무원들은 고통을 분담하면서 「신한국」창조의 역사적 과업을 성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올해의 하반기를 열어 가는 7월을 맞았습니다.

이 7월에 꼭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름철마다 장마와 태풍이 몰아닥쳐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매년 되풀이 하여 겪어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한국을 창조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대형사고가 나는 것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민적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대로 지난 4월에는 국무총리 훈령이 내려왔고, 내무장관의 지휘지시도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재해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형식적이 아니라 내실있게 점검·정비해서 수해의 위험을 사전에 막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방자재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재해방재 체제, 인원동원체제도 정비하는등 재해 사전대비와 사후관리를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0여일 앞으로 닥친 대전EXPO 지원 업무를 충실히 마무리 하여야 하겠습니다.

국제박람회 제도가 생긴지가 이제 140년이 되었습니다.

1883년에 우리나라가 시카고 국제박람회에 처음 참가한 이래, 100년만에 개발도상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대전에서 EXPO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전EXPO야말로 과학과 문화와 경제가 어우러진 국제올림픽행사라고 할 수 있읍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과학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흥되고 나라의 위상을 세계에 떨치게 됩니다.

우리 대전EXPO에는 국내외 천만명 이상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도는 대전EXPO의 배후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도가 해야될 일이 많이 있어 요즈음 관계 공무원들이 각 분야별로 쉬지 않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충남으로 인해서 대전EXPO가 한껏 더 빛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마무리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의하면 잘 된다고 했는데, 직접 나가보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출장가는 직원들에게 견문보고제를 잘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EXPO기간 동안 출장을 다니면서 꼭 점검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 소관이든 아니든 이것은 꼭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꽃길조성은 잘되고 있는것 같은데, 중간중간 이빨빠진 것처럼 된 곳에는 꼭 보식을 해야합니다.

그런 곳이 있으면 찾아서 그 지역책임자에게 알려주십시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중변소, 기타 공중이용시설 등을 잘 점검해 주십시요.

지나다가 휴게소, 하계휴양지등에 꼭 들러서 화장실등 잘못된 곳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요.

화장실이 깨끗치 못한 것은 선진국민이 볼때 참으로 놀랠 일입니다.

이번 EXPO를 통해서 우리 공중변소 하나만이라도 깨끗하게 관리하는 풍토가 정

착된다면 우리 충남의 문화수준이 한껏 높아 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름철을 맞아 휴양지의 관리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충남에 15개 해수욕장이 개장되었습니다.

말로는 청결, 질서, 친절운동을 벌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가 가지고 있는 15개의 해수욕장, 그리고 아름다운 산하등은 참으로 자랑할만 합니다.

이 자랑거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하게 친절하고 청결하며 질서있는 관광객맞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충남이 되도록 우리들이 관계자들을 독려하고 관계업소를 지도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광지, 특히,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유도선의 안전점검을 해 주시고, 물가에 있는 유원지에서의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 훈련도 강화해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수없이 강조해 왔습니다만「신한국」창조노력을 중단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말씀을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난 7.2 대통령 특별회담에서 대통령께서는,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정부패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 하시면서, 임기가 끝날때까지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깨끗한 공무원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어야하며 우리 충남 공직자들 중에는 신한국 창조의 대열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스스로도 노력하고 주위동료를 일깨워주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은 참봉사의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민원1회 반문처리제」등 대민봉사의 내실화와 그 성과를 제고 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들, 특히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들에게 보다 질높은 민원행정을 펼 수 있느냐 하는 아이디어 개발에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절 365일 운동」의 실천을 생활화하여,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우리 충남도가 참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각자 자기가 맡은 분야의 담당업무를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도민들을 보다 편하고, 보다 잘살게 하는데 있어서 우리 충남 공무원들이 참으로 큰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이달 중에는 지난 상반기 동안 추진한 우리 쇄신과제에 대해서 결산 보고회를 갖고자 합니다.

결산보고 내용을 토대로해서 하반기에도 우리 충남 행정의 수준이 한단계 높게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우선 자기 건강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한 7월 중순부터 여름휴가가 시작되는데 지금부터 좋은 계획을 세워서 올 여름 휴가가 뜻있는 휴가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름휴가 기간에는 상반기동안 긴장한 가운데 일하느라고 쌓였던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하반기에 보다 열심히 일하기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는 방향으로 여름휴가를 건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여름, 여러분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1993년 7월 9일

도의사회 구현

새마을지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뜻깊은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의 활성화 다짐대회에 나와서 격려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 신한국 창조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정재택 회장님을 비롯한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 '93대전EXPO를 대비해서 도역공원화사업에 힘써주시는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가 5천년 민족의 역사를 반전시키고, 처참했던 가난의 허물을 벗어버린 계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운동이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잘 살아보자는 일념으로, 지역사회와 나라의 발전을 위해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최선을 다해왔던 새마을 지도자들의 헌신적 노력과 국민적 화합은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시대가 변한 요즘에 와서 이러한 새마을 운동의 가치도, 그 열기도 변모된 것은

사실이지만,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 만큼은 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비록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최근 새마을운동은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국민정신 함양을 위한 「국민의식개혁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영속적인 국민운동으로 거듭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충절의 고장임을 일깨우는 도의정신 확산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지난 80년부터 도의 새마을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옴으로써, 뿌리깊은 전통예절을 선양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고장에서는 범죄없는마을 60개 마을이 선정되어 정신적인 측면에서 전국에서도 제일 앞서가는 고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내가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을 나누는 도의 사회를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의 땀과 노력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족통합과 번영의 신한국 시대를 열게될 대망의 2000년대를 앞두고 새마을 가족들의 역할 또한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맞추어 전국 최초로 새마을운동의 가속화와 고향의 발전을 다짐하는 오늘 대회는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 합니다.

나는, 지도자여러분께서, 진정한 국민운동단체로서의 나아갈 방향과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난날의 성장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변화와 개혁의 최선두 대열에 앞장서는 자랑스런 모습을 지켜볼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한달남은 대전EXPO에 대비한 도역공원화사업을 비롯하여 전통적인 충효와 예절, 그리고 선진문화 고장으로서의 면모를 전세계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자긍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도의 시범마을로 선정되어 숙원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는 마을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알차고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 거듭 태어나는 새마을 가족이 될것을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7월 12일

현장감 있는 발전계획 마련

편히 앉으십시요.

무더위 속에서 을지연습 한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을지연습에 여러분이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개선 과제를 도출해 낸것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방위국장과 천안시장 그리고 금산군수가 말씀하신것 처럼, 금년 을지연습은 6.25가 있었던 6월달에 실시됐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문민정부 출범이후 최초로 국민의 안보의식을 일깨우고 내부의 적을 경계하면서, 단호한 의지로 국가 안보태세를 확립하려는 이런 연습이였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흔히 얘기할때 훈련을 통해서 흘린 땀만큼 실제 전쟁에서 피를 덜 흘린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을지연습을 하는것은 실제상황에 처했을때 능률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습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금년에는 각 시군이 연습에 참여했고 지금 천안시장과 금산군수 말씀대로 시군에서 우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현장감 있는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발굴해 냈습

니다.

나는 특히 천안시와 금산군에서 제시한 몇가지 개선과제들은, 참으로 현장감 있는 과제로써 우리 충무계획에 이것을 보완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훈련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귀한 시간을 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 훈련이 단순한 연례행사로 그칠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라도 개선해 나가는 뜻있는 연습이 되자, 이런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상했던대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고 또 좋은 개선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민방위계획과 충무계획 그것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상호 연계할 필요성등 많은 문제가 제시됐습니다.

충무계획을 우선 이번에 제시된 문제라도 최대한 보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산업시설 보호대책, 주요도로 및 교량 복구대책, 특히 천안시의 경우 송유관 및 저유소 사고 대책, 또 이동 유입되는 주민 소산 및 수용대책등은, 실감나는 지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왕 이런 강평까지 갖게 되었으니까 여기 제시된 내용들이 하나하나 착실히 보완되어서, 내년도 을지연습에는 훨씬 더 질높은 연습이 되고 충무계획도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보완 발전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계획을 보완 발전하는데 있어서는 몇 사람의 창의력만 가지고만 안됩니다.

여기계신 우리 간부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이 문제 하나 만이라도 고쳐 나간다고 하면, 우리 도 본청과 각 시군에서 많은 사람이 참여했던 훈련의 의의가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계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제 말을 마칩니다.

아울러서 마침 우리 도 본청의 계장급이상 간부들이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칠월 중순부터 여름휴가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휴가는 철저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휴가는 건전하게 보냄으로써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하고 충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사의 눈치를 볼것 없이 휴가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반영이 되면, 전원 휴가를 즐기시되 휴가 내용이 건전하게 집행되도록 해 주시고, 이달들어서 여러분들이 해야할 일들은 휴가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소방학교 청사준공 및 개교행사 치사

1993년 7월 20일

소방행정의 질적향상

오늘 충청남도 소방학교가 지방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고장에 새청사를 마련하고, 개교행사를 갖게된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방학교 개교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하신 시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단 여러분, 이종수 도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화재예방 활동과 소방행정발전에 헌신해온 소방공무원 가족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법이 개정되고 소방행정이 도단위의 광역 소방행정 체제로 전환된지도 벌써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충청남도 소방학교가 개교함으로써, 이제 우리 고장은 선진 소방행정 구현을 위한 소방정예요원을 자체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한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 완벽한 방재 기능을 수행하고, 봉사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것입니다.

국민을 재해로 부터 보호하는 일이야 말로 인간의 가장 존귀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 소방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고 봉사자세를 확립함으로서, 우리 스스로 지역의 소방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충남 소방학교의 개교는 뜻깊은 일입니다.

소방공무원 가족여러분,

시대는 우리에게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가족도 과거의 형태와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도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민들이 재해위험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믿음직스럽고 신뢰받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역 소방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시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님들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만, 일선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완벽한 방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모두의 다짐과 창조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충남 소방학교 준공 및 개교가 우리 고장 소방행정이 질적인 측면에서 더욱 발전되고, 도민들에 대한 봉사행정 체제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어려움속에서 충남소방학교가 준공되기 까지 여러모로 헌신해 오신 관계관 여러분과 일선에서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수행해온 소방공무원 가족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남소방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93 충청남도 4H 야영교육 치사

1993년 7월 21일

타오르는 의지와 신념

친애하는 4H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충청의 서기어린 계룡산 아래에서 야영교육을 시작하는 여러분과 같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날 우리 농촌이 처한 여러가지 어려움을 해치고, 우리의 뿌리인 농촌을 지키고 있는 4H 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4H가족들을 사랑해 주시고 후원을 해주시는 농촌지도자, 4H 선배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4H 운동이 우리 농촌에 뿌리를 내린지도 반세기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덕·노·체의 4H 이념과 함께, 4H 가족들은 가난했던 우리 농촌의 발전을 선도해 왔던 등불이었습니다.

그것이 농촌부흥운동으로, 다시 새마을 운동으로, 또 녹색혁명으로 이어져서, 우리 농촌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업은 국제화시대를 맞아, 구조적인 요인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에서 다른 나라에 비하여 뒤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농업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

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있는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도, 이러한 과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농정 5개년 계획」은 이러한 우리의 꿈과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을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배려로 98년까지로 앞당겨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농업을 첨단 기술농업, 고품질농업, 수출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보다 더 큰 인내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땀흘리지 않고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나는, 오늘의 위기는 우리에게 오히려 새로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선진 복지농촌의 꿈은 결코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4H 가족 여러분의 가슴속에 타오르고 있는 의지와 신념속에서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러분은 내일의 풍요한 농촌을 이끌어갈 주역들 입니다.

농촌에서 태어난 나는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저는, 도정의 책임자로서 우리 충남 농촌을 선진된 농촌으로 바꾸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마음먹기 따라서는 풍요로운 복지농촌이 여러분의 세대에서 반드시 이루어 질 것 입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뜻깊은 2박3일간의 야영교육에서 우리 4H 가족들이 반드시 풍요로운 복지 농촌을 이룰 수 있다는 의지를 다져 나갑시다.

끝으로, 박종우 회장을 비롯한 4H 가족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제 말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지역사회개발협회 대전·충남 창립총회 격려사

1993년 7월 24일

지역역량 결집의 구심체

오늘 한국지역사회개발협회 대전·충남지부 창립 총회의 자리에 나와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전·충남지역의 각급 기관·단체장님과 교수님, 그리고 각계인사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기 까지 정성어린 노력을 기울여주신 이지영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고장은 일찌기 선사문명이 정착되었던 여명의 삶터입니다.

그리고 찬연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의 얼이 숨쉬는 곳이기에, 이러한 유산과 전통을 면면히 이어온 충청인이라는 명예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러한 우리 고장이 역사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지역개발에 대한 소망과 의욕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때에, 금년에는 대전EXPO가 개최되고,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이 고시되는 등, 우리고장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랑스런 우리 고장의 지역사회개발에 모두가 동반자라는 인식속에서, 함께 참여하고 땀을 흘리는 슬기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과 지역간의 합의를 도출해 내야하고, 개발에 따른 환경보존의 문제, 개발이익을 분배하는 문제 등,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지역사회개발협회는 이러한 애로요인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극복하는 대안을 창출하므로서, 우리고장이 보다 활기차고 희망이 샘솟는 터전이 되도록, 지역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체가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고장,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역주민의 발전의지를 일깨우는 선도자로서, 때로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지혜로운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2000년대, 지역발전의 노력을 역동적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충남도정의 반려자로서, 애정어린 편달과 성원을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오늘의 창립총회를 다시한번 축하드리면서, 이지영 회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지역사회개발협회가 나날이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7회 전국대학생 갱생보호위원 연합수련회 축사

1993년 7월 27일

건강한 사회의 敵은 무관심

전국 대학생 갱생보호위원 여러분, 햇빛 눈부시고 녹음짙은 성하의 계절입니다.

이 젊은 계절에 제7회 전국 대학생 갱생보호위원 연합수련회가 산자수려한 이곳 서대산에서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학업에 정진하면서, 대학내 『봉사동아리』를 통해서, 청소년 선도와 보호에 힘써온 전국 대학생 갱생보호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마음속 깊은 위로와 함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황상구 검사장님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청소년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각국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건전하게 자라나야할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사회는 자꾸 이기적으로 변하고, 범죄의 유혹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들어 청소년의 범죄가 갈수록 늘어 나면서, 우리의 자녀교육과 청소년 선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케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들의 교화와 선도에 힘쓰고 있는 여러분들의 활동은 매우

뜻깊고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갱생보호사업은 모든 사람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며, 질서있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겠다는 숭고한 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은,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청소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동일세대란 점에서 그 효과는 매우 큰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건강한 사회의 가장 큰 적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키워온 무관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범법행위, 탈선을 하고 있는 비행 청소년들도, 우리 무관심과 잘못된 양심속에서 잉태한 것들입니다.

이웃에 대해 무관심하고 스스로 양심을 숨기고 있을때, 이 사회는 병든 사회가 될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지금도 이 사회에 적응 하기를 거부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견딜수 없는 것은 스스로의 죄의식보다 오히려 따뜻하게 대해 주지 않는 이웃들의 냉랭한 눈초리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감싸줄 수 있고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정을 줄수 있다면, 그들은 우리가 사는 사회의 틀안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이룬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선진복지 사회대열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절실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합수련회가 이땅에 법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사랑과 정이 넘치는 건강한 사회를 이루겠다는 다짐의 모임이 되고, 아울러 학창시절의 소중한 보람과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농기계 보내기 운동 참여 당부 서한

1993년 7월 28일

농촌의 인력부족 해소

녹음짙은 성하의 계절입니다.

평소 도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농촌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게 발전하기 위한 전환기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농민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왔고, 귀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늘 살펴주시고 보내주신 따뜻한 온정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우리 농촌은 인력부족 해소와 농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농촌발전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뜻하시는 모든일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3년 8월

8월 월례조회 훈시

1993년 8월 1일

자기몫을 다하자

여러분!

지난 7월초에 이자리에서 뵙고 이제 한달만인데, 7월 한달을 어떻게 보냈는지 금방 지나갔습니다.

7월의 무더위와 장마속에서도 모두 건강히 지내시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7월 한달동안 기후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웠고, 냉방장치도 잘안된 근무여건에서도 열심히 일해주신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열심히하여 으뜸도정상, 모범공무원상등 각종 표창을 받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방금전에 신한국인상을 받으신 두분 도민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엉겁결에 지나가다시피 했던 지난 7월 한달동안 우리나라와 우리 충청남도에는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지난 7월 10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문제와 한반도의 안보문제, 한미통상 협력문제등 당면 현안사항들이 거론된 가운데,

특히 7월 11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판문점 돌아오지않는 다리에 가서 북한에게 핵개발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하는 늠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한편, 우리는 여칠전에 UN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서 우리 상록수 부대가 소말리아에 파견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국위가 한껏 세계를 향해서 떨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지난 6월말까지 추진된 「신경제 100일계획」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회생국면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현대 노사분규로 인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입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함께 크게 놀랐던 지난 7월 26일 아시아나항공사 여객기의 추락사고로 66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참상을 보면서 인재의 무서움, 예방행정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께 되었습니다.

7월의 긴 장마와 두차례의 태풍을 큰 피해없이 잘 넘기고, 8월을 맞게 되어서 크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도정면에서는, 도정에 대한 상반기 업무결산보고회를 가짐으로써 지난 6월동안 우리들이 추진해온 각종 시책에 대한 자아비판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개선대안 검토에 좋은 계기를 마련했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두차례에 걸쳐 조사단이 우리도를 다녀갔습니다마는, 관계자 여러분께서 잘 대응해주셔서 큰 물의없이 일을 마쳤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한달동안 여러분께서는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많은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모두가 계절적으로나 여러가지 주변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각자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준 지난 7월 한달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정부 출범이후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 깨끗한 공무원, 봉사하는 공무원, 그리고 창조하는 공무원이 되고자 자기

혁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온 결과, 우리 공직사회가 크게 발전되고 변모됨으로써 「신한국」 창조의 대열에 우리가 당당히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일부에서는 새정부 출범후 5개월째를 맞으면서 "공직사회가 느슨해졌다. 무사안일의 풍조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다같이 항상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개혁의지를 가다듬어, 국정쇄신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신한국」 창조의 역사적 과업 수행에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 7월 14일 각부처 공보관과의 조찬석상에서 대통령께서는 "우리 나라의 운명이 공무원에게 달려 있으며, 공무원사회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설 수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변함없는 개혁추진을 당부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우리 공무원들이 「신한국」 창조의 어려운 과정에서 만일 보신주의나 무사안일에 빠지게 된다면 이것은 참으로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공무원 모두가 참으로 깨끗해졌고, 청렴한 가운데 자기가 맡은분야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있다는 것을 기회가 있을때마다 이야기 합니다마는 다시한번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 몫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거대한 조직을 이끌고 가는데 있어서,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 몫을 제대로 하면 우리 직장의 업무추진 능력은 굉장한 탄력을 갖게 되고 모든 직원들이 자기몫을 추진하는 데에 전력한다면, 우리 직장 분위기는 아주 창조적인 방향으로 발전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자기몫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불평이 더 많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질좋게 발전시키느냐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더 좋은 대안을 창출하는데 머리를 쓰다보면 남 말할 사이, 불평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몫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저런 말을 꾸며내거나, 남을 헐뜯거나 기관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말을 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몇몇사람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서 기관 전체의 품위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다같이 막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이나 유관기관으로부터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에 빠지고 있다. 책임회피에 급급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억울한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 몇사람 때문에 염천하에서 어려운 근무환경과 조건을 극복하여 일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같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무사안일, 요령주의가 잠깐은 자기에게 편할지 모르지만 본인에게 손해가 되고 기관의 전체 분위기를 흐리게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기 앞길은 자기가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 사람도 자기 맡은 일에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도 노력을 하고, 이웃 동료들에게도 주위를 환기시키는 가운데, 우리 충남 모든 기관들이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맡은 바 도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것을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8월을 맞아, 이달 동안에 우리가 꼭 추진해야할 사항 몇가지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대전EXPO가 눈앞에 닥쳤습니다.

어제 예행연습도 했고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리 충남에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해야될 일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도 어제 가까운 근교 몇군데를 돌아봤습니다마는 이제 「질서·친절·청결」의 모토아래 손님맞이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실제로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해서 우리 다같이 뜻을 모아서 친절하고 성숙된 도민의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8월 5일에는 천안에서 「길놀이」행사가 벌어집니다. 첫번째 개최되는 이 행사가 내실있고 성대하게 추진됨으로써, 우리 도민들의 참여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데 이바지 되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월 24일은 우리도와 자매결연을 한 일본의 「구마모토의 날」이 있습니다.

이행사를 잘 치루어서 자매결연이 실효를 거두고, 일본의 방문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월 15일에는 「충남의 날」행사가 있습니다.

또 10월에는 백제문화제등 여러가지 우리 지방의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충남으로 인해서 엑스포가 더욱 빛났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마지막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8월에는 각종 전염병이 창궐할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마는 전염병 예방에 각별히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EXPO 기간중에 전염병이 번진다고 하면 우리의 수치요, EXPO행사를 먹칠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방주사라든가 하수구, 축사등 각종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등 우리 보건공무원의 비상근무 태세를 한층 강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마가 끝났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마는, 엊그제 갑자기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렸고, 현재도 우리 충남 남부쪽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항상 큰 사고가 나는것을 보면 우리들의 방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이달에는 또 태풍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그동안 준비태세를 다시한번 점검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해가 최소화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에는 우리 지역이 많은 손님을 맞게 되는데 특히 피서지가 많은 우리도에서는 피서지의 행락질서 확립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7월초에 개장된 서해안의 해수욕장들이 날씨관계로 불경기를 겪고 있습니다.

8월들어서 날씨가 회복되면 많은 손님들이 몰려오리라고 믿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깨끗하고 조용한 피서가 될 수 있도록 교통문제, 바가지요금, 위생 문제, 풍기 문제등 가로놓여 있는 많은 과제들을 최선을 다해 해결하여 쾌적한

피서지로서 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7일에 제76회 도의회 임시회가 열립니다. 지난7월중에 의장단이 새로 구성되고 상임위 위원장이 다시 선출되어 각 상임위원회가 다시 구성되는등 이제 하반기 의회를 맞게 됩니다.

각종 자료의 준비, 도정에 대한 사전 설명등을 통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편의를 도모하고, 도정을 잘못 이해하는데서 오는 오해와 의회 운영의 파행등이 없도록, 간부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유관 상임 위원들에게 도정현황을 잘 설명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밖에 우리가 새정부 들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쇄신작업, 민원1회 방문처리제, 풍년농사를 위한 병충해방제 활동등 할일이 많습니다만, 각자 자기분야에서 업무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힘써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충남 공무원 가족 여러분!

8월은 광복절이 들어있는 달입니다. 해마다 광복절을 맞으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선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선열들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나라의 광복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우리들은 선열들의 희생을 올바로 이해하고, 의미를 되새기면서 거기에서 역사적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한국」 창조의 과업을 완수해야 할 우리들은 모든 정성과 지혜를 모아 열심히 노력하여 통일된 선진조국을 이룩함으로써 제2의 광복을 달성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앞장서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라의 명운을 건 「신한국」 창조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과 자세는 어디에도 견줄수 없을만큼 막중하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이 8월에도 우리모두 깨끗한 공무원, 봉사하는 공무원, 그리고 창조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운날씨!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달 한달도 내실있는 공·사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청풍 8월호 명사 칼럼 기고

1993년 8월 4일

대전 EXPO에 적극 참여

'93 대전세계박람회가 개발도상국가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충청남도와 인접한 대전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올림픽을 개최한 국가는 그 다음 단계로 과학기술을 축적하고 경제기반을 튼튼히 한 후에 엑스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자긍심을 느낄수 있는 국제적 행사를 관람하시는 관광객 여러분께서는, 이 지역의 정신적 뿌리인 백제문화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보아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연한 고대문명의 꽃을피웠던 백제문화의 유산과 전통을 면면히 이어온 고장, 충절과 선비의 고장으로 이름지어진 우리고장 곳곳에는 선조들의 숨결이 촉촉한 풀잎처럼 살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고장이 역사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서해안 개발과 대전엑스포의 개최를 계기로 새로운 미래의 고장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청남도에서는 대전엑스포를 지원하기 위해, 91년부터 행사장 연결도로 확·포장사업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도로변 공원화사업등, 5개 분야에 42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행사기간중 관람객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천안 I·C~박정자간의 도로확·포장과 관광유적지 정비, 그리고 지역특산물 판매와 소개를 위한 금산인삼타운, 한산모시타운 건설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짧은 사업기간과 민자유치의 어려움등으로 엑스포 개막이전 완공에 차질이 올까 걱정하였으나, 7월말에 모든 사업이 완료됨으로서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렇지만 행사기간 중에도 도로, 교통, 숙박, 관광등에 투자한 만큼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행사기간중, 숙박분담, 교통소통 문제, 쾌적한 환경조성 이외에도 길놀이행사를 비롯한 각종 문화 행사 개최, 충남의 날 운영, 시도관 참여, 그리고 충남의 농업기술 전시회를 개최하고 문화관광객 유치와 지역특산품 판매등을 통하여 엑스포 개최에 따른 지역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대전엑스포는 우리의 과학, 문화, 산업, 경제등 다방면에 걸쳐 우리지역 발전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지역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발전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충청인 모두가 대전엑스포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 참여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시·도민들께서 해야할 일은 엑스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질서있고 친절하고 깨끗한 지역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함은 물론, 아름답고 전통깊은 문화의 고장, 미래의 모습을 가꾸고 있는 활기찬 우리고장의 참모습을 알릴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실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1993년 8월 5일

'93대전 엑스포로 열린 길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적인 '93 대전EXPO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오늘 이곳 천안에서 흥에겨운 길놀이 행사를 갖게 된것을 우리 충남도민과 더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축제분위기의 조성을 위해 무더운 날씨 마다않고 공연을 베풀어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특히 서울에서 오신 길놀이 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93 대전EXPO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 전통과 현대와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날 인류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꿈의 제전이요, 지구촌의 대축제입니다.

대전을 향하여 네곳에서 벌어지는 오늘의 길놀이 행사는 대전EXPO의 시작을 알리고 , 붐을 일으키고, 성공을 기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EXPO기간중 대전을 찾는 천만명의 내외 관람객에게 즐거운 거리, 추억의 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우리 충남도를 거쳐 오가는 수많은 관람객에게 친절·청결

질서의 충남인상을 보여주므로서 우리고장을 다시 찾아오고 싶은 마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200만 도민 모두가 뜻을 모아 나아 갑시다.

끝으로 다양하고 알찬 길놀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출연단체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행사를 성원해 주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해 주신 충남도민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EXPO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농어민 후계자 대회 치사

1993년 8월 9일

생명산업의 역군

고향을 지키며, 복지 농어촌을 가꾸기 위해 땀흘리고 계신 우리고장 농어민 후계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유관기관 대표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낭만 가득한 이곳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농어민 후계자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께서 서로의 우의를 다지고,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의 내일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에 저도 참석하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땀흘려 일하면서 선진농업기술을 익히고, 전문수산인의 꿈을 키우고 계신, 우리고장 7,600여 농어민후계자 여러분에게 마음속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보내 드립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지난 30년간, 우리 민족은 처참한 가난을 몰아내자는 한뜻으로 굳게 뭉쳐, 허리띠를 졸라매고 구슬땀을 흘리면서, 성장의 씨를 뿌리고 번영의 터밭을 일구어 왔습니다.

잘 살아 보자는 한결같은 노력으로 우리는 불과 한세대만에 경이적인 성장·발전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농어촌 또한 많은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한편, 우리의 국력이 커지고 무역규모가 세계 12,3위권에 진입하면서, 개방화·

국제화의 물결이 우리나라에도 엄습해 왔고, 상대적으로 개방화의 준비가 덜된 우리 농어촌, 우리 농어민은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개방화의 물결을 겁내고만 있을게 아니라,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고 우리 농업을 세계농업과 당당히 겨룰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단계 격상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져야된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온갖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여 우리의 농·어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키워 나가야 합니다.

정부의 「신농정」은 이러한 우리의 꿈과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2001년까지 42조를 투자할 계획이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98년초까지 앞당겨 시행될 수 있도록 내각에 지시하셨으며, 이에따라 농림수산부에서는 신농정 계획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농어민 후계자 여러분!

나는 농수산업의 비중이 높은 충남지사로서의 책임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며, 우리고장 농어촌 발전에 헌신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나는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생명산업의 역군인 여러분과 고락을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고 걱정하며, 같이 뛰면서 우리 농어촌을 다시 돌아오고 싶은 고장으로 새롭게 가꾸어 나아 갑시다.

이러한 우리의 소망은 과학영농의 기수인 농어민 후계자 여러분을 믿기에 꼭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 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우리모두 21세기, 복지 농어촌의 꿈을 키워 나갑시다.

끝으로 오늘부터 사흘간 펼쳐지는 이번 대회 기간동안 모범적인 질서속에 여러분의 정열을 마음껏 불태우면서, 꿈과 우정을 나누는 화합의 축제, 기술농업 시대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결의의 한마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산모시타운 준공식 치사

1993년 8월 14일

후손에게 물려줄 값진 유산

존경하는 서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곳출신 국회 이긍규 위원님, 송선규, 나신찬, 이상돈, 나상석의원님 그리고 지역 기관장님과 유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한산모시 기능보유자이신 인간문화재 나상덕 여사께 깊은 찬사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천군민 여러분의 긍지가 담긴 이곳 한산 모시타운을 준공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산모시의 명성과 유래를 지키고 그 전통을 면면히 이어나갈 한산모시타운은,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값진 유산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시설의 건설을 추진해온 김현두군수 외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국비지원을 위해 애써주신 이긍규의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분들의 노력은 우리 도민들의 기쁨과 자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설의 완공은, 끝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전국을 통해서, 아니 세계를 통털어도 하나밖에 없는 이 시설을 잘 활용하고, 자

랑스럽게 만드는 일은 바로 지금부터할 탓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우리고장의 전통 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정성과 창의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완공된 한산모시타운은 가까이는 대전 EXPO를 계기로, 그리고 길게는 백제문화권의 개발과 관광 충남도로서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건립되었습니다.

앞으로 백제문화제 특정지역 개발이 완료될 2001년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게되는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곳 서천은 선조들의 충절과 의로운 숨결이 어린 고장이며, 한산모시 뿐만 아니라 건지산의 맑은 물로 빚은 소곡주 향기 그윽한 곳입니다.

또한 이곳 서천은 서해안 개발의 꿈과 소망이 크게 기대되는 미래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고 지역의 화합된 힘과 노력없이는 우리가 더 큰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한산모시타운 완공을 계기로, 이 고장이 더 단합하고 미래의 의지를 다지는 역량이 분출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한산 모시타운이 우리고장의 자랑과 자부심을 더욱 높일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는 애정어린 성원을 해 주시고, 우리 충남이 더욱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모아 주실 것을 마라마지 않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빈여러분, 도민여러분께 거듭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한반모시타운의 무궁한 발전을 빌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내 기미독립운동 합동추모 대제전 추모사

1993년 8월 15일

민족자존을 지킨 횃불

존경하는 충남도민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내빈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48회 광복절을 맞이하여 지금으로부터 74년전 항일독립의거의 현장 아우내에서 왜경의 총칼앞에 서도 굴하지 않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짖으며, 꺼져가던 민족의 자존을 국내외에 과시한 선열들의 높은 뜻을 추모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라사랑으로 생을 마치신 마흔여덟분의 합동추모제전의 자리에 나와서 영령들께 삼가 옷깃을 여미고, 고개숙여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물결이 세계를 지배하던 20세기초, 국제정세에 대응하지 못했던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가 되는 좌절의 역사를 강요 당했습니다.

참으로 절치부심할 민족의 암흑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민족은, 전국 방방곡곡, 남녀노소가 하나로 뭉쳐일에서, 민족의 기개와 역사의식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우내 기미독립만세의 쾌거는 민족의 독립과 생존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양심과 자존을 지킨 민족의 횃불이 되었습니다.

선열들께서 뿌린피는 민족의 정기가 되었고, 그 만세의 함성소리는 오늘날 번영의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선열들께서 나라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끈질긴 저항과 투쟁을 벌여 독립을 쟁취했듯이, 우리는 오랜 시련과 진통을 겪으며 오늘날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열들께서 물려주신 정신적 유산인 나라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21세기, 통일된 조국, 번영된 나라를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신한국창조」의 과제 또한 우리모두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에 그 바탕을 두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통일된 조국, 건강한 사회, 선진된 국가를 만들고, 우리 지역이 화합하며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것이 아픈역사, 한많은 시대를 살다가신 선열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모두는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면서, 변화와 개혁의 새로운시대, 21세기, 통일된 조국을 창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럽고 당당한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추모제전을 올리면서 다시한번 선열들의 명복을 빕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사준비에 힘쓰신 아우내 기미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김재홍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독립유공자 포상전수식 인사

1993년 8월 17일

당당한 자부심으로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오늘 뒤늦게 나마 독립유공자로서 그 공적이 인정되어 명예를 되찾게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광복된지 48년이 됐습니다만, 광복직후에 이러한 조사가 진행돼서 선열들이 직접 포상을 받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됐어야 옳습니다만, 건국이후 혼란한 가운데에서 오늘에 이르다 보니, 특히 오늘 포상을 받으신 분들은 뒤늦게 공적을 인정받는 결과가 됐습니다.

뿐만아니라, 아직도 나라를위해 목숨을 바치고 헌신한 분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포상도 지금 우리가 열심히 찾아내 가지고 50주년이 되는 해에는 한분도 빠짐없이 독립 유공자로 포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늦은 포상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써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포상을 받으신 분들과 그 유족들은 그야말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나라는 세계를 향해서 당당히 서있습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잃었던 나라를 되찾고,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으며, 88올림픽과 대전EXPO를 개최하는등, 세계의 중심에 우뚝선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금년에는 문민정부를 발족하고 민주화의 꽃을 찬란하게 피우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생각할때에 우리 선조들의 높은 희생에 대해서 다시한번 머리숙여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여기 김수성 선생님께서는 직접 본인이 포상을 받으셨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전부 그 유족이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족 여러분께서는 이런 훌륭한 선조를 둔것을 자랑으로 삼으시고, 유공자 본인께서는 나라 위해 큰일 했다는 당당한 자부심으로, 본인의 인생은 물론 자손들의 인생도 자랑스럽게 가꾸어 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문민정부를 맞으면서 신한국 창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깨끗한 사회, 튼튼한 경제,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신한국 창조에 힘을 합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을 가질수 있는 원동력이된 우리 선열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다시한번 회상하면서, 오늘 포상받으신 당사자와 유족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앞으로 선열들의 도우심을 받아서 큰 발전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국 구마모토현 방문단 환영오찬 인사

1993년 8월 24일

10년 지기

후쿠시마 조-지 구마모토현 지사님 내외분, 다까다 현의회 의장님, 그리고 충청남도를 방분해 주신 구마모토현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바쁘신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이대희 도의회 의장님과 김용문 한·일친선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술과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충청남도와 구마모토현은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적인 유대관계가 있어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양도·현은 83년 1월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이제 10년 친구가 되었습니다.

83년 4월에는 당시 구마모토 현지사였으며 지금 일본국 내각수반이신 호소카와 총리의 방한이래 많은 인사의 교류로 자매결연의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구마모토현 출신인 호소카와 총리에 대한 깊은 인상과 친근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새로운 도약에의 길」을 다짐하는 대전EXPO 개최시기에 맞춰 후쿠시마 지사님 일행께서 우리도를 방문하시어 양도현의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를 갖게 되므로써 양도·현의 실질적인 우호와 유대관계는 더욱 깊어지리라 확신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머무시는 동안 즐겁고 기억에 남는 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충청남도와 구마모토현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양도·현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서 다같이 마음을 열고 미래를 열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1993년 8월 24일

우호 협력의 10년

「후꾸시마 조-지」 구마모토현지사님 「다까다」 현의회의장님, 「가와쓰」 일·한 친선협회회장님을 비롯한 구마모토현에서 오신 여러분과, 「오가와」 공사님께 우선 먼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충남도와 구마모토현간의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식을 빛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우리지역 출신 여섯분의 국회의원님과 이대희 도의회의장님, 김용문 한·일친선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충청남도와 일본국 구마모토현은 아득한 백제시대이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지난 83년 역사적인 자매결연을 맺은이래, 10년째를맞아 지금까지의 우의를 더욱 다지는한편, 보다 성숙된 관계로의 진전을 위해 오늘 양도·현이 뜻을모아 함께하는 뜻깊은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10주년간에 걸쳐 우리충청남도와 구마모토현은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새로운 창조적 동반자의 관계를 이룩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자매결연 10주년기념행사가 갖는 의미는 더욱 소중하며, 특히 이 자리는「새로운 도약에의 길」이라는 주제하에 인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축제의 한마당인 「'93EXPO」와 함께하고 있어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와 구마모토현의 상호협력은 앞으로 전개될 희망과 번영의 태평양시대와 함께 한·일 양국의 무한한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또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해서 갖는 오늘의 행사가 양도·현간의 이해와 우정이 더욱 깊어지는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후꾸시마 지사님 일행의 충청남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국 구마모토현 방문단 송별만찬

1993년 8월 25일

영원한 우의 확인

후쿠시마 조-지 지사님 내외분, 그리고 내외 귀빈여러분, 오늘로 지사님 내외분 일행께서 우리 충청남도에 오신지 3일째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번 지사님의 방문을 통해서 양도·현간의 변함없는 우호협력 관계를 다시한번 확인하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제의 10주년 기념행사에서, 그리고 오늘 백제유적지 탐방을 통해서, 우리 충청남도를 더 깊게 알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때마침 개최되고 있는 대전 EXPO를 후쿠시마 지사님과 구마모토현민 여러분께서 참관하시므로서 이 박람회가 더욱 빛났음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는 양도·현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머무시는 동안 우리 도민들의 따뜻한 우정과 좋은 기억들을 지니고 무사히 귀국하시길 바랍니다.

후쿠시마 지사님 내외분, 그리고, 내외 귀빈여러분, 이번 지사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방문은 충청남도와 구마모토현 모두에게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양도·현의 영원한 우의를 다짐했던 이번 방문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농정 설명회 인사

1993년 8월 30일

선진농어촌의 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국가농정의 최고책임자로 계시는 허신행 농림수산부 장관님을 모시고, 신농정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신농정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허신행 장관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농림수산업의 전환기를 맞이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 농어촌 발전에 힘쓰고 계신, 농어민 여러분과 농수산 관련 공직자 및 단체임직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신것 처럼 우리 충남은 농어민이 전체도민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통적인 농업도입니다

때문에 정부의 신농정에 대한 관심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많고 앞으로 신농정 계획에 대한 영향을 제일 많이 받게 되는 지역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신행장관님은 지난 20년 이상을 농어촌경제 연구에 헌신해 오신 경험과, 농어민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느껴오신 현실감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림수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가기 위한 신농정을 주창하셨습니다.

이번에 바쁘신 국정이지만, 전국을 직접 순회하시면서, 우리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가꾸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신농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농림수산업이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야하는 중요한 시기에, 「신농정」은 우리 농어민뿐만 아니라, 국민모두의 소망인 선진 농어촌의 꿈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어민 한분 한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고, 국민 모두의 성원이 뒤따라야 이 신농정계획은 성공을 거둘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충청남도의 농림 수산업을 앞장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신농정에대한 전폭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노력을 부탁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농어촌을 같이 걱정하고 땀 흘리며, 살기좋은 곳으로 가꾸어 나가겠다는 다짐의 자리가 되고, 아울러 신농정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하게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충청남도를 찾아주신 허신행 장관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여러분 앞에 허신행 농림수산부 장관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년 9월

9월 월례조회 훈시

1993년 9월 1일

봉사하는 공무원

쉴틈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다보니 어느덧 가을을 여는 9월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달에는 큰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중앙에서는 내년도 예산 심의가 바쁘게 진행되었고, 우리도의 공무원은 여름 휴가철 인데도 불구하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도정수행이 원만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1만 5천여 도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랑스런 신한국인상을 받으신 양인식 논산문화원 사무국장과 박정연 서산시 새마을부녀회장을 비롯해서 으뜸도정상, 우수 공무원상을 받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에는, 8월 7일 대전엑스포가 개장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약에의 길」을 지향하는 대전엑스포가 우리 고장에서 개최된 이래 20여일동안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처음에 제기되었던 몇가지 문제점들이 원만히 수습되고 관객들의 질서의식이 많이 개선됨으로써 엑스포 행사는 차분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엑스포는 대전에서, 관광은 충남에서」라는 슬로건을 걸고 많은 준비를 했던 우리 충남의 경우, 관광객이 통계상으로는 약 6%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대전과 가까운 부여, 공주지역을 제외하고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하는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면에서 보면 관객들이 엑스포 위주로 우리고장을 방문하고 관광은 별도로 하겠다고 하는 심리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들의 홍보부족에서 오는 원인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표창을 받으신 사회진흥과의 노력으로, 지난번에 구마모토 현지사 내외가 대전, 공주, 부여를 다녀오고나서 길 양편에 꽃들이 아주 잘 가꾸어졌더라고 하는 칭찬을 여러차례 하는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볼때 아직까지는 다소 부진한 감이 있습니다만, 이런 곳들도 PR을 해서 이제 가을철 수학여행철이 되면,「충남에가면 어디에서나 아름다운 꽃길을 볼수 있다」고 하는 소문이 나서,「엑스포를 구경하러 온 길에 충남 어디엔가 가서 하룻밤이라도 묵어가자」고 하는 말을 들을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손님맞이 준비를 계속 강화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2일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금융실명제야말로 신한국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중대한 경제적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뒤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에 우리 충남도정에서 중점을 두었던 엑스포 준비, 천안길놀이 행사, 한산모시타운·금산인삼타운의 개관등 자체 행사들이 많았습니다마는 모두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구마모토현과의 10주년기념행사로써 구마모토현에서는 약 400명의 단체관광객이 다녀갔을 뿐만 아니라, 양도·현간의 우호와 협력관계가 한층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친애하는 충남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를 국정지표로 내세운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 6개월을 맞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지난달 24일 「취임후 6개월이 10년은 된 것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각분야에 내재되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파헤치고,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엄청난 변화와 개혁을 이룩했다」고 회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난 6개월동안 「깨끗한 공무원, 봉사하는 공무원, 창조하는 공무원」이 되고자 자기 혁신 노력을 기울여서, 새로운 공무원상 정립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쇄신기획단을 설치·운영해서 우리 주위에 있던 많은 제도와 관행중에 잘못된 것들을 우리 스스로 찾아내어 개선시키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민원1회 방문처리재」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우리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한차원 높게 발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역개발을 위한 백제권 개발 특정지역 고시, 엊그제 건설부와 합의된 금강종합개발 사업, 그밖에 우리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그리고 신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가안정등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전에 없이 모든 공무원들이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9월을 맞아 해야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많은 부작용을 예상하면서도 지난 8월 12일, 대통령께서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 실시를 발표하신 바 있고, 이제 그 후 2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제도는 건강하고 튼튼한 사회, 투명한 사회로 가는 불가피한 제도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서 여러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단위에서는 정부의 노력을 우리의 걱정으로 받아들이고 실명제가 조기에 정착될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도에서는 그동안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이 우리도를 방문해서 실명제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청취하였으며, 또한 실명제 지원단을 각급 기관에 설치하는 등 실명제의 조기정착에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의 크고작은 기업들이 실명제로 인해서 타격을 입지 않고, 우리도민들이 생활에 어떤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주의깊게 관찰을 하여 우리 수준에서 해결가능한 문제는 소신껏 해결해 드리고, 그렇지 않은 문제는 정부에 건의하는등 우리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금융실명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중인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은 잘만하면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랑하고 격조높은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 운동도 꼭 성공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담배꽁초나 휴지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지나가면서 남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침같은 것을 뱉지 않는 이런 일이야말로 문화국민으로서 해야하는 기초적인 일들입니다.

외국에서는 길거리에 침을 뱉으면 엄청난 벌금을 물고 있으나 우리사회에서는 예사로 그런일이 벌어지고 있고, 남이 그러는 것을 보더라도 이마한번 찡그리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외국 같으면 그런일을 보면 금방 고발을 합니다.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충남은 관광도시로서 발전해야될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지켜야될「기초질서 지키기」를 우리 충남에서 바르게 정착시켜 우리 충남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기분좋게 우리도를 찾아, 즐겁고 편안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달에는 여러 차원에서「기초질서 지키기」에 역점을 두어 주실 것을 당부해마지

않습니다.

지난 7월중순 이후부터 진행된 저온과, 하루가 멀다않고 내리는 비때문에 벼농사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육이 다소 부진될뿐만 아니라 쭉쭉 뻗어나가야될 벼이삭이 뻗어오르지 못하고 벼 몸체가 연약함으로서 각종 병해충들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정담당 부서와, 일선의 군, 특히 읍면직원들은 비상체제하에서 벼 한톨이라도 더 거두어들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3배이상 도열병약들을 더 쳐야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충남이 다른 도에 비해서는 벼농사가 비교적 잘된 편입니다.

나는 다른 지역에서의 타격을 우리도에서 조금이라고 보충하기 위해서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자고 독려하면서 뛰고 있습니다.

이 냉해와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우리 관계공무원은 물론이려니와 모든 공직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임해 주심으로서 얼마남지 않은 추수기를 앞두고 농사가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석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고 특히 농촌에서는 수확의 기쁨과 헤어졌던 가족, 친지와의 상봉등 참으로 풍성한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향을 찾아오는 많은 귀성객들에게 될수 있으면 불편을 덜어 주고 고향의 발전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분들에게 애향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추석을 맞지 못하고 참으로 어려운 그늘속에서 지내는 불우한 이웃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뻗쳐줌으로써, 검소하고 훈훈한 가운데 명랑한 추석절을 맞도록 힘써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9월은 3/4분기를 마감하는 달이고, 4/4분기를 맞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달입니다.

이제 연말까지 4개월밖에 남지않았습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한일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금년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없이 수행될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자기일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를 하지않고 이제 10월이 되고 11월이 되고, 연말이 가까워져 허둥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지금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4/4분기, 특히 연말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게으른 사람은 연말에 가서 허둥대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달에는 금년도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준비와 나아가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구상을 해야될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달에는 도의회가 열립니다마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을 나는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월되었던 사업들은 금년에 재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 점검해서 금년에 그일을 제대로 해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해 보면 적지않은 불용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달 중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러한 이월 예산이라든가 금년도 부진사업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해서 남는 재원이 있으면 한푼도 더 긁어모아서 우리 도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9월 15일에는 「충남의 날」행사가 엑스포 대공연장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모든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해서 많은 도민들을 모시는 이 행사가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모든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해서 많은 도민들을 모시는 이행사가 추호의 차질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10월에 열리는 백제문화제라든가 각 지방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토문화제등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행사를 잘 치룸으로써, 엑스포 행사가 더더욱 빛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새정부 출범후 6개월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6개월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깨끗한 공무원, 봉사하는 공무원, 창조하는 공무원」

이 됨으로써 신한국 창조의 역사적 대열에 앞장서는 영예를 누립시다.

우리 스스로 해이되기 쉬운 자세를, 지금까지의 고생을 생각해서라도 스스로 각자마음을 다지고 주위에 있는 동료들을 격려하면서 도민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할 수 있는 새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갑시다.

이제 9월은 환절기등 여러가지로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각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시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충남지구 JC가족 초청의 밤 인사

1993년 9월 4일

지역의 미래, 청년의 책임

존경하는 충남 JC 가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우리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에서 제24회 JC회원대회가 성대하게 개최된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빛과 소금이 되는 보람찬 봉사활동에 헌신해 오신 고광호 회장님을 비롯한 JC 가족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전통깊은 JC의 기치아래 뭉친 젊은 지성인 여러분은, 넘치는 젊음과 활력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큰 봉사활동을 펼쳐왔고, 200만 도민들에게는 진취적인 기상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젊음과 활력은 바로 우리지역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충남을, 미래의 고장이라고 우리들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고장이 최근들어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할 수 있는 여건과 기운이 그 어느때 보다도 충만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은 서해안시대, 지방화시대를 이끌어가는 선도지역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도지사이하 15,000여공무원은 깨끗한 공무원, 봉사하는 공무원, 창조하는 공무원이 되고자 뼈아픈 자기혁신에 큰 노력을 기울이면서, 모든 도민과 함께 창조적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찬란한 내일은 바로 이시대와 이사회를 이끌어 가는 청년지도자 여러분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충절의 고장이요, 예절의 고장인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과 긍지를 가집시다.

그리고 지역개발에 관한 의지를 한곳으로 모으고 화합된 힘을 키워 나갑시다.

자랑스런 우리고장은 이곳에 모이신 청년지도자 여러분의 자율적이고 단합된 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시대의 미래, JC힘으로」라고 하는 이번 대회의 슬로건은 매우 시의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충남지구 JC 가족여러분이 드높은 기상과 변함없는 의지로, 내 고장을 사랑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자랑스런 조직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JC 회원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모쪼록 오늘 이시간이, 우리 고장의 미래와 충남지구JC의 무궁한 발전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고 JC가족 여러분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는 화기애애한 밤이 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라이온스 클럽 30주년 기념행사 축사

1993년 9월 5일

봉사의 가치가 빛나는 사회

대전 라이온스 클럽은 우리나라가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던 도약의 시기와 맞물려, 그동안 많은 봉사활동의 자취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창립이후 18개 클럽을 스폰서 했고, 일본, 대만, 홍콩등 3개국 클럽과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국제민간친선 사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우리고장 곳곳을 따뜻한 인정으로 감싸준 봉사의 흔적은, 대전 라이온스 가족 모두의 기쁨과 보람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전 라이온스 클럽의 30년은 라이온스 가족모두의 큰 자산이요, 또한 내일의 봉사활동을 조명하는 거울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더우기 지난 30년의 빛나는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발전 의지와 봉사의 가치를 더욱 높일때, 라이온스 가족의 보람과 긍지는 그만큼 더 커질 것입니다.

라이온스 가족여러분,

대전 라이온스클럽의 역사와 함께 우리나라는 30년의 진통과 시련을 겪으며 이땅에 진정한 문민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가 넘치며, 우리사회가 깨끗해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봉사의 가치는 우리사회가 건강해 질수록 더욱 빛이 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30년 봉사연륜의 대전 라이온스 클럽이 변함없이 나라와 지역발전을 이끄는 견인차로서, 또한 변화와 개혁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대전 라이온스 클럽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여러분 가정마다 밝은 기쁨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전EXPO 충청남도의 날 행사 인사

1993년 9월 15일

자랑스런 충절의 고장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전EXPO를 경축하는 충청남도의 날 행사를 빛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우리고장 출신 국회 이상재의원님과 이대희 도의회의장님외 의원여러분, 김석종 대전직할시 의회 의장님, 그리고 충남·대전지역 기관장님들과 내빈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시군에서 부터 오셔서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지역 도민, 유지여러분과 특히, 3000㎞의 엄청난 꽃길 조성사업에 참여해 주셨던 새마을 가족여러분과, 도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도민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여름에는 이상 저온속에 농작물 피해를 우려 했습니다만, 다행히 최근들어 날씨가 좋아서 평년작 수준은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농민여러분과 함께 안도를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충청남도는 찬란한 백제문화가 꽃피었던 문화의 고장이요, 나라가 어려울때마다 충국열사를 배출했던 충절의 고장입니다.

오늘날에는 나라의 중심부에 자리하여 온화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나라의 안정과 민족의 고유정서를 대표해온 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온 도민의 참여와 협력속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도민모두는 전국제일의 농업도, 공업도, 문화도로서의 윤택한 지역을 가꾸고자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식전행사로 벌어진 국악 관현악 연주와 사물놀이에 이어서, 잠시후 공연이 있게되는 무용극「성웅 이순신」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영웅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그린 이미라 무용단의 격조높은 작품입니다.

미래를 향한 인류의 한마당 잔치인 대전EXPO현장에서 갖게되는 오늘 이 공연이, 우리들의 가슴속에 불타고 있는 애향심과 나라사랑 정신을 다시금 크게 일깨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분들께 다시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240 차 민방위의 날 재난수습훈련 훈시

1993년 9월 15일

재난은 있어도 피해는 없다

오늘 제240차 민방위의 날을 맞이하여 실시된 재난수습훈련에 참여한 각 기관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치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훈련은 우리가 실제상황에 처해있을때, 어떻게 대처하고 수습할 것인가를 점검해보는 의의가 깊은 훈련이였다고 생각 합니다.

재해행정의 어려움은 재해사고가 예고없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연재난보다는, 인재 즉, 재해의 사전예방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는 예방이 첫째입니다.

정부에서도 예방행정을 강화하고 재해발생시 관련부서의 연대책임을 묻고 있는 것도, 예방을 통한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전박살이란 말도 있듯이, 재난발생시에는 초동단계진압이 매우 중요 합니다. 오늘 훈련은 초동진압의 중요성이 강조된 훈련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은 있어도 피해는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새로운 방재기조로 삼아야 할 엄숙한 과제입니다.

재난은 어쩔수 없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을 명심하고,

재난 관련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조, 인력과 장비의 조속한 투입, 예상되는 재난상황에 대한 완벽한 대응능력을 키우는데 가일층 노력해줄 것을 당부해드립니다.

오늘 훈련결과에 대해서는 잘된점, 보완해야 할 점을 체크해서 재난대비를 업무에 반영토록 하고, 재난발생시 저해요인은 없는지, 예를 들면 소방차 투입에 지장을 주는 주차 문제등, 평소 재난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방위 대원, 관계공무원, 의용 소방대원 여러분, 특히 군부대와 한전등, 유관기관직원 여러분에게 거듭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77 회 도의회 임시회 인사

1993년 9월 16일

재정의 긴축운용

존경하는 이대희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 활동을 통해서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랫동안 계속된 이상저온과 일조량 부족현상으로 농작물의 수확이 저조한데 대해 걱정을 함께 하시면서, 직접 현장을 살피시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조와 독려를 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도에서도 저온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일부 밭작물은 감소가 불가피하나 벼농사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전국에서 작황이 가장 양호한 지역으로 나타나, 앞으로 기상이변만 없다면 평년적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불행중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에 관한 당정협의를 통해, 우리도의 숙원이던 백제권종합개발에 관한 사업비가 상당히 계상되었고, 다른 개발사업도 예년에 비해 크게 증액계상되었으며,

보령댐건설사업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비가 과다히 늘어나게 되므로써, 도민의 과중한 부담과 도정의 걸림돌이 될뻔했던 보령댐 건설주체가 정부로 이관되도록 합의

가 이루어졌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 두가지 큰 과제가 원만한 성과를 거두도록 지원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1회 추경을 통하여 신경제구현을 위한 고통을 함께나누고자 경상적 경비를 과감하게 절감하여 긴축재정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기구개편등에 따른 상호 이용예산의 정리를 비롯하여, 추가세입 재원과 여건변동에 따라 예상되는 불용액을 삭감 조정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소득 사업에 투자하므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 회계가 34억원이 증액된 4,822 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11억원이 감액된 4,680억원으로 도의 총예산규모는 9,679 억원에서 177억원이 줄어든 9,502억원이 됩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계획된 도정의 원활한 추진과 알찬 마무리를 위해 편성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통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민족통일 충청남도대회 격려사

1993년 9월 17일

개혁의 선도적 역할

존경하는 임동원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의장님,

그리고 김진환 회장님과 민통가족여러분!

민족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신한국 창조를 위한 의지를 다짐하게 되는 오늘의 대회를 도민과 함께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민통가족 여러분께서는 통일에 대한 지역의지를 튼튼히 해주셨고, 통일여론을 건전하게 이끌어 주셨을 뿐아니라, 고장의 발전과 화합에도 큰 역활을 해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앞둔 역사적인 전환기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막연하다고 느껴왔던 통일문제, 그리고 선진국 진입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념의 대결에서 자국의 경제이익을 쫓는 치열한 국제 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반도만이 냉전의 사슬을 끊지 못하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민족에게 분단의 고통이 없었다면, 일찌기 우리는 선진된 나라를 훨씬 앞당겨 놓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남과북은 불신의 벽을 쌓고, 소모적인 군비경쟁으로 국력을 낭비해 왔습니다.

신한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통일의 문을 여는데 있다고 해도 지난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신한국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회이여야 하며,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정의로워야 합니다.

도덕적인 자유주의가 넘치는 건강한 사회, 풍요롭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곧, 우리의 통일을 앞당기는 기반이 될것입니다.

이제 통일을 위한 신한국의 국정지표는 정확하게 세워졌습니다.

문민정부가 제시한 3단계 통일정책도 분명해졌습니다.

정통성, 도덕성, 대표성을 가진 새정부는 국민의 자발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통일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핵문제 등으로 남북대화가 중단되고 있지만, 통일역량을 키우는 우리의 노력을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한국 창조의 과업이 통일을 앞당기는 가장 분명한 길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충청남도 민통가족여러분 !

민통가족은 정부의 통일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통일의지를 모으고, 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민통가족 한분한분이 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때, 지역사회가 변하고, 통일로 가는 길은 그만큼 넓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회는 민통가족여러분이 통일의 주체가 되고, 지역의 통일의지를 반석과 같이 다져나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민통가족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늘 웃음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2 회 충청남도 생활체육 사이클대회 격려인사

1993년 9월 19일

활짝열린 미래로

높은하늘, 투명한 햇빛아래 결실의 가을을 축복하는 제2회 충청남도 생활체육 사이클대회가 이곳 천안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 합니다.

아울러 대회 준비에 힘써주신 충청남도 사이클연합회 유영근회장님과 동호인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문화가 발달 하면서, 어느덧 현재인들을 알게 모르게 운동부족으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고, 도시는 자동차 매연과 소음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다 소득수준이 훨씬높은 유럽이나 가까운 일본, 대만등에서 자전거 타기는 시민들의 생활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전거는 경제적이며 에너지절약과 깨끗한 환경에 기여할 뿐 만 아니라, 국민건강에도 좋은 훌륭한 교통수단 입니다.

오늘의 행사는 바로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자전거 타기를 생활속의 건전한 국민스포츠로 발전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대회 입니다.

도민 여러분, 참가 선수 여러분

싸이클 동호인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깨끗한 환경, 건강한 사회, 열려져 있는 미래를 향해서, 힘껏 페달을 밟아 봅시다.

제 13 회 금산인삼제 치사

1993년 9월 23일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

존경하는 금산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곡백과가 영글어 가는 참으로 좋은 계절입이다.

지난여름 저온현상과 잦은 비속에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농작물을 바라보며 애태우시던 농민여러분께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여러분의 큰 노력과 기상의 회복으로 이제 산과 들에는 오곡백과가 영그는 좋은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농민 여러분의 한마당 축제인 제 13회 금산인삼제가 이처럼 성대하게 개최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에 헌신해 오신 이곳출신 국회 정태영의원님과 도의회 김현근, 최원식, 양희철의원님 군의회 나상규 의장님을 비롯한 지역인사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진악산의 전설이 어린 인삼의 고장 금산은 그 이름처럼 비단폭 펼쳐 놓은것 같은 산자수명한 풍치의 고장이요, 칠백 의사의 절의로 대표되는 충절의 고장이며, 좌도 특유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문화의 고장입니다.

금산인삼제는 이러한 지역의 전통과 문화의 창조적인 계승, 그리고 영약인 우리

인삼의 가치를 널리 선양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군민여러분의 문화적 긍지는 금산 인삼제를 전통깊은 문화 축제로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자랑인 인삼이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인삼경작 농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인삼이 질적으로 우리인삼을 따라올수 없을만큼 높여나가는데 힘써야 할것이며, 깊은연구와 협력을 기울여 나가는데 대해서 깊은 성원에 뜻을 보내 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곳 금산은 지역개발을 기대할 수 있는 미래의 고장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준공되는 대전 – 진주간 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앞으로 크고작은 기업들이 이곳 금산을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의 근거리에 인접 한 지역의 여건을 어떻게 지역개발과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군민 여러분의 보람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서해안 개발과 백제문화권, 금강종합개발로 새로운 개발의 기틀이 마련될 우리 충남의 미래와 함께, 가까운 장래에 이곳 금산 또한 군민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바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에 꼭 이루어 지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산 인삼제는 군민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축제이며, 지역의 화합된 힘을 더욱 튼튼히 하는 문화축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세계적인 인삼의 고장, 이곳 금산의 무궁한 발전을 거듭 기원하면서, 그동안 행사준비에 힘쓰신 금산인삼 선양위원회와 인삼제 집행위원회 관계자여러분, 그리고 성원해 주신 이명수군수를 비롯한 군민여러분, 지역 인사 여러분께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93년 10월

10월 월례조회 훈시

1993년 10월 1일

창조하고 연구하는 자세

우리 고유의 전통명절인 추석절 연휴 4~5일을 잘 보내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인 10월 상달은 오곡백과를 거둬들이는 풍성한 계절로서, 지역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열려 우리의 삶을 더욱 보람되게 하는 「문화의 달」이기도 합니다.

10월을 맞은 오늘, 자랑스런 신한국인상을 받으신 세분을 비롯하여 으뜸도정상과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신한국인상을 수상한 세분께서는 그동안 우리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활을 헌신적으로 수행해 옴으로써 지역사회의 사표가 되주신 점에 대하여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달동안 1만 5천여 공직자 모두가 각자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준데 대해서도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게 보낸 9월에도 매우 의미있는 한달이었습니다.

지난 9월 14일에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방한해서 한불 정상 회담을 가진바 있는데,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 되었고, 유럽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알찬 외교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9월 21일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변화와 개혁 그리고 전진」이라는 제목의 국정연설을 통해 국정운영의 포부와 원칙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정연설을 통해 지금까지의 변화와 개혁은 「체제정비의 과정」이라고 전제하시면서 「하루속히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으로 자기정비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제부터는 오직 전진만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피력하였습니다.

정치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결의 정치에서 벗어난 「큰 정치·투명한 정치」를 역설하셨고, 금융실명제는 나라의 운명과 직결된 것인만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며, 국민생활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참아내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것을 국민에게 호소하셨습니다.

최근의 사회문제에도 언급하시어 「내몫만을 요구하는 집단 이기주의야말로 한국병중의 한국병으로, 이를 치유하지 않고는 선진국에 도달할 수 없다」며 노사분규를 비롯해 내몫만을 요구하는 집단 이기주의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시면서 「이제 전진하며 개혁하고, 개혁하며 전진하자」고 호소하셨습니다.

국정연설에는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이 담겨있는 만큼 공직자들은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실천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에는 순수한 우리 기술진이 만든 과학위성인 「우리별2호」의 발사에 성공하여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우주개척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양만에서 유조선 충돌로 인한 해영오염 문제와 대산공단의 가스누출 사고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대형사고가 많아서 우리에게 인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도정면에서 9월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달로서, 그간 각자 자기직분을 충실히 수행해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간부공무원들이 수시로 중앙부처에 출장하여 백제권 개발, 금강종합개발등 각종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내년도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온 결과, 내년도 국비

예산이 큰폭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道 재정에 큰 부담을 주던 보령댐 건설 사업도 관계 공무원들이 큰 노력을 줌으로써 국가로 이관하는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외에도 9월 15일 충남의 날 행사준비와 진행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해 주었고, 지난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제 77회 도의회 임시회 준비와 대응을 잘 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확보케 되기까지 노력해준 점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10월은 4/4분기가 시작되는 주요한 시기임을 유의하여 다음 몇가지 사항을 적극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은 년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돌아보고 소기의 행정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알차게 마무리하면서, 낙후된 충남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내년도 시책개발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당면한 국비예산 최종확보에도 힘써야 할 것인바, '94년도 국가예산은 비목별로만 확정되었을 뿐 지역간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제부터 중앙예산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최대한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겠습니다.

며칠전에 어느 공무원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예산 확보노력을 포기한채 지방비로만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결재를 올리는 것을 보고 크게 안타깝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는 중앙 예산 확보노력에 소홀히 하는 공직자는 무사안일한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엄중히 문책하지 않을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산획득등 도정 수행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을 구상할 때는 도민의 기대와 건의, 그리고 지역 실정등을 감안하여 정책을 개발화되, 충남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창조하고 연구하는」새로운 자세로 임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원서류를 처리하면서 조금 보완만 하면 될 것을 핑계를 대어 소극적으로 처리하거나 반려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 유념하고, 기업유치에 임할때는 한 기

업이라도 더 유치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기 바랍니다.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밤샘을 하며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을 보면 고맙고 친근감을 느끼게되나, 자기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공직자를 보면 안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각자 알아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거듭 당부합니다.

정부의 윗물맑기 운동에 부응하여 기회있을 때마다 「깨끗한 공무원, 봉사하는 공무원, 창조하는 공무원」이 돼 줄것을 당부하여 그동안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번의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를 계기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간에 민원1회 방문처리제와 행정쇄신의 추진열기가 다소 냉각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시 점화해서 「큰봉사」실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10월말경에 민원1회방문 처리제 이행실태를 종합점검해서 그 결과로 대대적인 시상도 하고 지역 총평 자료로 활용한다고 하니 준비에도 힘써주기 바랍니다.

지난날에 경제건설을 위해서 국민모두가 열심히 뛰던 시절이 있었으나, 현재는 주민들이 자기집앞도 청소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나서서 주민과 사회단체등 국민모두가 다시 뛰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오늘 자랑스런 신한국인상을 수상하신 대천의 조현숙 여사 같은 분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등에 적극 나서주셨지만 환경오염은 날이 갈수록 더해서, 우리생활 주변에서부터 태백산 계곡까지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국토가 병들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이것도 한국병이라고 진단하고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건강한 국토가꾸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전국민의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지원 역할을 수행해야겠습니다.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매월 첫주 토요일에 40만 全 내무공무원이

참여하는 자연보호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데 공무원, 직장인, 각급단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질서, 청결, 자연과의 조화」실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합니다.

금융실명제는 선진경제를 이루기 위해 꼭 정착시켜야 하는 만큼, 주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으로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각종 대형사고 예방에도 힘써주기 바랍니다. 모든 사고는 대비한 만큼 예방이 가능하므로 재해의 기본 흐름을 잘 이해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또한, 오는 12월에는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감을 국회의원들에게 지역실정을 소상히 알려 정책적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여 의원요구자료 제출, 업무보고와 답변준비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렵게 확보한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10월중에 개최되는 각종 문화체육행사는 질서와 화합의 대축제가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광주에서 개최되는 제74회 전국체전은 국민화합 차원에서 적극 동참하고 지원해나가는 한편,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천안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을 통해 도민의 단합된 모습을 과시할 수 있도록 준비와 진행에 큰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수확기를 맞아 어렵게 지은 금년 농사를 적기에 수확하도록 영농지도에 임하고, 농촌일손돕기는 산간오지와 노약자, 부녀자 농가등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과일따기, 채소수확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수확과 결실의 달이며 문화의 달이기도한 10월을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면서 지사의 당부를 유념하여 당면업무 추진에 더욱 정진해 줄것을 당부합니다.

1993년 10월 1일

행정에 대한 신뢰정착

문민정부 출범이후 많은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민원행정분야는 놀란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간 내무부장관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추진해 오면서 민원행정에 대한 공직자의 관행과 의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기까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일부 민원인들이 종전과 같이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민원인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정착을 위해 애쓴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민원행정개혁을 위한 공직자들의 노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시행 몇달이 지나면서 추진력이 약화되는 조짐도 있어 그간 시책을 추진해 오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재점화 하는 자세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오늘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은 그간의 성과를 정리해 보고 공직자들의 추진태세를 가다듬어 앞으로 민원행정개혁에 박차를 가해 나가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란 민원인이 복합민원을 관청에 접수한 이후, 관청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관계부서 협조등의 일을 가지고 민원인들이 두번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민원을 일괄처리하는 제도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자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서류보완등 민원인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관청을 방문하는 것은 1회방문과는 무관하며 「6.5원칙」에 따라 처리됨을 우리모두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1단계는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2단계는 민원처리 주무책임자 지정 및 처리과정 독려이며

3단계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

4단계는 중간통보를 실시하며

5단계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재심 및 제도개선입니다.

민원조성위원회에서의 재심에 관한 좋은 사례를 보고 받은바 있는데, 장소만 바꾸면 해결될 민원에 대해, 주무계장을 현지에 보내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여 민원을 해결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같이 처리불가한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까지 제시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6단계를 거쳐 그래도 안되는 민원은 기관장의 3심제를 운영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입니다.

① 민편의 위주의 신속·간편·공정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② 부조리 발생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진행기록표」등을 작성·활용해야겠습니다.

③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민원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면서

④ 민원담당 공무원의 의식개혁으로 행정문화의 선진화를 이루고

⑤ 민원처리기간의 단축, 행정규제 완하등으로 경제·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경

제회복에 기여해야겠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민원처리 과정 개선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공무원 의식개혁등 전 행정과정을 통해 달성해야 할 내무행정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유의하여 민원공무원 뿐만아니라 전공직자가 사명감을 갖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이 운동을 추진해 오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우리도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원처리가 빨라졌다는 응답이 95%, 친절해졌다 93%, 1회 방문으로 처리됐다 85%로 응답하는등 주민들이 민원처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공직자 모두는 마음을 크게 열고 민원인을 내부모 형제처럼 친절히 대하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조기에 정착되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더욱 두터워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제 18 회 망향의 동산 합동위령제 추도사

1993년 10월 2일

당당한 나라

조국의 따뜻한 품안에 잠드신 망향의 영령들이시여!

머나먼 이국땅에서 조국의 산천을 그리며 유명을 달리하신 영령들을 이곳에 모신지도 어언 18년의 세월에 흘렀습니다.

먼저 오늘 열여덟번째 합동위령제를 맞이해서, 영령들의 뜻을 받들어 꿋꿋하게 살아가는 유가족 및 온국민과 함께 삼가 옷깃 여미고 향을 피워 올립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영령들께서는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민족의 역사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동방의 힘없는 나라에서 태어나, 너무나 치가 떨리고 냉혹한 아픔을 체험하셨습니다.

나라와 고향잃은 고통속에서 몸부림쳤던 숱한 나날들, 할키고 찢겨진 그아픈 상처는 민족의 역사와 함께, 아직도 우리들 가슴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반만년 역사를 지켜온 우리민족은 그 고통과 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영령들의 희생위에서 이땅에 피어난 자유와 번영의 가치는 크게 빛나고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힘있는 나라, 정의롭고 자랑스런 신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당당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민족통일의 꿈은 아직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금세기안에는 통일의 꿈을 이룰수 있도록 칠천만동포가 화합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소서!

그리고 영령들의 떠나신 자리를 지키며 슬기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유가족들을 굽어 살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망향의 영령들이시여!

부디 따뜻한 조국의 품안에서 안식을 누리소서!

다시한번 고개숙여 명복을 빕니다

1993년 10월 8일

우리문화의 자존심

존경하는 공주시와 공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이민섭 문화체육부장관님, 국회 이상재 의원님, 이대희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지역의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지연태 관광공사사장님, 최창규 독립기념관 관장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는 1,400년전 찬연한 백제중흥의 터를 일구었던 이곳 공주에서, 서른 아홉번째 맞이하는 백제문화제가 개최된 것을, 우리 200만도민과 더불어 경축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처럼 성대한 문화축제를 치룰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이관용 공주백제문화제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공주시 및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득한 옛날 이땅의 백제인들은, 현대 과학으로도 따라잡기 힘든,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이러한 찬란했던 백제문화도 나라의 멸망과 더불어, 오랜 세월동안 흙과 시간속에 묻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백제 문화유적에 대한 끈질긴 발굴조사로, 백제역사의 모습들이 단편적으

로나마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특히, 지난 1971년 무녕왕릉의 발굴과 함께, 백제문화는 땅속으로부터 그 눈부신 광채를 다시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한번 백제문화의 우수성에 탄복을 했고, 백제인의 후예로서 당당한 자부심과 높은 긍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 새정부 출범후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으로, 우리 충남인의 숙원사업이었던,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이 지정 고시 됨으로서, 이제 그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백제인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우리 충남의 젖줄인 금강의 종합개발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됨으로서, 이 고장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고장은 서해안시대의 중추지역으로서, 활기찬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가슴벅찬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도민 모두는, 이제 높은 문화역량을 결집하고, 지역발전의지를 모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백제문화제야말로 바로, 우리의 이러한 단합된 힘과 문화적 자존심을 과시하는, 대화합의 한마당 축제가 될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공주시 및 공주군민 여러분, 조상님들이 물려준 훌륭한 문화유산을 더욱 소중히 가꾸고 다듬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기 위한 백제문화재현의 대열에 흔연히 참여해 나갑시다.

끝으로 그동안 행사준비에 힘써준 김수진 공주시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다같이 앞으로의 행사가 더욱 빛날수 있도록 마음을 합쳐 나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전국 궁도대회 치사

1993년 10월 8일

민족의 전통무예

오늘 날씨도 화창한 가운데, 제 39 회 백제문화제 개최와 더불어 전국 궁도대회가 열리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경향각지에서 이곳 공주를 찾아주신 궁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오늘 대회를 마련하는데 힘써 주신 충남궁도협회 권오중 회장님, 관풍정 오세휘 사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활쏘기를 즐겨 했던 민족으로서, 동이족이란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기록에도 백제 비류왕은 궁궐에서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에 활쏘기를 했고, 고이왕은 한번에 두마리의 기러기를 맞히는 명궁이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구려 고분의 벽화에도, 활쏘는 무사의 용감한 모습이 살아 움직이는듯, 우리들을 경탄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도는, 우리 민족에게 평시에는 기와 예와 도를 중시하는 민족의 스포츠이면서, 전시에는 나라를 지키는 호국의 무예로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우리나라의 어린 남녀선수들이, 세계 궁도대회를 석권하는 장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의 우리 궁도가 서양의 스포츠와 놀이문화가 침투하면서, 오늘날에는 전래의 우리 활잡기가 그리 쉽지않은 실정에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궁도대회가 자주 열리고 있고, 전국에 많은 활터가 있어서, 민족의 전통 스포츠로 계승해 오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최근들어 우리 전통문화를 아끼는 분들이 늘어나서, 민속놀이가 되살아나고, 전통문화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회도 백제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열리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우리의 것을 찾고 아끼며 발전시키는 일에, 우리는 더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궁도가족 여러분께서 우리의 것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차원에서도, 민족의 전통무예인 궁도를 더 많이 보급시키고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모쪼록 오늘 뜻있는 행사,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74 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결단식 식사

1993년 10월 9일

필승의 신념으로

친애하는 선수와 임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체육계인사와 도내 기관장 및 내빈여러분,

그리고 200만 도민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고장의 명예와 긍지를 안고 제74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의 장도에 오르는, 선수단의 늠름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충청남도 대표선수단 여러분에게 200만 도민의 뜨거운 격려와 성원을 보내드리면서, 필승의 결의를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길까지 오셔서 우리 선수단을 격려해 주시는 각 기관·단체장님과 도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스포츠가 국제사회나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도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8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나라 국력을 내외에 과시하였고, 자랑스런 민족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해에 있었던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도 우리 민족은 88올림픽의 저력이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세계인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스포츠 발전에 우리 충남체육은 그동안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수많은 우수 선수들이 우리충남에서 배출 되었고, 그들은 어김없이 체육한국을 빛냈습니다.

이러한 충남체육이 지난 89년 대전직할시의 분리로 일시적으로 그 기반이 약해졌습니다만,

우리 체육인 모두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충남체육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성어린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모르게 흘렸던 땀과 각고의 노력, 그리고 각계의 성원과 정성이 모아져서, 이제 충남체육은 그동안 도약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 놓았습니다.

친애하는 선수와 임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고장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이번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누구나 고향을 갖고 있지만, 고향을 빛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고향의 명예를 위하여, 필승의 신념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전분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단 여러분, 그리고 체육인 여러분

지난 1년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것은, 빛나는 승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이 헛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영광스런 보람의 결실을 얻고 자랑스럽게 개선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도민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200만 도민의 기대를 안고 장도에 오르는 선수단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따뜻한 격려와 열렬한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4 회 대전·충남 장애인 체육대회 격려사

1993년 10월 12일

마음의 문을 활짝열고

오늘 대전·충남 장애인 가족의 한마당 축제인 제4회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신체와 정신의 주어진 장애를 이겨내며 내일의 삶을 가꾸고 있는 장애인 가족 여러분에게 마음속 깊은 위로와 성원의 뜻을 보냅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장애인들의 꿈을 심어주고 계신 강창희 재활협회 지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마운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한나라의 문화와 복지수준은 장애자의 복지대책과 국민들의 장애자에 대한 인식도에 달려있다」고 말한 사람은 불편한 다리로 4선의 기록을 세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복지수준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장애자에 대한 복지증진은 국민들의 인식과 함께 더 많은 개선노력이 뒤따라야 할 과제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무릇 이 사회내부에 그늘진 곳이 없어야 하듯이, 장애인 복지 문제는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과 뿌리깊은 편견의 그늘을 지워 나가는 것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시책 또한 그것이 구제차원 보다는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참여를

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지난 9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장애인 고용제도」도 이러한 장애인 여러분의 바램을 반영한 시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여러분은 더 큰 용기와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영문학의 거장 나다니엘 호돈, 고통의 침상에서 아름답고 위대한 시를 탄생시킨 시인 하이네, 세계적인 작곡가 베토벤 등은 역경을 딛고 일어나 위대한 삶의 꽃을 피웠던 장애인 이였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해서,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대회는 이러한 여러분의 의지와 자활의 꿈을 다짐하는 우정과 화합의 축제입니다.

맑고 푸른 가을하늘 아래서, 마음껏 뛰고 달리며 미래를 가꾸어 나갑시다. 마음의 문을 활짝열고 우리의 사랑과 우정을 확인해 봅시다.

자리를 함께하신 장애인 가족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모두의 행운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예산 문예회관 개관식 치사

1993년 10월 16일

향토문화 발전의 산실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만 군민 여러분의 문화의 전당이 될 문예회관이 오랜 공사기간을 거쳐 오늘 그 개관식을 갖게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 문예회관이 준공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고,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국회 오장섭 의원님을 비롯한 각계인사여러분과, 성원해주신 예산군민 여러분께 먼저 충심으로 고마운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조 최고의 석학인 추사 김정희선생을 배출한 예술과 학문의 고장이며, 윤봉길 의사의 절의가 살아 숨쉬는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이곳예산에, 이렇게 훌륭한 문화시설이 들어선 것은 높은 문화적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계신 예산군민 모두의 크나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찌기 지방의 문화예술이 중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성을 면치못했던 것은, 지방에 탁월한 문화예술인이 없거나 지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소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상,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으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나 지역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만한 시설이나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산군 문예회관의 건립은 이지역 향토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는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백제문화권 개발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공업과 농업,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자랑스런 고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측면에서 지역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것은 도민모두가 보다 좋은 여건에서 풍요롭게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예산은 충남내륙의 발전을 주도할 문화의 고장으로서, 21세기 우리지역문화의 꽃을 피워나갈 선도지역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산문예회관의 개관은, 이러한 군민여러분의 문화적역량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건립된 문예회관이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진정한 향토문화 발전의 산실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훌륭한 시설이 건립되기까지 애를 써주신 이항복 문화원장님, 정동기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보내면서, 자랑스런 예산의 발전,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19 회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대회사

1993년 10월 22일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

우리고장 각 시군을 대표해서 대회에 참가하신 합창단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하신 도민여러분과 내빈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가을의 서정이 깊어가는 계절의 축복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게 하는 열아홉번째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를 갖게 된데 대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흥겨운 노래와 춤을 즐기고 사랑해온 평화애호의 민족입니다.

가을의 풍년을 기뻐하고 하늘에 감사드리는 제천의식의 가무속에서부터, 그리고 온갖 애환이 담긴 삶속에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어온 우리의 가락은 민족의 가슴속에 자리잡아 왔습니다.

판소리와 민요, 그리고 가곡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우리의 노래는 멋과 흥이넘치고 음악성이 뛰어난 전통 가락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노래는 자극성 높은 서양음악에 침식당하고, 국적불명의 외국풍 노래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저항없이 받아들여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만년 역사를 지켜온 문화민족으로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기풍을 진작시킬수 있는 우리의 노래, 우리의 가락을 지키고 보존하며 가꾸어 나가는 일은, 매우 가치있고

또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킬수 있는 평화의 힘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사회의 정신문화를 비치는 거울이라고 볼 때, 건전가요의 보급은 국민정서 함양과 이 사회를 건강하게 키워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합창은 어느 한사람의 뛰어난 능력을 필요로 하기 보다는 여러사람의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소리를 이룰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는 훌륭한 예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지역 또는 나라의 화합이나 발전도 이러한 화음과 같이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각기 자기몫을 다함으로서 가능한 것 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합창경연대회가 우리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가꾸는 다짐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의 밝고 고운 노래가 이 좁은 공간을 떠나 우리고장 곳곳에 울려 퍼지는 화합의 메아리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출연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바쁜생활의 틈틈이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합창단을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 심사를 맡아주신 선생님들께 고마운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이대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발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해안개발에 따른 충남지역 개발방향에 관한 심포지움 격려사

1993년 10월 22일

무한한 개발 가능성

존경하는 충남JC 회원여러분!

오늘 우리고장을 이끌어 나갈 자랑스런 충남JC 주최로「서해안개발에 따른 2000년대 충남지역 발전방향」이란 주제의 심포지움을 갖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러한 좋은계획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충남JC 고광호 회장을 비롯한 회원 여려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 등 각계 인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충남은 예로부터 충신 열사를 많이 배출한 충절의 고장이면서, 찬란했던 백제문화의 숨결과 서해안의 절경, 그리고 산자수명한 빼어난 자연경관등 자연과, 역사가 함께 어우러진 자랑스런 고장입니다.

더구나 서해안시대를 맞아 국토의 중심지로서 무한한 개발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어, 21세기에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산만으로부터 시작하여 당진·서산에 이르는 우리충남의 서북부 임해공업예정지는 사회간접시설이 계획대로 정비되면 수도권외곽지역이 되므로서,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매력있는 투자대상지가 될것이며, 나아가 12억 인구의 중국대륙에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세계를 향한 수출기지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더구나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우리지역은 2천만 인구를 포용하고 있는 수도권과 한 시간대로 연결되어 산업과 관광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잡게 될 것이다.

최근 우리 도민들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도의 위치를 인식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도처에서 일고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에서는 서해안개발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내적으로는 백제문화권특정지역 종합 개발사업과 금강 종합개발사업 등을 기본틀로하여 공업과 농업, 그리고 관광·문화가 함께 발전하는 활기찬 도정의 장을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우리도가 2000년대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중추지역으로 발돋음 하기 위해서는, 200만 도민은 물론, 충남의 미래를 선도하는 JC회원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힘을 모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서해안 개발에 따른 2000년대를 향한 충남지역 개발방향」의 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움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정말 뜻깊은 일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포지움」을 통해서 우리 충남지역개발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이 제시되고, 지역개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우리 충남 JC가 우리고장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도민들의 개발 의지를 일깨우는 선도자로서의 역활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충심어린 찬사와 함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의 행사를 마련한 고광호 회장님과 관계자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계룡산 조각공원 개원식 치사

1993년 10월 23일

기품있는 관광명소

오늘 국향 그윽한 가을이 깊어가는 주말에 계룡산 조각공원의 개원식을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도민여러분과 각급 기관장님, 학계 인사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각공원이 조성 되기까지에는 이곳 공주가 고향이며 조각가이신 강태성 환경미술연구소장님의 애향심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작품 마흔한점이 이 가을의 정취와 계룡산의 운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가 더욱 뜻깊은 것은 강태성 소장님을 비롯한 예술인, 주민, 학생, 그리고 행정기관이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해서 이룬 결실이라는 점 입니다.

특히 소장님의 제자분들이 제작한 목장승과, 이곳 박정자의 풍성한 전설을 기려 그 후손들이 사재를 털어 건립한 박정자 유래비, 또한 주민들께서 현지 제작한 돌탑과 애써가꾼 우리 충청남도 꽃, 국화와 어우러져, 지나가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 박정자는 느티나무 한그루가 그 유래를 지키고 있는 곳이 아니라, 백제의

역사와 문화의 관문인 유서깊은 관광명소로서 그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각공원은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충청남도의 새로운 국토공원화 지역으로서, 지방문화예술 진흥과 아름다운 국토를 가꾸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문화는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원동력 입니다.

도민들의 문화적 긍지와 의지를 담고 있는 백제문화권 개발을 우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것도, 한차원 더 높은 문화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은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 보는 관광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관광 충남을 지향하면서, 오늘 준공을 본 조각공원과 같은 훌륭하고 뜻깊은 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조각공원은 편의시설로 주차장과 휴게실등이 설치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더 기품있고 이름난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30년간에 걸쳐 심혈을 기울였던 값진 작품을 선뜻 내놓으신 강태성 소장님의 지방문화예술에 대한 깊은관심과 애향심에 대해서 거듭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완성된 조각공원이 우리고장 문화예술 발전과 아름다운 충남, 건강한 국토를 가꾸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조각공원조성에 협력해 주신 도민여러분과 이병하 공주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십시요.

감사합니다.

10. 25 간부회의 훈시

1993년 10월 25일

빈틈없는 월동준비

최근에 여러차례 발생한 큰 사고를 뒤돌아 보면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인재성 사고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개최한 재해예방대책(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중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대책을 강구하여 신속히 조치를 취하고,

현재 각 부서별로 안전진단을 실시중인 관내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괜찮았으니 앞으로 괜찮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최악의 상태를 가상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고 대처하여, 사안에따라 응급조치를 취한 후 보수·정비 또는 철거등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특히, 겨울철을 맞이하여 대형화재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고, 도로, 교량, 유도선과 어린이 놀이터 등에도 사고위험성이 잠재돼 있으며, 10.24일 천안에서 발생한 부탄가스 폭발사고등을 유념해서 지역안정차원에서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정비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주 간부회의시에 지시한「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위험시설 파악 보고」의 건은 10. 26까지 보고해 주고, 이를 토대로 시·군담당국장들이 관련 기술직공무원을 대동하여 주말까지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10. 23)에는 공무원과 주민등 27~28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청소의

날 행사를 치룬바 있습니다.

일과성 행사로만 끝내지 말고「국토 대청결 운동」의 붐을 이어 나감으로써, 국토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는 계기로 삼아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되찾는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내무국에서는 시·군, 읍·면단위로「대청소의 날」을 수시로 운영하여 먼저 생활 주변부터 깨끗이 치우도록 지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쓰레기 양을 줄이고, 안버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쓰레기 분리수거등 계도에 임하는등, 국토대청결운동과 주민생활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날씨가 쌀쌀해 지는 것을 보면 월동준비에 임해야 할 시점입니다.

모든 도민이 안정된 생활속에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월동 대책을 수립하되, 유류, 연탄, 김장채소등 기초 생필품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도로의 직사장 설치, 염화칼슘 확보로 결빙, 다설에 대비하고 건설현장의 안정대책, 연탄가스중독 사고 예방등 각종 재해로 인한 인명과 시설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로원, 고아원등 사회복지시설과 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등에 역점을 두어 빈틈없이 월동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10월들어 지역향토문화제와 전국체전등 많은 문화·체육행사가 개최된 바, 일과성 행사가 아닌 에너지 재창출의 효과적인 행사가 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홍성의 결성농요가 전국 1위를 차지 하여 지역문화창달과 도민 사기진작에 큰 기여를 했던 점을 상기 하면서, 10. 26개최되는 도민체전과 삼거리문화제 행사가 계획대로 진행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행사가 끝난 후에는 심사분석을 실시해서 내년 행사는 더 나은 행사가 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대전EXPO 폐막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므로, 폐막이후 우리도에서 취해야 할

일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해야겠습니다.

88서울올림픽이 끝난후, 국민통합기운이 곧이어 나타난 집단이기주의성 데모등으로 인해, 국민적 에너지가 꺾여서 국가 발전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던 점을 유념하여 대전EXPO를 계기로 과학기술 수준향상과 경제발전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EXPO가 충남에 미친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EXPO에 대비해 만든 숙박·문화시설·특산품 전시장등의 관리문제와 파견공무원 복귀시 배치문제, 그리고 EXPO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쓴 자원봉사자를 위로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방안등 EXPO 마무리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최근 지사가 주재하는 회의가 많이 있는데, 회의가 끝난 즉시 내용을 정리해야 정확한 기록이 남게되므로, 지사가 주재한 회의는 끝난 즉시 정리하여 익일까지 지사에게 보고해주고, 부지사나 실국장들이 주재한 회의도 담당자가 기록을 정리하여 주재자에게 보고하는 한편, 후속조치는 시간을 두고 하나도 빠짐없이 이행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실국단위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바, 자기 업무에 관해서 대외적인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를 구하는등 도정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도의회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에 관해서 소관 상임위와의 사전협조를 강화하되, 위원개개인과 접촉이 불가능할때는 위원장과 간사만이라도 만나서 이해를 구하는등 협조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관계에 있었서는 간부공무원들이 중앙의 감각을 바로 알고 우리도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노력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기자실에 실국 업무내용을 자주 브리핑해서 「기자를 기피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0월을 보내면서 금년 사업 마무리와 명년도 사업계획수립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지난번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편성시에도, 강조 지시한 바 있는데 불용액 발생

문제는 사전에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광의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 되므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미리미리 업무를 살펴서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할때는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해서 도정에 반영하는등, 알차고 내실있게 계획을 수립해 주기바랍니다.

우박·냉피해를 크게 입은 농가에 수확용 농기계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 방안으로서, 피해우심농가에 집중 지원하도록 하고, 농기계로 일손돕기 지원중임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작업장에 지원기관의 깃대를 꽂는등의 조치를 취해주기 바람니다.

수출용 검정콩에 계약단가보다 시중가가 비싸다고 해서 계약을 무시하고 시중에 내다팔거나, 계약단가를 인상해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계약은 계약으로서 분명히 이행토록 하고 지원은 별도로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칩니다.

제 30 회 저축의날 기념식 기념사

1993년 10월 25일

낭비는 사회의 적

오늘 서른번째 맞이하는 저축의날을 기념하여,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빈여러분과 금융 기관의 임직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저축증대에 힘을 기울여 주신 저축 추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마음속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축에 앞장서 오신 공노로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축의 날이 제정되었던 지난 64년도의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03달러였습니다.

지난 92년도가 6,789달러 였으니까, 지난 30년 동안 무려 66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없이, 그 어느 것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채, 이루어낸 이러한 성취는 분명 기적의 신화를 창출한 우리 모두의 자랑입니다.

그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경제협력을 하고 있고, 오히려 해외 여러나라에 투자도 하고, 지원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람은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남보다 더 부지런히 일하고 저축하여 경제를 키워온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89년 이후 성장율의 둔화와 함께, 임금상승에

비례한 생산성의 저하로 인하여, 국제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는 실정에 있습이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께서는 신경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8월 12일에는 개혁의 핵심인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경제정의 실현과 나라 경제를 살리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중소기업 지원과 각종 행정 규제완화로 경제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선진국의 꿈은 실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낭비성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야 합니다.

경제학의 아버지인 아담 스미스도 "낭비는 사회의 적이요, 검소한 사람은 사회의 은인"이라고 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근검절약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는 소중한 덕목이라는 믿음을, 오늘 저축의 날을 맞이한 여러분과 함께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축의 날이 저축의 생활화를 위한 우리모두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고, 전환기를 맞이한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에 다함께 참여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저축증대에 힘쓰신 금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마음으로 부터의 성원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념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45 회 도민체육대회 대회사

1993년 10월 26일

완벽한 팀웍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시군을 대표해서 대회에 참가하신 선수와 임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도민체전을 빛내주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실의 가을을 축복하는 제45회 도민 체육대회가 이곳 천안에서 성대한 막을 올리게 된 것을 도민여러분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체전을 도민의 화합축제로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신 천안시민과 이희영 천안시장을 비롯한 여러분 그리고 체전행사를 적극 뒷받침해주신 이종수 도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이곳출신 도의원 여러분, 윤종균 천안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도민체육대회는 우리고장 체육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고, 횟수를 거듭하면서 도민 모두의 폭넓은 참여와 화합의 축제가 되어 왔습니다.

문민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열리게 된 이번 체전은 이곳 천안시가 시승격 3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축제와 함께 치루어 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미래를 향해 전진을 다짐하는 우정과 화합의

축제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민모두가 완벽한 하나의 팀을 이루어야 합니다.

스포츠에서 팀웍이 잘 이루어져야 승리할 수 있듯이, 지역의 화합과 단결은 바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나라발전을 이끌어가는 미래의 고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를 위해서, 이시대는 우리에게 하나로 화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체전이 도민모두가 하나로 화합하여 지역의 힘을 모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수와 임원 여러분,

운동경기에 있어서의 목표는 최후의 승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스포츠세계에서 승부보다 중요한것은 진정한 스포츠정신 입니다.

결과가 어떠했느냐 보다, 얼마나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했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승자와 패자가 서로 축하와 위로를 주고받는 우정이 꽃필때, 이번 체전은 모두가 승자가 되고 기쁨을 나누는 화합과 질서의 체전이 될 것입니다.

선수와 임원, 그리고 200만 도민 여러분,

우리모두 이번 45회 도민체전이 도민 모두의 단합된 힘과 역량을 과시하는, 화합체전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활짝 열릴 우리고장의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도약의 축제로 만듭시다.

선수임원 여러분의 선전분투를 당부드리면서, 대회준비에 힘써주신 천안시민과 관계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7 회 천안삼거리 문화제 치사

1993년 10월 26일

지역의 미래, 문화역량이 좌우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회 성무용의원님을 비롯한 내빈여러분, 지역 기관·단체장님과 시의회 윤종균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오늘 가을정취 무르익은 결실의 계절에 일곱번째 맞이하는 천안삼거리 문화제가 20만 시민 여러분의 축복속에서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경축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처럼 성대한 문화제를 준비하는데 많은 애를 써주신 천안시 문화예술 선양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성원해주신 각계 인사여러분들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축제는 때마침 이곳 천안에서 제45회 도민체육대회와 같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도민 모두의, 화합의 축제로 치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일찌기 이곳 천안은 3남의 길목에 위치하여 여러고장의 문화를 흡수하면서, 지역의 독창적인 문화를 가꾸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분연히 일어서 이땅을 지킨 충신열사를 배출한 충절의 고장이며, 특히 능수버들의 전설과 홍타령의 운치가 깃든 유서깊은 문화의

고장입니다.

이러한 시민여러분의 역사적, 문화적 긍지는 삼거리 문화제를 탄생시킨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천안은 시승격 30주년을 맞이하여 21세기 서해안시대를 앞둔 미래산업과 교육도시로서의 꿈을 가진, 활기찬 고장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부터 이전되는 많은 기업들이, 이곳 천안을 중심으로 충남북부권의 공업벨트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성장과 함께, 이곳 천안은 우리의 진정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도시가 될 것을 우리모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문화속에 찬란한 역사는 잉태되고, 문화를 소중히 해왔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주도되어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문화역량을 축적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는 그만큼 풍성해 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축제는 천안지역의 보다 윤택한 미래를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문화역량을 키우고, 지역발전의 의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 화합의 한마당 잔치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도민체전 개최와 병행해서, 시민의 화합축제 준비에 정성을 기울여 주신, 이희영 천안시장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과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등, 각계의 성원에 대해 거듭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치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28 회 전국기능 대회 출전선수 결단식 격려사

1993년 10월 27일

기능인력이 대우받는 시대

먼저 오늘 우리고장의 명예를 짊어지고 제2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기능인 여러분에게 우리 300만 충청인 모두의 성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선수 여러분의 오늘 결단식이 있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지도해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신 오우현 위원장임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도교사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선수들의 장도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옛어른들께서 흔히 하시는 말씀중에 "사람은 자기가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아마 하느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수한 두뇌와 창조적인 솜씨라고 생각합니다.

좁은 국토와 빈약한 자원속에서도 우리가 지난 30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랑스런 나라로 가꾸어올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함께, 부지런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계기능올림픽 9연패의 위업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입증해 주는 쾌거였습니다.

세계는 지금 냉전체제의 묵은옷을 벗고 자국의 이익을 최선의 가치기준으로 삼는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과학기술과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는 곧 그나라의 경쟁력과 국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투자 그리고 고급기능 인력확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는 개발된 기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야 합니다.

한때 우리 기능인들은 성자의 주역이면서, 그만큼 대우를 받지 못했던 적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전문기술인, 기능인력이 더 대우받고 보람을 느끼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기능 경기대회는 이러한 기능인 여러분의 의지를 키우고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수 있는 대회가 될 것 입니다.

친애하는 출전선수와 임원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힘껏 발휘해서 자신은 물론, 학교와 우리 고장의 명예를 빛내주시고, 최상의 결실과 보람을 안고 개선하시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산업역군의 기수인 기능인 양성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계신 오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지도 선생님 여러분들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선수여러분의 장도에 행운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45 회 도민체육대회 폐회사

1993년 10월 28일

화합의 원동력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전국체전에 출전했던 선수와 임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도민체전 시군 선수단 여러분,

오늘 제74회 전국체전을 결산하는 해단식과 함께, 도민화합의 참모습을 보여준 제45회 도민체육대회가 질서있고 보람있는 대회로 마치게 된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신 선수단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수를 뒷바라지 해주시고, 대회운영과 질서를 위해서 땀흘려주신, 충남체육대회 김학현 사무처장을 비롯한 체육인과 운영요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화합체전, 인정체전을 위해서 성원해 주신 천안시민여러분과 이휘영 천안시장, 윤종균 시의회의장, 그리고 관계요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이자리에는 광주 무등벌에서 우리고장명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선전분투한, 전국체전 출전선수와 임원여러분들도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광주에서 개최 되었던 제74회 전국체전은, 우리에게 아쉬움을 많이 남긴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훨씬 좋은결과를 거둘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확신을 갖게해 준 체전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경기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이웃 대전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므로, 더 좋은 기록을 위해, 부진했던 요인은, 철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면서, 심기일절하는 자세로 다시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년도 체육을 결산하는 이 자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모두 다짐하고 가슴속 깊이 새깁시다.

그동안 충남 체육인 모두는 이번 전국체전과 도민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단과 도민 모두는 경기장에서, 응원석에서 질서있고 단합된 참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아진 단합된 힘이, 우리 지역발전과 화합의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 충남이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상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고장의 명예를 빛낸 자랑스런 얼굴들입니다.

다시한번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수와 임원여러분, 체육인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더 큰 기쁨과 결실로 그 보람을 나눌 수 있도록, 각자 맡은바 종목과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내년 봄에 공주에서 다시 만날것을 기약하며서 폐회사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93년 11월

11월 월례조회 훈시

1993년 11월 1일

재해의 철저한 예방

이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는 11월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에는 「문화의 달」을 맞아 각종 문화·체육 행사가 많았고 국정감사 등으로 인해 실로 한달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도정수행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줌으로써 여러가지 행사들, 특히 국정감사가 무난히 치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1월 월례조회를 하면서 몇분이 상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평소에 재해대책등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끈질긴 노력과 자기 책임 완수를 통해서 134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산수입으로 도재정에 보탬을 준 치수과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밖에 자기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상을 받으신 4명의 우리 공무원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신 공주의 양정학 사장님, 그리고 보령의 농어민 후계자 윤성병씨,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결성농요의 선소리꾼으로 결성농요가 대통령상을 받는데 크게 기여하신 최광순 선생님 세분을

모셨습니다.

세분 수상에 대해서 축하드리면서 도민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기여해주신 세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애써 가꿔왔던 각종 농작물의 가을걷이가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가을걷이를 마치면서 바로 뒤따라서 월동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도정도 또한 연말을 맞아서 혹시 미진한 곳이 있는지를 챙겨서 알뜰하게 마무리짓고 내년도 도정의 방향설정과 각종사업에 대한 집행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최선을 다하는 11월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지난 10월에는 각종 행사도 많았지만 국·내외적으로 사건도 많았던 한달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북한 핵사찰문제가 오랫동안 현안과제로 있는 가운데 지난 5일에는 난데없이 중국에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또, 러시아에서 동해에 핵폐기물을 투기하는 사건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이 비슷한 유형의 핵폐기물 투기를 했다는 보도로 인해 핵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고조되었던 한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온누리호」가 동해를 탐사하면서 핵 잔유물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주 신경을 쓰고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서해 훼리호 사건이 발생되어서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와같은 잇따른 대형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사기가 위축되고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가원수인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직접 사과의 담화를 발표하시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하는등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도 훼리호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우리들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있습니다

마는, 우리도에서는 이러한 대형사고에 대비해서 자체적인 점검활동을 해왔고, 또 시장·군수, 경찰서장, 소방서장 연석회의를 열어서, 우리 지역에서만은 이러한 대형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자 노력을 하고 유관기관간에 공조체제를 강화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대형사고가 나면 국민들은 소관을 따지지 않고, 정부를 불신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고와 관계되는 부서에 있든 없든 우리 주위에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는곳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부서에 통보해주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10. 25일에는 대통령께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관한 시정 연설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개선 사업을 대폭 강화하며, 또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도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하여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우리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정의 경우, 각종 행사와 국정감사를 잘 마쳤고, 지난 25일에는 우리 충남출신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내년도에 예산의 보다 많은 확보를 위해서 협조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금년도 민속공연대회에서 우리 도 「결성농요」가 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써 「문화도」로서의 체면이 서는 10월이었고 그밖에 각종 도정이 원만하게 추진된 한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1월을 맞으면서, 대통령께서는 한일·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시어 외치를 위해서 직접 뛰시게 됩니다.

6일에는 경주에서 호소카와 일본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동북아 정세와 한·일

양국간의 현안과제에 대해서 깊이있는 대화를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또한 오는 23일에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서 각종 현안과제들에 대해서 회담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개월간 다져진 내치를 기반으로 해서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하여 세계로 뻗어나가는 국운상승의 새로운 토대가 마련될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들이 11월에 해야될 일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할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포열차사고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많은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거의가 설마하는 방심에서 비롯된 인재성 사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나 개인회사등 모두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설마 내가 맡은 분야에서 무슨일이 있겠느냐 하는 방심이 이런 큰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서해 훼리호 사고만해도 그렇습니다.

배가 하루에 한번밖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항상 과적이 생겨, 하루에 두번씩 다니게 해달라고 해운항만청에 건의를 했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고, 그날도 신문보도처럼 정원보다 100여명이 더 많은 사람이 타고 가는데도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많은 인원이 타고 다녔으니까 오늘도 괜찮겠지 하다가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관계자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고, 설마하는 방심때문에 생긴것이 아니냐고 생각할때 직접 소관이든 아니든간에 우리 공직자들이 크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의 방침도 대형사고가 나면 소관에 관계없이 내무행정이 기본적인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책임을 지고 안지고 하는것 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될 우리 종합행정 입장에서는 대형사고 예방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들은 국무총리 훈령을 비롯해서 장관훈시, 도지사 지시등을

통해 내려갔습니다마는,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자기 소관과 관계없이 견문보고 차원에서도 소관부서에 신속히 전파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1만5천여 충남공직자 여러분과 6천여 경찰공무원이 철저히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고장에서만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그동안 점검한 내용을 다시한번 챙기고, 응급조치할 것은 하고 창의적 차원에서 시정할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지역안에서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유관기관간에 협조가 아주 긴요합니다.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와 기업체, 경찰등과 연락을 하고 수시 접촉을 해서 위해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나도 몇군데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마는, 거기서 매일 생활하는 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어제도 괜찮았다, 여기는 사고가 안난다고 하는 방심에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관계부서에 상기 시켜주면 이런 협조체제를 당부드립니다.

금수강산으로 불리던 우리 산하는 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의 무분별한 투기로 인해서 산꼭대기로부터 바닷속까지 심한 오염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방치는 바로 국토가 죽어가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결과가 올 것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국토대청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버려진 것을 치우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안 버리고, 버리는 것을 줄이고, 분리수거하여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국토대청결 운동을 통해서 병든 우리 국토를 회복시키고, 국민들에게 선진질서 의식을 고취시키는 의식개혁 운동으로까지 승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부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습성이 길러져야 합니다.

각종 제품과 과대포장도 막아내야 합니다.

음식점에서 버리는 많은 음식물들을 주문식단제등을 통해서 대량 줄여야 합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이 산에가서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지기몸에 병균을 투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누가 해라 하지말아라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온국민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내무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국토대청결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이 운동이 기초질서 확립의 선진국민의식 개혁에까지 발전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 온「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대해 이달에 중앙단위에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의 관에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대민 자세가 달라졌다고 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야 말로 내무행정 개선의 첫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추진해온 이 제도를 계속 보완하고 열심히 추진해서 이것이 제도와 관행으로써 정착되도록 힘써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쇄신업무와 친절 365일 운동도 계속해서 추진하여 행정개선 노력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월동하기에는 우리들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내가족을 위해서 월동준비를 한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소외계층에 대한 월동준비에 미흡함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도로에 제설장비를 확보해서 불의의 강설에 교통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등 연료·교통문제, 아울러 화재등 겨울철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주시고 불우이웃에 대한 이웃돕기도 활발히 추진되도록 해서 도민 모두가 안전

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년초에 계획했던 사업, 도민과 약속 사업, 대통령 공약 사업등은 우리가 다시한번 총점검을 해서 금년도 마무리를 알차게 해주시고 94년은 문민정부 수립후 처음맞는 새해이기 때문에 국정이 다른 차원에서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 20부터 도의회 정기회가 개최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안이 제안됩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사업 계획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고 중요한 사업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설득을 시킴으로써 의회 심의과정에서 불필요한 어려움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자기 맡은 분야에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주실것을 부탁합니다.

이제 금년도 오늘로써 두달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각자 열심히 일해주시고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94업무계획보고회 훈시

1993년 11월 2일

행정쇄신 적극추진

장시간 보고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고 내용을 보니 각 실국에서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했고, 성의를 다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의를 다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진지하게 보고에 임해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보냅니다.

각 실국별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점 몇가지를 강조해서 당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이 도정에 대한 종합조정 기능을 담당해 오면서 행정쇄신과 공직기강 확립, 대의회 업무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점을 치하합니다.

내년에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확보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외부기관의 사정을 받으면 더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2차 도건설 종합계획도 확정되는대로 부서별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대형사고 예방과 수습을 위한 활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것인지 강구하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중 의료원에 대한 도비 10억원 지원의 건은 재검토 하고, 의료원이 자체

수지를 맞출 수 있도록 경영상황을 분석하여 경영합리화 방안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국입니다.

민주화합과 지역안정 기반 구축등 내무행정의 중추 기능을 수행해 오면서 도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EXPO 손님맞이 도로변 꽃길 가꾸기, 국토대청결 운동추진 등에 한해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정착등 민원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으로 「민」 본위의 현장감 있는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더욱 연구와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산꼭대기에서부터 바다밑까지 쌓인 오폐물을 말끔히 치울 수 있도록 활성화 하면서, 선진 시민의식 함양에 주력해 주기 바랍니다.

균형재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세수증대에도 노력해서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확보노력을 배가해 주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은 내 재산처럼 알뜰하게 관리하면서 무주재산, 망실재산이 없도록 재산관리 강화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물질문명의 발달과 균형을 이루도록 정신문화 창달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행사를 알차게 운영하고, '94대전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 도민사기를 앙양할 수 있도록 전국체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입니다.

EXPO 손님맞이 위생업소 정비 점검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 그리고 노사관계 증진에 노력해온 점을 높이 치하합니다.

저소득층과 불우이웃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지원대책 강구하고,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간의 접촉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쓰레기 처리대책 강구, 공업화·축산화에 따른 농촌환경 오염 방지에 주력해서, 환경파괴 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환경관련 공무원은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환경유해 업소, 공해배출 업소 등을 강력

단속하고, 「산업폐기물을 버리면 망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에는 담당공무원의 근무지를 바꾸어서라도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

노인 여가선용과 소득증대, 부녀자 복지와 건전청소년 육성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인권유린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사회복지 시설의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운용하는 사람의 의식전환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업무를 보다 활기있게 추진해 주고,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여성 특히 가정주부의 사회참여 확대가 필요하므로 가정주부의 사회봉사·경제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묘지의 수급문제를 검토해서 지방차원의 대처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그동안 농어촌개발국에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과 농어촌 발전대상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점을 높이 치하합니다.

정부의 신농정을 수용하여 「충남의 신농정」 정립과 함께 신농정 계획 수립시 농민참여 확대, 농민의사 반영 등으로 농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배려해주기 바랍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어촌 양성에 주력하고 기술농업 육성에 창조적인 노력을 기울여 수출농업 기반조성에 농수산국, 농촌진흥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농어촌개발국은 농정분야의 총괄기능을 맡아 농정개발의 본산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국입니다.

이상저온과 우박피해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상위권의 수확등 영농관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수매에 따른 도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추곡수매 물량 확보에 주력하고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 전개등으로 농민들이 도정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갖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주곡증산에 농정의 중점을 두고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양정제도 시행에 따른 수용태세를 갖추고, 현제도의 문제점을 찾아서 시정책을 강구해 나가기 바랍니다.

생산·유통시설을 통합하여 「세트」로 지원하는 방식은 부가가치를 높여서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는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되므로 활성화 되도록 추진 바랍니다.

타도에서 받지못하는 물량도 챙겨서 사업량 추가확보에도 노력하고, 포장개선사업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부가가치가 무한하므로 포장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백합수출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도비투자 60%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비부담율을 높이도록 사업계획을 실무적으로 좀더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폐농기계 수집소 운영은 지방비로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농기계 회사, 농협등의 참여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입니다.

신경제 추진에 앞장서서 중소기업 육성, 물가안정, 해외시장 개척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점을 높이 치하합니다.

금년에 물가안정에 노고가 컸는데 내년에도 지방물가 안정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중소기업 지원문제는「내 형제가 중소기업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중소기업을 진실로 도와주고 행동이 수반되는 지원을 해주어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애로타개, 창업편의 제공 등에서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은 민자유치방안 강구등으로 개발모습이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연구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비, 교통질서 확립, 도로표지판을 정비해서 대형 교통사고 방지에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취약지 점검·정비,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한 건축신고 설계실 운영, 금강 종합개발계획과 보령댐 건설사업 이관등에 참으로 노고가 많았습니다.

주민생활 개선과 농업개발을 위해서는 도로 확·포장사업에 우선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도로관련 사업비 확보에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도로 확포장 사업시에는 지역간의 균형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치수사업, 재해방지에 계속적인 정진을 당부 하면서, 금강종합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은 적은 인원으로 재난대비 계획 보강, 사고위험 취약시설 안전대책 강구, 을지연습등 많은 일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 교육은 도민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 개발등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지역민방위 체제를 개선하고, 유사시에 민방위 대원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도록 편성·훈련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그동안 공보관실이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홍보위원 위촉, DM망 확보 등으로 홍보체제를 구축하여 도정홍보에 노력해 온점을 높이 치하합니다

일한만큼의 행정성과가 도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직적, 체계적, 적극적인 홍보태세를 견지하여 오보 방지에 주력하고 홍보위원, DM요원 활용대책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지사와 도민간의 대화기회를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시군순시보다 도민과의 대화를 많이 갖고 파고드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도지사의 정례 기자회견을 정착시키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도정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능동적인 홍보노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창조적인 노력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입니다.

시험연구와 농사지도에 큰 노력을 기울여 온데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 개발·보급으로 수출농업을 육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일품벼 보급과 관련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재배법을 지도하고, 직파 재배법은 농민 자율에 맞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토감」「무추」 등은 좋은성과를 가져왔으나, 첨단기술 연구사업은 도단위 진흥원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에서 개발한 기술을 지역에 적응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외 유명 과학자의 앞선 기술을 도입하여 보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입니다.

농촌 인재육성은 농어촌개발국과 협조하여 활성화 추진하되, 4H → 농민후계자 → 농촌지도자로 단계별 육성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량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나중에 지사가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향토대학의 최고 경영자 강좌에 농어민 다수 참여방안을 강구하고 진흥원, 개발국이 서로 협조해서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금년에도 5개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온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각종사업을 완벽하게 시공함으로써 「공영개발단에서 시공한 사업은 믿을 수 있다」는 명성을 얻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공영개발후 미분양 사태가 없도록 신규사업을 신중히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장기개발계획 수립 추진으로, 경영을 혁신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창조적인 노

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소방본부가 위험물 표준설계도면 제작 배부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소방학교 개설로 소방요원 교육과 장비보강에 노력해온 점을 높이 치하합니다.

양·질면에서 소방수요가 증대되고 대형화재 취약건물이 늘어남을 유의하여 대형화재 예방과 진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면서, 무보수로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의 대책을 강구하여 이들을 재해대책 요원으로 위촉하는 등 성의를 갖고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소방학교 환경개선 문제는 내무부와 협조하여 국비를 보다 많이 확보토록 조치하여 도비부담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이전준비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신한국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을 양성해 오는데 그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는 공무원 교육이 되도록 운영을 강화하고 적절한 교과과정 편성운영, 교관 자질함양 등으로 실질적으로 배우는 교육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도정연구지, 행정실무사례집 발간등은 좋은 착상이므로 내실있게 추진하고 좋은 행정사례를 발굴·수록하는등 기록을 남기는 행정수행에 교육원이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이상 지시를 마치고 충남의 개발여건과 분야별 추진방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여러면에서 낙후된 지역개발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겠다는 점을 먼저 강조합니다.

여러가지 여건상 지역개발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도로서 유리한 점도 있지만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유리한 점은, 서해안 개발사업등 국책사업이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충남 서북부 지역의 공업밸트를 형성하는등, 공업진흥과 관광 진흥등 개발여건이

호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팽창되는 공장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고 태안 해안국립공원과 백제권등 내륙관광지역, 그리고 온천지역을 연결하는 관광개발에 힘써서 농업과 공업과 관광이 연계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경부고속전철등 각종 건설사업과 수도권 분산정책이 지역개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리한 점으로는 국도 4차선 확장율이 전국에서 최하위인 점, 동서간 연결교통축 미발달, 부족한 용수문제등은 지역발전에 장애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중심도시가 없다는 점입니다.

천안등 동·북부 지역은 수도권에, 대전 인근지역은 대전권, 서남부 지역은 군산권에 흡수되는등 지역공간을 통합하는 거점 도시가 없다는 것이 불리한 점입니다.

우리 충남이 21세기에 국토의 중심지로서,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서 착실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 여건상 유리한 점을 최대한 살려 나가야 하겠습니다.

농업과 공업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서해안개발과 백제권 개발의 조화있는 개발을 위해서 장기적인 비젼을 갖고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분야에 있어서 건설부와 상공부에서 추진중인 광역아산만권 종합개발사업을 염두에 두고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도차원의 중규모 개발사업을 모색하고, 천안·온양·당진의 역삼각형 지대를 새로운 공업지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힘이 모자라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라도 이 지역에 대한 21세기의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구상하는 등 계획되고 준비된 개발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을 가칭 「충남개발공사」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주고,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를 유도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의 본사를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시에는 지사라도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또한 공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에 환경문제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돌아오는 농어촌」「윤택한 농어촌」 건설에 심혈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농어촌 개발시에는 지역 특성에 맞도록 도시근교형, 산간형등 농어촌 개발 모델을 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역특산품도 「○○군 특산품」으로 표시하는등, 지역생산물을 소비자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도록 특산단지등 중점 육성해 나가도록 하고, 농어민 기술제안 제도와 농어촌 발전대상제를 같은 차원에서 수용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개발한 좋은 기술에는 수천만원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기술이 많이 활용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어렵게 개발한 농산물 가공·저장시설 현대화, 합동작업장 설치등과 함께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규격 표준화 등으로 농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하는데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분야에 있어서 우리도의 관광여건은 좋으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는 말처럼 서해안, 백제권, 온천지역을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서해안, 백제권, 온천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하되 아이디어를 짜내어 장기적 목표를 갖고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충남만이 갖는 관광상품성을 확보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공간을 확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추사 백일장을 전국단위 행사로 확대하고 예술인재 건설, 향토 문화예술인과의 협조 강화 등으로 「문화예술의 본고장」이라는 인식 제고에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관 업무와 관련된 중앙부처와의 접촉을 강화하고 내년 봄에 재경 충남출신 공무원과의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과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간부들이 열심히 뛰어서 중앙예산을 다만 얼마라도 더 따오는 노력과 보람을 갖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는 내가 맡은 업무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 추진되었는지 알고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금년 업무를 뒤돌아 보고 반성하면서 보완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전문가들을 만나 도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을 보완 발전시키고, 필요시에는 지사와 조율해 주기 바랍니다.

신정부 출범후 우리는 지난 8개월간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행정쇄신을 적극 추진해온 여러분들이 장하고, 한편으로는 동정의 심정까지 드는것이 사실입니다.

다시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채찍질하여 「깨끗한 공무원, 봉사하는 공무원, 창조하는 공무원상」으로 가다듬어 나감으로써 도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고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1만 5천여 공직자 모두가 연구하고 창조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우리모두 힘을 합쳐 나간다면 우리 충남도정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다 새로운 각오와 정열을 갖고 업무에 정진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홍구 평통수석부의장 지역순방간담회 인사

1993년 11월 3일

스스로 힘을 길러야

오늘 존경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이홍구 수석부의장님을 모시고 지역간담회를 갖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문성규 평통부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님 및 시군의회 의장님과 함께 간부자문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도민의 통일의지 결집에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계신 우리 자문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분께서도 이미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최근의 국제정세는 동구의 몰락, 소련의 붕괴로 동서간의 이념대립은 사실상 끝나가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적화남침야욕을 지금도 버리지 않은채 오히려 핵개발이라는 새로운 분쟁의 씨앗까지 덧붙이는 모험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화의 물결과 국제 해빙무드를 빌미로 자칫 대북경계심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병을 고치고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신한국의 건설에 온 국민이 동참함으로써, 우리의 내실을 다져야만 북의 도발을 막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족의 기원인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와같이 내부적으로 튼튼한 힘을 기르는 것이 평화통일을 위한 최선의 길이며, 통일문제도 우리 스스로의 힘이 없다면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속에 휩싸일 수 밖에 없음을 상기할때, 지역의 주도적 위치에 계신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통일을 위한 지름길이 신한국 건설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시고, 이를 온 도민에게 주지시키면서, 국민화합을 위한 진정한 노력과 애국애족에 솔선하는 참봉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뜻깊은 간담회가 자문위원여러분들의 통일의지와 지역의 힘을 모으는 다짐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고장을 찾아주신 이홍구 평통수석부의장님께 거듭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풍부한 경륜과 높으신 탁견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궁한 발전과 자문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회 공산교육상 시상식 축사

1993년 11월 5일

미래의 등불역할

우리고장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우리고장 교육발전에 헌신해 오신 공로로 영예의 공산교육상을 수상하신 다섯분 선생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마다 우리 교육가족을 위해서 이처럼 보람된 시상제도를 마련해 주고계신 최원석 공산학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만큼 미래지향성을 가진 활동은 없을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에서도 이미 교육을 미래산업의 한 분야로 분류 해놓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사회가 건강해지고 도덕과 문화의 가치가 더큰 힘을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 지면서, 이러한 교육에 대한 시각도 그만큼 다양해지고 교육환경 또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이야 말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소중한 사명과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란 점입니다.

여기계신 다섯분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알고 있는 우리 교육계 내에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헌신적으로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계신 분들이기에 오늘의 영예스런 수상을 하셨습니다.

이 다섯분 이외에도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2세교육에 헌신하시고 교단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사랑을 쏟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이와같은 시상제도를 마련한 것은 몇몇분의 영예만을 위해서 마련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험난한 사도의 길을 걷고계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교육자로서의 막중한 사명과 역할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다소나마 위안이 되고, 보람을 느낄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본 공산교육상의 보람은 그만큼 클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새로운 가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내야하는 전환기적인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교육가족 여러분께서 지난날 굶주린 배를 움켜쥐었던 시대에서 오늘의 번영을 창조해 주신 바와 같이, 변함없는 의지로 우리 미래사회를 환하게 비치는 등불이 되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수상자 여러분 거듭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가족 여러분의 가내 건승과 행운을 빕니다.

충청남도 문화예술인 대회 격려사

1993년 11월 6일

문화시대

존경하는 충남 문화예술 가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추의 국향이 움츠린 정서에 활력을 주고 풍성한 가을걷이가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고장 문화예술 가족 여러분의 모임에 나와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충남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 주신 공로로 상을 받으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진흥과 문화예술 발전에 힘쓰고 계시는 조창희 예총 충남지회장님과 박노을 문화원 연합회 지부장님을 비롯한 향토문화 예술인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마음속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독창적이고 찬란한 고유문화를 창조해 온 문화민족 입니다.

우리나라를 잘 알고 있는 외국인들은 한결같이 우리의 오랜 전통문화와 문화의 우수성에 대해서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빛나는 우리 말과 우리의 글을 가지고 있고,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학문과 사상을 즐기며, 높은 도덕국가를 지향해온 우리의 정신문화에 대해서 우리들 스스로도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런 우리의 문화는 수많은 외침에 시달리면서, 때로는 굴욕적인 문화침탈을 감수해야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우리의 문화는 일제의 문화말살정책에 짓눌리고, 해방후에는 전쟁과 가난의 뒷전에서 정체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서양문화는 우리 고유의 문화예술 영역을 침식하여 왔고, 오늘날에는 물질적인 풍요에 버금가는 정신적 문화가 뒷받침 되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가치체계의 혼란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를 가꾸지 않거나 천대할 경우, 그 시대의 정신적 기반은 무너질 수 밖에 없고, 나아가 나라의 힘은 쇠퇴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신적·문화적 뒷받침이 없는 물질적 풍요는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제 경제개발의 내실을 다지고 정신적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 창달에 국민적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21세기 선진한국 건설의 바탕을 튼튼히 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고장 문화예술 가족여러분,

앞으로 물질문명이 더욱 꽃피는 21세기는 문화의 가치가 더욱 소중해 지는 문화시대가 될 것입니다.

일찌기 백범 김구 선생께서도 우리 민족이 만들어야 할 나라는 "문화대국"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지방문화 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문화예술의 기반은 그리 튼튼한 편은 아닙니다.

시설도 열악하고 예산도 부족해서 여러분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한 작품이 빛을 볼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백제문화권 개발은 1300여년전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복원 재현함으로써 우리고장 문화예술진흥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우리의 충남은 공업과 농업, 그리고 문화가 고르게 발전됨으로써, 물질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윤택한 삶을 누리는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도민모두는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고장 문화예술 가족 여러분은 21세기를 준비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막중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 고장 문화예술인 여러분께서는 지역의 밝은 앞날을 위해서 격조높은 향토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창작활동과 지방문화 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문화예술 가족여러분에게 거듭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우리 충남문화예술인 여러분의 앞날에 빛나는 성취와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도 방위협의회 합동회의 인사

1993년 11월 9일

효율적 주민신고체제 확립

대전·충남지역 방위협의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맹귀재 백룡부대장님을 비롯한 방위협의회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역 안정과 향토방위에 협력해 주신데 마음속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한·미연합사 주관으로 11. 15부터 5박6일간 실시되는 '93독수리연습이 충실한 훈련이 되게 하기 위해 연습계획을 보고받고, 여러가지 실제훈련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협의를 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독수리연습은 문민정부 출범후 처음갖는 훈련이라는 의의와 함께, '93대전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고 난후에 갖게되는 훈련이라는 점에서 한층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EXPO에는 우리 군에서 참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이 있었으며,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준 군당국에 깊은 신뢰와 큰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EXPO의 성공을 위해 여러가지로 성원해 주신 방위협의회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의 안보 개념은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의 침략에 대한 대비만이 아닌 경제, 외교 그리고 각종 재난등, 총체적인 국가안전보장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전후방이 없는 현대전임을 상기할때 우리 지역은 3군본부와 국가의 핵심 연구단지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이 있는 지역이며, 해상침투가 용이한 서해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중요한 지역방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민·관·군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계신 맹귀재 사단장님과 예하 장병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찬사를 드립니다.

이번 연습의 주안점은 민·관·군·경의 총력 방위지원체제 확립에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민신고가 얼마나 잘 이루어 지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연습기간중 위원님들의 협조와 따뜻한 격려로 훈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드리면서, 끝으로 대전·충남지역 방위협의회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제6회 충남산업디자인전 격려사

1993년 11월 10일

디자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2회 충청남도 산업디자인 전람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 창작활동을 해오시면서 우리 고장 산업디자인 발전에 기여하고 계신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산업디자인 개발은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를 가진 나라에서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과 마켓팅 전략에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상품의 Life Cycle이 짧아지고 소비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세계시장에서 시장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소비자 구미에 맞는 상품을 내놓는 일은 우리 업계의 소중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땀으로 벌어들인 재화의 일부가 기술과 상품디자인 개발의 소홀로 인한 로얄티의 명목으로 재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디자인 분야의 발전은 치열한 경쟁시대에서 우리 상품의 질을 높이고 고부가가치의 상품개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명제입니다.

특히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갖고 있는 우리 고장은 산업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인식의 정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번 개최되는 전람회가 산업디자인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고, 독창적이고 수준높은 창작물들이 많이 발굴, 전시되어 우리고장 산업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뜻깊은 전람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1년동안 산업디자인 협회의 홀로서기에 힘쓰시면서 두번째 전람회를 준비해 오신 이웅직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마음속 깊은 격려와 성원의 뜻을 보내드리며, 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제20회 대일비호대상 시상식 축사

1993년 11월 10일

시대를 밝혀가시는 분들

만장하신 대전시민과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오늘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봉사해 오신 공로로 큰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계신분들을 발굴해서 시상을 해 주는 대일비호상 제도가 어느덧 성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같이 훌륭한 시상제도를 만들어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신 서춘원 대전일보 사장님을 비롯한 사우여러분에게 200만 도민의 성원의 뜻을 보내 드리면서 또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수상자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지난 20년전의 우리 지역사회는 여러모로 매우 낙후된 고장이였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격세지감이 날 정도로 많은 발전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측면에서 타지역보다 뒤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세계적 축제인 '93대전EXPO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서 우리 지역은 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갈 시대적 진운을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9조원이 넘게 투자될 우리 충남의 서해안개발과 충청인의 오랜 숙원이던

백제문화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우리고장은 내일의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미래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이처럼 성장의 바탕을 마련할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온 충청인의 불타는 애향심과 오늘 수상하신 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실천이 그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소중한 덕목이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고, 나아가 지역에 계신 분들의 발전의지와 단합된 힘이 하나로 모아질 때, 우리 지역은 나라발전의 중추지역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때마침 우리사회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선진한국을 지향하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운은 우리에게 새롭게 도약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의 변화와 개혁의지가 지역발전의 큰 원동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창조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 입니다.

모쪼록 오늘 수상하신 분들이 이루어낸 봉사와 헌신의 보람이 더욱 왕성하게 우리고장 곳곳에 뿌리 내려지기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이 시대를 밝혀가는 진실한 일꾼들을 발굴하여 큰 상을 주고 계시는 대전일보 서춘원 사장님과 사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전시민과 충남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11월 11일

지역발전의 반려자

대전일보 창간 43주년을 200만 도민과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대전일보가 그동안 진실된 보도와 공정한 논평으로 지역언론문화 창달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왔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전EXPO'93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서해안 개발과 백제문화권 개발이 본격 가시화되고 있는 우리지역은 21세기 나라발전을 이끌어 갈 미래의 고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이 이러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것은 지역언론의 보람입니다.

우리고장을 보다 윤택하고 질높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가꾸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가꾸는 데 대전일보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가치 창출과 지역민의 역량을 모아가는 지역발전의 믿음직한 반려자가 되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지난 40년이 넘게 민주언론의 대도를 걸어온 연륜과 전통으로 새로운 감각의 언론문화를 이끌어가는 충청인의 사랑받는 신문으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2회 충청남도 생활체육대회 격려사

1993년 11월 13일

건강한 사회의 원동력

존경하는 생활체육 동호인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가을걷이를 마치고 늦가을의 정취 가득한 가운데 제2회 충청남도 생활체육대회가 충절의 고장인 이 곳 예산에서 개최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생활체육 동호인 여러분의 화합의 한마당이 될 이번 행사개최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신 김용철 회장님과 동호인가족 여러분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국민 대다수가 건강과 여가를 위한 생활체육 분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고 난 지난 80년도 후반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생활체육에 대한 역사는 비록 일천하지만 우리 고장에서도 도단위 행사를 치룰 수 있을 만큼 생활체육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동호인도 늘어나고 보급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신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전문적인 생활

속에서 시달려야 하는 현대인은 자칫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생활의 여가를 활용한 생활체육은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높은 생산성을 창조하기 위한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그 의미는 점차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마을마다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건강한 삶을 즐길수 있는 것을 볼때, 아직 이러한 공간이 부족한 우리 나라의 경우도 생활체육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동호인이 늘어나게 되면 이에따른 시설투자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여러분들의 체육활동이 건전한 문화생활의 영역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를 흔히 경쟁사회라고 합니다.

생활체육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파생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칫 잃어버릴지도 모를 소중한 건강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체육은 이 사회를 건강하게 가꾸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승리를 목표로 하지않고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으며, 이웃과 우정을 나누고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스포츠이기에 우리고장을 더욱 건강한 사회로 가꾸어 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모쪼록 오늘 생활체육 동호인 여러분의 두번째 대회가 도민 모두의 화합을 이끄는 축제가 되고, 동호인 상호간의 우정을 깊이하는 한마당 잔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대회준비에 힘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자리에 참석하신 생활체육 동호인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7회 재인 충남도민회 정기총회겸 명감출판 기념식 축사

1993년 11월 15일

자랑스런 정신적 자산

존경하는 정한직 재인충남도민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재인 충남도민회의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도민명감 출판기념식을 갖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늘 고향에 대한 관심과 고향발전을 위해서 성원을 보내주시는 재인충남도민 여러분께 마음속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고향 충남도민들의 따뜻한 인사를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재인 충남도민회 발전과 고향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으신 손석우 재인 부여군민회장님, 도민회 김의경, 원종순 부회장님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재인 충남도민회가 발족한지 7년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민회관을 건립했고, 또 금년에는 도민명감을 출판하는등 재인 충남도민회가 이렇게 활발한 활동과 더불어 거듭 발전하고 있는데 대하여 마음 든든하고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보다 고향을 떠나있는 사람이 고향에 대한 애정이 더 크다고 합니다.

아마 인천에 살고 계시는 50만 도민 여러분의 마음도 다 이와 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충남은 충절의 고장이요, 선비의 고장이며, 도민들의 성품은 온건하고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불의에 대하여는 한치의 양보를 하지 않는 강직한 면도 있습니다.

또한, 유서깊은 민족문화와 뿌리깊은 역사의 향기를 간직하고 있는 자부심 높은 고장입니다.

이렇게 긍지 높고 자랑거리가 많은 우리고장이 한때는 개발 측면과 경제적인 면에서 소외감을 느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차 21세기에는 나라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고장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그리고 서북부지역의 대단위 공단조성, 아산만 일대의 첨단 공업단지 또 백제문화권 관광유적지 개발등이 앞으로 우리고장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전국제일의 농업도, 공업도, 문화도가 되기 위해서 2000년대를 대비하는 지역개발의 청사진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개발계획은 물론 지역에서 부터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충남에 고향을 두신 분들이 힘을 모아 주시고 성원을 해주신다면, 우리고장이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갈 수 있을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충남은 이나라를 이끌어 갈 훌륭한 성품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것 이외에 어느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용, 중도정신이 우리충남도민들의 가슴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자랑스런 정신적 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자긍심으로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발전을 성원해 주신다면, 우리 충남은 물질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훨씬 앞서가는 여러분의 고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향을 사랑하시는 재인 충남도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 고향에 대한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오늘 행사가 재인 충남도민들께서 더욱 단합된 힘으로 화합하고, 고향에 대한 정이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50만 재인 충남도민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제8회 도지사기 쟁탈 시군 남녀궁도대회 치사

1993년 11월 16일

호국스포츠

존경하는 충남 궁도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내빈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유서깊은 백제의 고도인 이곳 공주에서 여덟번째 맞이하는 시군대항 남녀궁도대회를 개최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남궁도의 활성화에 힘써 주시면서 이번 대회준비에 정성을 다해 주신 충남궁도협회 권오중 회장님과 궁도가족 여러분에게 고마운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궁도는 선조들의 숨결과 지혜가 담긴 우리 민족의 전통무술입니다.

동족이라는 별칭으로 불릴만큼 왕성했던 우리의 궁술은 비단 무인뿐만이 아니라 문인들도 궁도 9계훈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인격 수양을 위해서 즐겨 시위를 당겼던 민족 스포츠였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온 호국스포츠 였습니다.

이러한 궁도가 오늘날 다양한 현대 스포츠의 보급으로 궁도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고장의 많은 궁도가족들께서 전통무예의 맥을 이어나가고 있고, 궁도인구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계신 것은 참으로 자랑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해마다 우리 충남궁도가 전국체전에서 상위입상을 하고있다는

데에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남 궁도의 발전과 보급에 힘쓰고 계신 궁도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부는 찬바람이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을걷이도 끝나고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충남도정은 금년에도 서해안 개발과 백제문화권 개발의 본격적인 가시화등, 도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역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줄달음쳐 왔습니다.

우리 궁도가족들께서도 발전과 도약을 거듭하고 있는 저희 도정에 성원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모쪼록 한해를 결산하는 오늘의 궁도대회가 우리 도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스포츠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고 궁도가족 여러분의 하시는 일 모두가 알차게 마무리 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여성자원 봉사자 대회 대회사

1993년 11월 18일

질높은 삶을 누리는 사회

우리고장 여성자원 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역사회 봉사에 헌신적으로 활동해 오신 여성자원봉사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고장에서는 처음으로 여성자원봉사자 대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대한적십자 김영정 구총재님과 내빈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생활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들을 대표해서 오늘 표창을 받으신 여러분들께도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자란 말이 우리의 귀에 익숙해진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활습관이 친지의 일이라면 지나치리만큼 관대하고 정의적 반응을 가져왔지만, 평소 모르고 지내온 이웃에 대하여 냉정하리만큼 관심이 없는 생활속에 길들여져왔기 때문일 것이다.

일찌기 자원봉사 활동이 정착된 구미 선진국 국민들의 사회적 위치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날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생활의 여가를 이용하여 따뜻한 모성애와 여성교육의 섬세한 이웃사랑의 정서를 바탕으로 민간중심의 자원생활이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어, 보는이의 마음을 뿌듯하게 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도 늘어나는 바람직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21세기 지구촌을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려면 물질적인 풍요도 중요하지만, 문화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일등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런 대가없이도 남을 도와줄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건강한 사회, 자랑스런 나라를 우리는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여성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졌습니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지위향상과 능력발휘를 위한 노력을 하므로서 정치적·사회적 위치를 확고히 다지는 한편 소외된 이웃, 그늘진 사회 구석구석을 보살피는 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그 구체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식에 자원활동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오늘과 같은 대회를 갖게된 것은 정말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란 풍족한 생활여건 아래 남는시간을 할애하여 남에게 봉사한다는 소극적 의지의 활동은 아닐 것입니다.

나는 지난 4월 논산화재사건때 수백명의 희생자 가족을 밤새워 돌봐주는 새마을부녀회원들의 모습에서 큰 감명을 받았으며 대전EXPO기간중 3,000㎞의 꽃길을 가꾸는 과정에서 자원봉사하는 여성회원들의 헌신에 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밖에 우리 부녀회원들은 쓰레기 분리수거, 깨끗한 국토환경가꾸기, 교통질서 확립등 여러분야에 어려움 무릅쓰고 기꺼이 참여하는 넉넉한 인정의 꽃을 피우는 장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도민 한사람 한사람이 지역 공동체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가꾸려는

의지를 가지고 실제로 행동에 옮길때, 우리 지역은 보다 질높은 누리는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대회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참여가 폭넓게 확산되고, 보다 많은 여성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지역에서 어렵고 힘든일을 기쁨과 보람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해오신 여성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찬사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9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도정연설

1993년 11월 20일

활기찬 도정, 희망찬 충남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만 도민의 전당인 도의회 정기회 199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도정의 중점 방향과 주요시책의 대강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신한국 건설의 원년인 올해에 여러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다양한 기대와 욕구를 수렴하고 자치 도정의 기틀을 튼튼히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우리 역사에 큰 획을 그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30년만에 출범한 문민정부는 그동안 우리사회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온 고질적인 한국병을 치유하면서, 광범하고 신속한 변화와 개혁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던 각종 규제와 관행이 철폐되고, 도지사를 비롯한 1만5천여 공무원들은 위로부터의 개혁의지와 도민의 여망을 받들어 도민을 위하여 다시 태어나는 자세로「깨끗한 공무원, 봉사하는 공무원, 창조하는 공무원상」의 실천에 노력한 결과, 도민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기풍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잘못된 제도, 관행, 행태를 도민의 입장과 시각에서 과감히 쇄신하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와 행정쇄신 과제의 실천에 노력함으로써 도민들 사이에 「공무원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게 된 것은 올해 도정의 값진 결실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년초에 계획 하였던 도정의 과업들을 하나하나 달성하는 보람을 이루어 왔습니다.

정부의 「신경제」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에 노력하였고, 백제권개발을 위한 특별지역의 지정으로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이 해결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사업규모의 확대로 인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뻔했던 보령댐 건설사업의 국가이관이 이루어지고, 꽃길 조성등 대전EXPO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등 지역발전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전국적인 이상기후로 농작물의 피해가 컸습니다만 병충해 방제와 냉해피해 최소화에 노력한 결과, 우리 도는 그 피해를 크게 줄일수 있었던 것도 소중한 보람이라고 생각하며, 격정을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각종 사업이나 시책이 도민과 약속한 대로 알찬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것을 말씀드리며, 금년도 도정의 성과와 교훈을 거울삼아 내년도에 우리 도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94년은 문민정부 출범 2차년도로서 우리 사회는 안정속에 변화와 개혁을 이룩하는 신한국창조의 역사적 과업이 정착되는 소중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 국제적으로는 동서냉전체제의 와해로 국가간의 이기주의 경향에 따른 경제전쟁, 기술전쟁이 심화되면서 무역개방의 파고는 더욱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는 한발 앞서 변화하고, 한걸음 먼저 추진을 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속에서 국가적으로는 신경제의 추진성과가 가시화되면서 국민경제의 활력을 점차 되찾게 될 것으로 보이며, 국토 균형개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증대되어 중서부 내륙지역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뒷받침 되리라고 봅니다.

또 내년에는 지방화 추세에 따라 지방의 권한과 책임은 더욱 커지는 한편, 지방재정의 확충은 본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주민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로서는 도민 각계각층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노력하되, 우리 지역을 향해 열리고 있는 개발의 호기를 최대한으로 살려서 21세기를 향한 도종합개발 계획의 장기적 청사진을 내실있게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94년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면서 내년도 도정의 기본목표를 「활기찬 도정, 희망찬 충남」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충남은 국토의 중심지에 위치한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서, 농업·공업·문화가 화합을 이루는 살기좋은 고장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도정을 활성화하고 모든 역량을 하나로 묶어 「희망찬 충남」의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이같은 도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① 1만 5천여 공무원은 심기일전하여, 신한국건설의 지방적 실천과제를 책임있게 완수하여 국가발전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② 1차산업에 편중된 우리 지역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농업과 공업, 관광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고도의 산업구조로 전환하므로서 2000년대 충남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며

③ 민원처리의 획기적 개선과 행정행태의 선진화에 노력하여 도민본위의 참봉사 행정을 정착시켜 나가는등 3가지로 설정하여 내년도의 도정을 운용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같은 기본방향아래 내년도 도정의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를 향한 희망찬 충남발전의 기틀을 확립해 나가는데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최근 우리 충남은 서해안 개발과 한중수교 그리고 경부고속철도와 서북부지역의 대규모 공업벨트 형성등 공업진흥과 태안해안국립공원 개발·백제문화권 개발등 관광기반의 확충으로 개발여건이 호전되면서 새로운 국가발전의 중추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충남은 진정 「희망찬 활력의 고장」이 될 것입니다.

도에서는 이같은 개발여건과 이점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면서 충남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 나가는데 정성과 슬기를 모아나갈 작정입니다.

먼저, 2000년대 충남개발의 청사진으로 현재 중앙에 승인검토중에 있는 「제2차 건설부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계획이 명실상부한 「지역발전 종합계획」이 되도록 단위사업별로 세부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년도인 2001년까지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므로서, 전국 제1의 「농업도·공업도·문화도」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백제권 개발사업이 본격 착수되는 원년으로 완벽한 추진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이와 함께, 금강종합개발 계획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젖줄인 금강을 개발하고 가꾸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므로서 이 두가지 개발계획이 보완적·상승적 개발효과를 거두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업도」로서의 위상를 확립하기위한 공업기반 확충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도 공업화 시책은 서해안 개발사업의 추진과 함께 수도권에서 팽창되는 유수의 기업체들이 가까운 우리도에 속속 입지하므로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만, 타도에 비하면 그 내용면에서나 구조면에서나 아직도 열세에 놓여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산만에서 서산지역에 이르는 서북부 공업벨트는 수도권과 연접된 매력

있는 투자지역임을 많은 기업들이 간파하고 있으며, 우리지역에 공장을 세우고자 하는 경우 최선의 편의를 제공 하는등 전국에서 가장 투자할 만한 충남이 되도록 하여 신규공장 유치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도에서는 서해안개발의 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업체의 본사 유치와 함께 유망 중소기업체를 적극 유치하는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는데 역점을 두어 공업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도에는 국가공단을 포함, 지방공단과 농공단지가 총 51개 단지에 1,500만평이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에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14개소 547만평의 지방공단과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공업도로서의 기반을 조기에 실현해 나가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특히, 건설부에서 추진중인 「광역아산만권 종합개발사업」을 염두에 두고 도차원의 개발사업들을 모색해 나가면서 천안~온양~당진을 잇는 역삼각형 지대를 새로운 공업지대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도 전진적으로 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단개발이 우리의 삶의 터전인 환경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도민생활의 편익을 높이고 확충하는데 보다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발전의 척도로 평가되는 도로망을 적극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의 국도 4차선율은 92년말 현재 5.9%로 전국 평균 12.2%에 비해 크게 뒤지고있고, 지방도포장율도 75%로 매우 낙후된 실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도로망 확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만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중앙과의 긴밀한 협조속에 국도의 4차선율을 높이기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대전~당진~서산간 고속도로 건설준비, 지방도로의 확포장 사업, 특히 마을간을 잇는 농어촌 도로 확포장에 투자를 크게 확대 하겠습니다.

도로와 함께 용수문제 또한 지역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이의 안정적

확보을 위한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이관된 보령댐 건설사업은 그 규모나 시설및 내용면에서 조금도 변동이 없이 서북부지역의 물문제를 해결해 나갈수 있도록 도에서 추진하는 것과 다름없는 자세로 협조와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건설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서 나가면서, 상하수도 시설확충, 도시가로수 정비등 도시기반시설을 늘려나가는데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충남」의 새로운 면모를 가시화 해 나갈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을 민자유치등의 방식으로 적극 추진 하면서, 태안 해안국립공원과 백제지역등 내륙관광지역, 그리고 유수의 온천지역을 연결하는 관광개발로 1인당 국민소득 1만 5천$ 시대부터 본격화될 레져 시대에 맞춰 충남도의 관광상품성을 부각시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활력있는 농어촌 건설의 촉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농어인구 비율이 40%, 농경지 비율은 32%로서 각각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농업도로서 농어촌개발이 지역산업발전을 이끄는 기본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의 고향이며 생명산업의 바탕인 농어촌에 대한 소망을 다지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돌아오는 농어촌」이 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심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에, 저는 농어촌의 활력 회복과 농어민의 사기진작에 도정의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목표년도가 1998년도로 3개년 앞당겨짐에 따라 기간중 우리 도에서 약6조원을 영농기반 정비, 시설현대화, 수출촉진사업등에 투자하되, 종래의 관주도 추진방식을 탈피하여 농어민의 참여와 자율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시장 개척단파견을 지원해서 기업의 판로확대를 도와 나가겠습니다.

올해초 우리는 대기업들의 장기화된 노사분규를 지켜보면서, 노사안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도에서는 이같은 대형 노사분규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노·사가 한가족처럼 화합하는 가운데 산업평화의 기틀이 공고히 다져질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제활동의 근간이라 할수 있는 지방물가의 안정에도 큰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물가안정은 곧 경제안정의 시발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개인서비스요금 관련 단체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해나가면서, 고질업소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단체나 명예모니터등 시민의 가격감시 기능를 활용한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민소득 7,000$ 시대의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도 성장의 그늘진 곳에는 가난과 외로움에 고통받고 있는 도시영세민, 장애인, 무의탁노인, 소년소녀 가장등 불우이웃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 복지는 지방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2000년대를 향한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여 착실히 실천함으로써 이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밝은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기본생계의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는 생활보호수준을 연차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노인들이 보람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시설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현실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의 관심을

제고시켜 건전한 청소년 성장의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어려운 청소년들의 자활능력 배양과 소외감 해소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최근들어 맑은 물, 깨끗한 공기등 쾌적한 환경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도내 모든 상수원이 97년까지 1급수의 수질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한 공업화, 축산화등에 따른 환경파괴 요인에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을 계발하는 한편, 공해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사명감을 갖고 불법배출을 색출해 냄으로써 「산업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면 망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강력한 환경 보전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에는 「건강한 국토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온 주민의 슬기를 모아 우리고장을 쾌적하게 가꾸는 일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당면과제가 되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면서 분리수거를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에도 힘쓰는 한편, 위생 매립장과 소각로등 처리시설의 현대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안정과 건강한 사회구현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안정은 지역개발의 원동력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안정속에서만이 도민의 의지와 힘이 하나로 모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대형사고와 재난에 대한 대비태세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우리도에서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인식아래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모든 공사장과 취약시설, 그리고 교통시설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한 보완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또,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확립하여 각급 기관·단체장이 참여하는 「재해예방대책회의」를 구성해서 사고의 예방과 수습에 대하여 폭넓은 공동대응 노력을 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안정을 깨뜨리는 돌발사고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조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개량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므로서 대형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지금 우리는 그 어느때 보다도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일상생활속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창단에 의한 높은 수준의 건전한 정신문화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물질적 풍요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퇴폐문화를 창궐시켜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따라서 도민들의 건전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기위한 노력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이를 위해 문화예술공간을 확대하고,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우리 충남은 찬란했던 백제문화의 유산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이 높은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훌륭한 조상의 얼과 문화적 유산을 보존·발전 시켜 나가는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체육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94년 대전체전을 대비하여 충남체육의 긍지를 빛낼 우수 선수의 발굴·육성에도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새정부의 출범이후 우리는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의 흐름 속에서, 행정내부의 제도와 관행, 형태를 도민의 입장과 시각에서 재검토해서 이를

바로잡아 나가므로서 「참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공직자가 「신한국」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의 선봉으로서 기강을 엄정히 세우는 가운데, 높은 사기위에서 도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충실히 해나가는 민주공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와 독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1만 5천여 공무원이 새로 태어난 「활기찬 도정」을 펴 나가므로서 「희망찬 충남」건설에 매진할 것을 거듭 다짐드립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시책과 사업은 중장기적 계획아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우선 내년도 사업을 위한 예산안은 일반 회계 5,514억원, 특별회계 3,185억원등 총 8,69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도민들의 생활민원 해결과 개선에 촛점을 두면서, 지역균형개발 촉진과 농어촌복지 증진사업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창조의 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충남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뒤진면이 있습니다만, 21세기 서해안시대를 맞아 나라발전의 중추지역으로 부상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뒤늦은 개발이 더 좋게 개발되는 큰 가능성을 지닌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보람있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창조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우리 충남에 봉직하고있는 1만5천여 공무원은 힘을 합쳐 「활기찬 도정」을 펴나가므로서 「희망찬 충남」건설에 매진할 것을 거듭 다짐드립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분발하고, 의원여러분의 기탄없는 지원이 뒷받침 되는 가운데, 도민의 참여가 함께 한다면 「희망찬 충남」은 우리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곳 도민의 전당에서 고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다짐하면서, 200만 도민 모두가 「희망찬 충남」의 역사를 창조하는 역군이 되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갈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외 농산물 포장재 전시회 인사

1993년 11월 24일

하이터치 농산물

오늘 우리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판로확대를 위한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시상식과 함께, 국내외 농산물 포장재 전시회에 나와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지철 세종대 산업디자인 연구소장님 도의회 위원님, 부여군 의회 그리고 이진규 농촌지도자 연합회장님, 박병호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장님, 이종우 충남4H연합회장님 그리고 우리농촌을 지키면서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계신 농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독특하고 참신한 농산물 포장재를 개발하여 상을 받으신, 수상자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리면서 엄정한 심사를 해 주신 심사위원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유무역주의를 구현하는 세계 무역시장은 우리 농업분야에서도 예외없이 개방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냉엄한 국제환경과 시장경제 윤리는 누구도 막아낼수 없는 엄연한 현실로서 체계적 계획과 준비가 별로 없는 전통적인 우리 농촌사회를 마구 흔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이 취약한 구조와 낮은 생산성을 갖고있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수산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농민 스스로의 자구 노력은 물론 국민의 애정과 성원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는 우리농촌을 일으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신농정계획」을 세우고 농어촌 구조개선 10개년계획을 앞당겨 실시키로 하고 있는 것도 하루빨리 우리농촌을 다시 일으켜「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듦은 물론 우리 농업으로 가꾸려 하는 의지입니다.

외국 농산물이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해 들어 온다면 이에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우리 또한 외국에 우리 농산물을 수출하는 적극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 농산물을 찾아내고 자꾸 개발해 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들의 국제경쟁력을 분석해서 경쟁력이 없는 작품은 과감히 포기하고, 그대신 경쟁력이 있거나 조금만 더 노력하면 경쟁력이 생길 작목들을 선정 발표하고 이들 작목에 대하여는 생산기반 조성 생산기술의 개발 보급 그리고 시장 개척등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일부 농가에서는 벌써 세계 어느나라 민족에게도 지지않는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많은 농민들이 줄이어 이러한 기술농업의 대열에 동참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민도 첨단농업 기술을 과감히 도입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해 내는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에 주력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성향상 못지않게 우리 농산물이 외국농산물과 경쟁하려면 상품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포장재를 개발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속담에 보기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있고 기왕이면 다홍치마란 말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농산물의 포장기술이 단순하고 세련되지 못하다는 것을 소비자나 농민 스스로도 절실하게 느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농산물 포장재 공모와 전시행사는 농산물 포장디자인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우리농산물의 판매가격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마련된 행사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가 농산물 포장재의 다양한 연구와 개발되고 농민들께서 농산물 포장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폭넓게 확산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전시회를 준비하신 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93 충남 4H시상식 및 건전한 국토가꾸기 전진대회 치사

1993년 11월 25일

기술농업

친애하는 충청남도 4H가족 여러분,

그리고 평소 따뜻한 애정으로 우리4H회원들을 지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고 계시는 김일생4H 지도회장님과 이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주신 도의회 이대희 의장님, 농촌지도자회 이진규 회장님, 농민후계자 박병호 회장님, 축협도지회 김정식회장님, 그밖에 내빈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충남농업의 요람인 이곳 농업진흥원에서 「93충남 4H시상식」과 함께 건전한 국토 가꾸기 전진대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농촌의 최일선에서 농업을 지키며 4H 활동의 모범을 보여온 공로로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올해는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여름철 저온현상과 가을철 우박등으로 농사에 많은 피해를 입었던 한 해 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자연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해 주신 4H회원과 농민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4H 가족 여러분,

지난 1947년, 우리농촌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4H운동」은 올해로 46년이라는 긴

역사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4H 선배들은 슬기로운 노력과 봉사활동으로 그토록 힘겨웠던 보리고개를 극복해 냈고 60년대의 재건국민운동, 70년대의 녹색혁명, 80년대의 비닐농업개발등을 선도하면서 농업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 농촌이 그래도 이만큼 성장 하게된 배경은 바로 4H활동이 그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 농업시장은 엄청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농업 분야에서도 경제전쟁, 기술전쟁, 정보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나라 농업은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도전과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에 「신농운동」을 제창하고 신농정 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농어촌 구조개선대책 10개년 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고 우리나라 농업을 기술농업, 고품농업, 지속농업, 수출농업으로 육성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앞으로 21세기에는 전국 제일의 농업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어촌을 다시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가꾸겠다는 의욕에 찬 농어촌 발전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농촌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식도 달라져야 하고 선진농업의 주체도 바로 우리 농민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앞에 놓여 있는 과제는 분명 엄청난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역량이나 의지도 그만큼 강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선진농업으로 가는길은 끊임없이 연구·노력하고 실천하는 젊은영농인들에게 달려있습니다.

패기 넘치는 4H회원들이 주축으로 되고 농어민과 정부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힘을 모아 나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는 기술농업을 과감히 실천함으로써 세계 어느나라 농민에게

뒤지지 않는 높은 수준의 소득을 올리면서, 우리나라 농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과시하고 있는 여러분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많은 영농종사자들이 줄을 이어 이러한 기술농업의 대열에 흔쾌히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농업에도 첨단기술을 과감히 도입해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국외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나아가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적극적인 기술농업에 주력할 때입니다.

자, 우리모두 힘을 냅시다.

충남농정을 이끌어가는 도정의 책임자로서 농민들께서 땀흘리는 현장 기쁨과 고통이있는 현장에 본인도 늘 함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4H활동에 전념해오신 박종우 회장을 비롯한 4H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와 성원을 보내 드리면서 4H가족여러분과 내빈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광, 교통친절운동 발기대회 치사

1993년 11월 27일

다시찾고싶은 고장

충청남도 관광, 교통 가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고장 대표적 관광온천지인 이곳 온양에서 '94 한국방문의 해의 성공적 추진을 다짐하고 관광수입 100억불 달성과 친절풍토의 구현을 위한 친절운동 발기대회를 갖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고장 관광교통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땀흘려 일하시고 계신 장월근 충남관광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국민들이 관광사업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것은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찾기 시작한 지난 88올림픽 전후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을 방문했던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의 전통문화와 뿌리깊은 역사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는것으로 보아서도, 우리는 확실히 훌륭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유서깊은 전통문화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하는데는 그동안 너무나도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9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정하고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는 것은 정말 뜻깊고 소망스런 일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94년 한국방문의해 준비에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보다 많은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외국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우선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두번째는 교통불편이라고 합니다.

특히 일부 몰지각한 택시운전자의 불친절과 바가지 요금은, 외국에까지 정평이 나있어서 한국의 이미지를 흐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숙박시설 부족으로 인한 호텔요금의 불안정이 새로운 불편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성 자체가 외국관광객에 대한 친절의 생활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차 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이 다시 일어선 원동력은 바로 친절이 몸에 밴 국민성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속담에 "웃는 낯에 침 뱉으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친절은 바로 관광사업의 소중한 자원 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친절한 한국인상"정립에 우리모두의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관광서비스업 종사자부터 친절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하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94 한국 방문의 해를 한달 앞둔 오늘의 관광, 교통친절운동 발기대회는 매우 뜻깊은 행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대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충청남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친절운동이 정착이 되고, 도민 모두가 이 운동에 동참하고 생활화하는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충남 관광발전과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모든분들의 노력에 대해서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다시오고 싶은 한국 인상깊은 고장 친절한 도민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93 농촌지도자 대회 치사

1993년 11월 30일

사람이 중요

존경하는 충청남도 농촌지도자 가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도의회 이대희 의장님과 내빈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고장 농촌지도자 가족들께서 한자리에 모여, 개방화시대를 맞이하는 농촌지도자의 역할과 단합된 힘을 다지는 농촌지도자 대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농촌개발을 위해서 힘써오신 공로로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그 어느해 보다도 우리 농촌의 어려움이 컸던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여름철의 이상저온 현상과 우박피해, 그리고 최근의 배추값파동, 추곡수매와 쌀개방 압력등으로 우리 농민은 물론,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에게도 큰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촌이 안고있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신 농민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농촌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계신 이진규 회장님을 비롯한 농촌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촌시대를 살고있는 오늘의 세계는 국제화, 개방화로 치닫고 있고, 이른바 냉혹한 국제 경쟁시대에, 우리 농업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각국의 이해관계로 진통을 겪어왔던 UR협상의 타결가능성이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농민들의 걱정은 정말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일 났다고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미국사람도 일본사람도 아닌, 바로 우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개방화의 국제적 흐름속에서도 그 폭과 시기등, 여러 분야의 협상을 통해 우리 농민들에게 될수 있는 한 유리한 대안을 추구할 것이며, 아울러 UR협상 타결후,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책들을 다각도로 강구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 우리 농민들은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림어업 분야에서 높은 생산성을 확보함으로서 우리농업의 활로를 찾는 슬기와 용기를 지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분명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신농운동을 제창하고 우리농업을 기술농업, 고품농업, 지속농업, 수출농업으로 육성하면서,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구조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농정」은 정부의 개혁의지와 함께, 이시대가 우리 모두에게 부여한 농림어업분야에 대한 새로운 과제입니다.

새로운 것은 늘 저항과 진통을 겪게되고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하더라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이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면, 우리 농업의 선진화는 훨씬 앞당겨 실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우리고장에서도 기술농업을 지향하고, 농사를 과학화 시켜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영농인들이 늘고있고, 이러한 추세가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 미래농촌의 주역은 농촌지도자 여러분께서 이끌고 계신 젊은 영농인들입니다.

우리 농정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젊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들의 생각과 창조적인 노력에 의해 우리 충남농업은 발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농어촌발전기금도 조성하고, 농어촌발전대상도 마련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전국제일의 농업도가 되고자 하는것이 우리 충남농정의 의지입니다.

각종시책이나 생산기반, 인재육성, 유통체계 연구시설, 주거환경등에서 제일 먼저 앞서가는 충남농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농정의 주체가 굳게 단결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농촌이 처한 오늘의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려는 과학영농의 실천만이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우리 농촌지도자 가족들께서도 이러한 과학영농 추진시책을 성원해 주시고 선도적 참여와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농촌지도자 여러분,

오늘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지도자 여러분의 성숙된 의지와 화합된 힘을 더욱 굳게 다지는 대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도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93년 12월

12월 월례조회 훈시

1993년 12월 1일

금년도 업무의 알찬마무리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을 맞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각자 나름대로 공·사적인 측면에서 한해를 뒤돌아 보고 미진했던 분야를 잘 정리해야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다지면서 어떻게 하면 새해설계를 잘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맞을 수 있을까 하는데 우리들의 마음을 쓰게 됩니다.

이제 올해의 마지막 월례조회를 맞으면서 지난 한달도 여러분들이 합심하고 노력해서 각종 사고방지 대책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아무일 없이 모든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므로서 올해도 좋은 마무리를 맞게 된 점에 대해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고장의 지역사회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오심으로 인해 「자랑스런 신한국인 상」을 수상하신 홍성군의 박승규 교사와 아산군의 최규명 목사님 두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 묵묵히 자기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기관의 발전과 도정의 발전에 공헌하여 귀한 상을 받게 되신 기관부서의 대표자와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계유년 한해를 보내면서 지난 1년간을 회고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2월 하순 새정부 출범이후에 우리나라는 신한국 창조의 역사적 물결속에서 참으로 많은 변화와 개혁을 이룩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도정면에서도 이러한 신한국 창조의 과업을 수행하면서 여러면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먼저 국정면을 보면 금년 한해는 외교적인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7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김영삼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고, 지난 11월에는 호소카와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APEC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한신 후 지난 11. 29일 국회에서 「넓은 세계, 밝은 미래로」라는 제목의 귀국연설을 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계사를 이끌 중심무대가 될 것이다.

이번 APEC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비중이 아주 몰라 보게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과거 청산의 개혁과 함께 미래를 향한 개혁, 국제화를 위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되겠다"고 역설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세계로, 미래로」나가자고 호소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모두 경청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이 귀국보고 연설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통치이념과 국정추진 방향을 잘 읽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공무원들은 이러한 대통령의 이념을 잘 받들어서 각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이를 행정적으로 구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올 한해는 사회·경제적으로도 많은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침체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 새 정부 수립과 동시에 「신경제 100일계획」을 수립해서 참으로 열심히 노력해 왔고, 뒤이어 「신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앞으로 김영삼 대통령 통치기간중의 경제추진 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웃 일본에서도 감히 손을 못대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했고, 또한 많은 걱정을 해오던 대전EXPO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사기를 한껏 고양시키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차례의 대형사고가 일어남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놀랐고, 정부의 신뢰도에 많은 금이 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대형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재해예방에 우리 공직자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뒤돌아 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한해동안 우리 도정에서도 안정속에 성장과 발전이 착실히 추진되었습니다.

새정부의 개혁 의지와 우리 도민들의 여망을 받들어서 1만 5천여 우리 충남 공직자들은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깨끗한 공무원, 봉사하는 공무원, 창조하는 공무원상」을 구현하고자 참으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에 힘입어 우리 도정전반에 새로운 개혁과 변화의 기풍이 확산되면서 우리 모든 공무원들은 「참봉사」구현에 앞장서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 4. 1부터 추진한 행정쇄신업무라든가, 5. 10부터 시행한 「민원1회 방문처리제」등은 내무행정의 새지평을 여는 주민 위주의 행정혁신으로서 참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신경제 계획에 발맞춰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지방 물가 안정에도 큰 힘을 기울여서 우리 지역의 물가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1993년을 마무리해야 될 12월을 맞이해서 당면사항 몇가지만 각별히 여러분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연초와 연중에 도민들과 약속한 각종 계획들이 당초 목표대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연말까지 우리가 지향했던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직도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과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시고, 그렇다고 해서 때늦은 과잉추진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달에는 알찬 새해설계를 해야 될 때입니다.

각 실국별로 내년도 계획을 구체화하되 지금 열리고 있는 금년도 도의회 정기회에 적극 대응하여 내년도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지난 11.20 도의회 정기회에서 저는 「9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도정연설」을 통해서 우리들이 힘을 합쳐 노력함으로써 「활기찬 도정」을 펴고 이로써 「희망찬 충남」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는 의회에 대한 보고뿐만 아니라 우리 200만 도민에대한 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의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정연설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됨으로써 의회와 도민에 대한 약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해 드립니다.

지난 10, 11월 두차례에 걸쳐서 우리 충남도내 각급기관·단체, 그리고 개인회사에 이르기까지 망라된 재해예방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관한 민·관·군의 공조노력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대형사고의 원인은 언제나 설마하는 방심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우리지역에서도 언젠가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예상해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계속점검·정비를 해야될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겨울철이 닥치면서 연탄·가스사고 및 생활연료 수급대책, 폭설로 인한 교통장애등 모든 분야에서 도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 영세민, 소년·소녀가장들과 사회복지시설에 수용 되어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연말 추위속에서 애로없이 지낼 수 있도록 관심을 쏟고 지원을 해줌으로써 같이 연말을 즐기고, 함께 잘사는 훈훈한 인정의 꽃을 피워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검소한 생활기풍이 달성되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특히, 12월 중순이되면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방학과 크리스마스등 청소년들이 들뜨기 쉬운 분위기 속에서 탈선의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과 사회를 이끌어 가야할 공직자들이 검소한 연말보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솔선수범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사정파동과 각종 인사설로 우리 공직사회가 다소 동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시대 어느 상황에서건 우리 공직자들은 나라위해 헌신 하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각자 맡은바 자기직무에 성의를 다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흔들림없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의젓한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아까 공무원 윤리헌장 낭독에서도 우리들의 결의를 다진 바 있습니다마는, 연말 연시를 앞두고 우리 공직자들이 나라위해 헌신하는 귀감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해드립니다.

이제 12월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냄으로써 마지막 남은 세모의 한달을 보다 의미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12월에는 날씨도 춥고 우리 일도 바쁩니다.

여러분 각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운과 건승이 가득 하시기를 빌어 마지 않았습니다.

월간 화보 청풍 12월호 명사칼럼 기고

1993년 12월 1일

희망찬 충남의 미래

94년 희망찬 충남건설에 주력,

금년은 우리역사에 뚜렷이 남을 한해였다.

30년만에 출범한 문민정부는 그동안 우리사회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온 고질적인 한국병을 치유하면서 광범위하고 신속한 변화와 개혁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100여년 이상 걸리던 근대화 과정을 그 절반도 안되는 기간에 달성함에 따라 파생된 무질서와 물질만능주의 그리고 부정부패등 한국병을 치유함이 없이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고통분담을 통한 개혁과 쇄신으로 신한국 건설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금년 한해동안 1만5천여 충남도 공직자들은 도민을 위하여 다시 태어나는 자세로 깨끗한 공무원, 봉사하는 공무원, 창조하는 공무원상의 실천으로 도정발전에 노력하였다. 이에 「공무원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평이 도민사이에 나오고 있음은 올해 도정의 큰 결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와함께 올해 1년동안 정부의 신경제 계획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한 지역의 오랜숙원이었던 백제개발의 특정지역 지정이 이루어

짐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도내의 주요관광지를 연결하는 국도변에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여 우리도를 찾는 엑스포 관광객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준 것도 보람을 거둔 일이었다.

특히,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해 전국적으로 보아 농작물의 냉해가 컸으나 농민과 공무원이 합심하여 병충해 방제와 냉해피해 최소화에 노력한 결과 우리도는 그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하여 도민과 도정이 함께하면 지역발전을 위한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으며, 이러한 바탕위에서 다가오는 94년에는 활기찬 도정으로 희망찬 충남을 건설하는 해가 되도록 할 결의를 다지고 있다.

94년도에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여건은 기술전쟁, 경제전쟁 등 국가간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무역개방의 파고도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신경제의 추진성과가 가시화되면서 국민경제의 활력을 점차 되찾게 될 것으로 보이며 국토균형개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증대되어 저개발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로서의 도민 각계각층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노력하되 우리지역을 향해 열리고 있는 개발의 호기를 최대한으로 살려서 21세기 서해안시대를 향한 장기적 청사진을 내실있게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최근 우리 충남은 서해안 개발과 한중수교 그리고 경부고속철도화와 서북부지역의 대규모 공업벨트 개발 등 공업진흥과 태안해안국립공원개발, 백제문화권 개발 등 관광기반의 확충으로 개발여건이 호전되면서 새로운 국가발전의 중추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여건의 성숙과 함께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지역 개발에 대한 도민의 욕구가 솟구치고 있음을 도내 어디를 다녀보든지 느낄 수가 있다.

이러한 도민의 여망을 바탕으로 94년도에는 활기찬 도정을 펼쳐 나감으로써 희망찬

충남건설의 한해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도가 전국 제1의「농업도·공업도·문화도」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2001년도를 향한 도건설 종합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 계획은 도전역을 4개권역으로 나누어 천안, 아산, 서산 등 북부지역은 첨단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신산업지대로, 태안, 보령, 서천 등 서해안 지역은 천혜의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수산업·관광 휴양지대로, 홍성, 예산, 청양 등 서부 내륙지역은 지역 특산물을 특색있게 육성하는 선진 농업지대로, 공주, 부여, 논산 등 남부 내륙지역은 백제문화 관광지대로 중점 개발해 나가는 계획이다.

특히, 백제문화권의 개발은 백제시대의 생활상과 문화를 재현하는 부여 백제역사촌과 학습 휴양기능을 갖춘 공주 문화관광단지를 연결하는 백제큰길을 건설하면서, 아울러 부여와 공주를 역사 유적도시로 정비하므로 2001년까지 역사 교육과 관광의 명소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리지역의 젖줄이 되어온 금강을 치수사업, 강변공원화사업, 수질보전사업 등의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본격 개발하므로써 백제권개발과 금강개발이 상호 보완적 상승적 개발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아산만에서 서산지역에 이르는 서북부 공업벨트는 수도권과 연접되어 있는 매력있는 투자지역임을 많은 기업들이 간파하고 있으며 우리지역에 공장을 입지코자 하는 경우「내 형제가 기업을 한다」는 자세로, 행정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전국에서 가장 투자할만한 충남」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이와함께 기업체의 본사와 유망 중소기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기술과 정보 등을 지원함으로서 세계속의 충남상품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중인「광역 아산만권 종합개발사업」을 염두에 두고 도 차원의 개발사업들을 모색해 나가면서 천안~온양~당진을 잇는 역삼각형 지대를 새로운 공업지대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도 전진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공업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공업화의 노력은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병행되지 않으면 바람직한 성과를 얻기가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도의 국도 4차선율은 5.9%로 전국평균 12.2%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고, 지방도 포장율도 75%로 매우 낙후되어 있어 충남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로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중앙과의 긴밀한 협조속에 국도의 4차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대전~당진~서선간 고속도로 건설준비, 지방도로의 확포장 사업, 특히 마을간을 잇는 농어촌 도로 확포장에 투자를 크게 확대해 나가겠다.

도로와 함께 용수문제 또한 지역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국가사업으로 이관된 보령댐건설사업은 그 규모나 시설 및 내용면에서 조금도 변동이 없이 서북부지역의 물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에서 추진하는 것과 다름없는 자세로 협조와 지원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관광충남의 면모를 가시화해나갈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민자유치의 방식으로 적극 추진하면서 태안해안 국립공원과 백제권 특정지역 등 내륙 관광지역, 그리고 유수의 온천 지역을 연결하는 관광개발로 1인당 국민소득 1만 5천불 시대부터 본격화될 레져시대에 맞춰 충남도의 관광가치성을 부각시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도는 농업인구 비율이 40%, 농경지 비율이 32%로서 각각 전국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도이며, 농어촌 개발이 지역 산업발전을 이끄는 기본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의 고향이며 생명산업의 바탕인 농어촌에 대한 애정과 소망을 다지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돌아오는 농어촌」이 실현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갖고 농어촌의 활력회복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농어민의 사기진작에도 도정의 큰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등 쾌적한 환경에 대한 도민들의 높아가는 기대와 욕구를 반영하여 도재 모든 상수원이 97년까지 1급수의 수질이 되도록 한 목표아래, 공해 배출업소에 대하여 사명감을 갖고 불법배출을 색출해냄으로써 「산업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면 망한다」는 인식이 들도록 강력한 환경보전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지금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도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일상생활속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문화예술의 창달에 의한 높은 수준의 건전한 정신문화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물질적 풍요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퇴폐문화를 창궐시켜 사회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도민들의 건전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화공간의 확보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94년에는 적극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 충남이 현재로서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뒤진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21세기 서해안시대를 맞아 나라발전의 중추지역으로 크게 부상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 도민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우리지역의 뒤늦은 개발이 오히려 부작용을 피하면서 더 좋은 개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가 고향 지사로 부임한 이후 각계각층 도민과의 만남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200만 도민 모두의 앞에는 희망찬 충남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

「깨끗한 공무원, 봉사하는 공무원, 창조하는 공무원」으로 새롭게 달라진 공무원들이 「활기찬 도정」을 펴 나가고 200만 도민의 참여가 여기에 함께 한다면 「희망찬 충남」의 미래는 우리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확신한다.

1993년 12월 7일

고품격의 문화시대 창출

충청남도 산업미술대전이 일곱해를 맞이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고장 상품발전과 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다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이미 제품을 기술력만으로 만들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산업미술이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 세계적인 기업들의 일류 상품을 눈여겨보면 먼저 미적감각에서 한발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세한 우리 충남의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시대를 극복하여 홀로서기 위해서는 생산성향상과 기술개발은 물론 더욱 다양한 상품개발과 미적감각이 뛰어난 제품을 내놓을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21세기는 문화예술이 대중화를 이루는 문화시대가 될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적인 욕구충족을 위해서도, 고품격의 문화공간 창출을 위해서도, 우리의 생활 가까이에서 느낄수 있는 산업미술의 발전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충남미술대전은 지역산업발전에 더욱 큰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영예의 수상자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산업발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작품개발에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행사준비에 힘써주신 예총 충남지회 조창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여러분과 심사위원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해 드립니다.

1993년 12월 10일

충청인의 젖줄

한반도의 서편 중앙에 위치한 금강은 우리나라에서는 낙동강, 한강 다음으로 큰 유역을 갖고 있는 강으로서 고대로 부터 지금껏 충청인의 생활터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중환의 「擇里志」 중 "八道總論"에서 '錦江自東州北南折而爲熊津爲白馬江 爲萬頃江又折而爲鎭入于海'라 하듯이 금강은 전북 장수군의 산악지대에서 발원하여 노령산맥과 차령산맥의 소류들과 합류, 부여부터 큰 강폭을 이루며 충적평야를 거쳐 서해로 유입 되고있습니다.

이처럼 유장한 금강을 그 모체로 하여 고대에는 찬란한 문화가 꽃피었고 오늘날까지 충청인의 젖줄로서 장구한 역사와 문화를 지켜오며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인의 본거지인 금강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변천과 문화를 조사, 연구하여 종합적인 역사적 地誌를 발간하는 것은, 충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함양하는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금강의 역사와 문화를 재구성할 목적으로 발간하는 이 책은 자연, 인문환경, 역사, 민속 등의 제반 분야를 기술한 역사서로서 우리고장의 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서의 발간에 힘써주신 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 책자가 우리 고장의 문화보존과 연구에 널리 이용되기를 바랍니다.

1993년 12월 10일

후손들에 물려줄 유산

우리 충청남도는 예로부터 명현, 학자를 많이 배출한 선비의 고장이며 찬란한 백제문화는 물론, 각 시대를 대표하는 학문과 예술의 향취가 듬뿍배인 유서깊은 역사의 고장입니다.

특히 위대한 선현의 자취중 옛것 그대로가 충실하게 보존되어 있는 금석문은 당대의 역사, 정치, 예술 등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 문화적 가치가 한층 뛰어난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문화유적총람 금석문편 중, 하편은 이처럼 귀중한 금석문을 통해 조상들의 가르침을 오늘에 되새기고, 그 정신적·물질적 유산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해주기 위한 지난해 간행된 상편에 이어 우리 도의 금석문을 총망라하여 취록, 정리한 자료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엄청난 작업을 해내신 충남대학교 조종업 교수님을 비롯한 송용재 선생님과 그 밖에 집필, 교정, 인쇄 등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며, 이 책자가 우리 충청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소중한 길잡이로 널리 활용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 80 회 도의회 정기의회 94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

1993년 12월 16일

신뢰속의 동반협력관계

존경하는 이대희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먼저 금년도 정기회가 개최된 이후 오늘까지 무려 26일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해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이번 회기중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도정의 의지와 살림을 담은 예산안 그리고, 28건의 조례안등 많은 안건을 심의 하시면서, 도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의 말씀과 함께 값진 충고를 주신데 대해서 경의을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의결해 주신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활기찬 도정, 희망찬 충남」건설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① 2000년대를 향한 희망찬 충남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② 활력있는 농어촌 건설의 촉진과 ③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비롯한 사회복지의 증진 ④ 그리고 지역안정과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충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200만 도민 모두의 관심과 소망이라는 기본인식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이고 발전적으로 연구·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격동의 진폭이 어느해 보다도 컷던 계유년도 어느덧 역사속으로 접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후면 신한국 창조의 역사적 과업을 착실히 뿌리내려야 할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94년은 최근 UR협상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편성의 원칙을 앞세워 어떠한 예외나 특수성을 인정치 않는 냉엄한 국제적 집단 이기주의를 비롯하여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구조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지혜가 더욱 요청되는 소중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200만도민과 더불어 의회와의 보다 깊은 신뢰와 성숙된 동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가운데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방행정에 주어진 과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갈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에 쏟아주신 열정과 노고에 대해서 거듭 위로의 말씀과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37 회 충청남도 문화상 시상식 식사

1993년 12월 16일

올바른 정신문화

먼저 오늘 영예의 충청남도 문화상을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신 가족, 친지 여러분과 각급 기관장여러분, 그리고 지역문화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문화계 인사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 문화상이 시행된지 금년으로 서른일곱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수상을 하셨고 이분들의 훌륭한 업적과 헌신적 봉사는 곧 우리고장이 이만큼 발전된 원동력이 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분들 이외에도 우리 고장에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덕과 양심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문민시대 첫 해에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시대의 문화란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견인차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만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수 있다는 잘못된 가치관속에서 살아 오지 않았나 하는 자문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물질적 풍요도 중요하지만 개인과 사회전체가 정신적 가치를 소중히 하고 올바른 정신문화를 향유할 때 진정으로 잘 살수 있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예로부터 학문과 사상을 존중하고 정신적인 내재가치를 소중히 해왔으며, 특히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꽃피워온 문화적 자부심과 긍지가 높은 문화의 고장입니다.

최근들어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이 본격착수될 예정이고 국토의 중심지에 위치한 우리 충남이 이제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나라번영과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정성어린 협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상하신 분들의 심오한 학문이나 높은 예술의 경지 그리고 남다른 봉사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되고 소중한 덕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상자 여러분께서 쌓아오신 자취와 높은 뜻을, 대망의 21세기에 나라발전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우리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셔서 우리고장 문화의 토양을 더욱 기름지게 바꾸고 건강한 지역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각 기관장님, 수상자 가족과 친지여러분, 그리고 성원해 주신 도민여러분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 알차게 마무리 지으시고, 수상자를 비롯한 여기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식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천 전문대학 기공식 축사

1993년 12월 17일

산업기술인력의 산실

오늘 우리고장 공업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관창공업단지내에 대천전문대학 설립기공식을 갖게된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공이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시고 성원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지역출신국회 김용환 의원님, 정태영의원 신홍식 민자당 의원님, 교육부 정용술 장학편수실장님, 이대희 도의회 의장님과 지역의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계인사와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고장에 산학연계의 이상적인 공업단지 개발을 위해서 공업전문대학의 설립을 추진하고 계신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님, 김준엽 대우학원 이사장님, 김준성 회장님과 관계되시는 분들께 사의를 표합니다.

계유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처럼 대천전문대학 기공식을 갖는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곳 보령은 관창공업단지 뿐만 아니라, 현재 건설부에 승인 요청중인 웅주공단 그리고 대망의 서해안 공업개발 사업등과 연계해서 우리고장 산업발전의 핵심적

산실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더구나 이곳에 들어설 관창공업단지는 여타 공업단지의 취약점이 되고 있는, 기술인력 확보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대학과 단지 연구소를 먼저 설립함으로써, 이상적인 공업단지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보령군민 여러분,

금년 한해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많은 변화와 개혁의 지폭이 컸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충남도 서해안개발 사업의 가시화와 함께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고시등, 그 어느 때보다도 소망스러운 지역발전의 튼튼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충격적인 쌀개방 소식과 함께 우리 모두는 냉혹한 국제사회의 경제전쟁속에서 개방화의 높은 파고를 넘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충남도정은 농어민의 아픔과 고통을 모두가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수립할 획기적 농촌구조 개선대책을 지방적으로 충실히 수용하는 한편 공업화 시책과 관광문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공을 갖는 대천전문대학은 이와 같은 전환기적 시점에서 우리고장의 공업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기공식을 갖는 대천전문대학이 우리고장 산업기술의 우수 인력을 배출하는 명문대학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오늘 기공을 거듭 축하드리고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얼마남지 않은 계유년 세모를 위하여 못다하신 올해 일들을 알뜰하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다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12월 21일

시련과 과제

존경하는 문성규 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지역 평통자문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민주평통이 새롭게 출범한 이후 오늘 첫 지역활동 평가회의를 갖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이대희 도의회의장님 그리고 지역에서 통일문제 충남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홍보와 보람찬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간부위원의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계유년, 세모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신한국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이 광범하고 숨가쁘게 추진 되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대전EXPO의 성공과 함께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고시 등, 서해안 개발사업의 가시화가 이루어진 결실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국제화·개방화를 맞아 7년간 끌어온 UR협상의 타결로 세계는 새로운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므로서 누구보다도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의 고통이 우리들의 아픔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문제도 그렇습니다.

정작 중요한 남북이산가족문제나 폭넓은 교류 확대보다는, 핵사찰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별다른 성과없이 1년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들은 우리에게 극복과 도약의 계기를 동시에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먼저 개방화의 국제적 추세속에서 UR협상이 타결되므로서 위기에 우리 농업을 구하는데 10년동안의 유예기간을 잘 활용해서 정부와 4천만 국민이 똘똘뭉쳐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번의 고비만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우리농업은 세계수준으로 한단계 높게 도약하므로서 우리 농촌은 돌아오는 농촌으로 탈바꿈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문제입니다.

현재는 북의 핵사찰 문제가 큰 쟁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남북관계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독일통일의 예에서 보듯이 민족의 통일은 뜻밖에 빨라질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서 여러가지 대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나 시련이 있고, 그에 따른 과제가 뒤따르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경험입니다.

이끌고 계신 평통자문위원 여러분과 함께 희망찬 충남건설에 진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지역이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줄기찬 성장과 발전을 할수 있도록 협력 해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회의와 충남대 배상오 교수님의 특강이 우리의 통일의지를 다지고 지역의 힘을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얼마남지 않은 계유년 한해는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의원님들 모두 건승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주의사총 성역화사업 준공식 치사

1993년 12월 21일

꺼지지 않는 민족의 등불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회 조부영 의원님과 김영창 도의원님, 이병철 홍성군의회장님, 안세영 홍주의사 총성역화 추진위원장님, 그리고 각 기관장님과 내빈여러분, 홍주의사총 성역화사업 준공식에 함께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구한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일제에 항거하다 희생된 홍주의병들의 영령을 모신 제단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먼저 선열들께서 남겨 놓으신 애국애족의 신념과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면서 그 뜻을 추모하고 삼가 옷깃여며 명복을 빕니다.

예로부터 이곳 홍성은 호서지방문화를 선도해 오면서 많은 충신열사를 배출한 고장입니다.

고려말 최영 장군을 비롯한 충신 성삼문선생, 구한말의 김복한 선생, 민족의 시인이신 만해 한용운 선사, 청산리 대첩에 빛나는 김좌진 장군을 배출한 충절의 고장이요, 유서깊은 문화의 고장입니다.

이렇듯 홍성지방은 민족의 출중한 인물을 배출한 고장이면서도 그동안 선현들의 뜻을 기리고 유적들을 전승·보존하는데는 많은 아쉬움을 느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1년부터 이곳 홍주의사총 성역화 사업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김좌진 장군의 생가와 한용운 선생의 생가 복원에 이어 오늘 홍주의사총이 완공됨으로써 이제는 다소나마 선현들의 높은 뜻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도 자랑스런 선조를 가졌다는 문화적긍지 측면에서도,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민족이 겪은 시련과 수난의 역사는 실로 한스럽고 굴욕스러운 것이였습니다.

일제의 총칼에 항거하고 민족의 단결을 외치며 유명을 달리하신 수많은 선열들, 이분들의 절규는 분명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백의민족의 맥을 이어가려는 숭고한 포효였습니다.

이분들의 희생위에서 조국은 독립을 되찾았고 이어서 잘 살아보려는 국민적 통합 속에서 우리는 불과 한 세대만에 처참한 가난의 허물을 벗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선열들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이 나라는 21세기를 향해뛰는 번영된 나라 당당한 선진국 대열에 끼는 「신한국」을 향하여 도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슴속에 꺼지지 않는 민족의 자존심을 일깨워주셨던 선열들의 고귀한 뜻과 정신은 민족의 등불이 되어 먼훗날까지 우리의 앞날을 환하게 비쳐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분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은 더이상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힘있는 나라 자랑스런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일입니다.

우리모두 선열들의 높은 뜻을 길이 받들고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 자랑스런 신한국을 향해서 힘을 모아 나갑시다.

우리고장이 물질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앞설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가꾸어 나갑시다.

그동안 홍주의사총 성역화사업에 힘써준 관계자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성원해 주신 홍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분들께도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계유년 세모를 맞아 못다 하신 일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다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치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각계에 보내는 도정협조 감사서한

1993년 12월 22일

변함없는 성원

기대와 희망속에 맞이했던 계유년이 저물어 갑니다.

한해를 돌아보며 금년에 알차고 보람된 도정을 이룰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온 국민이 신한국 창조를 향해 줄달음쳤던 한해였습니다.

우리 도정도 행정쇄신과 제도의 개혁을 통한 참봉사의 실천에 전력을 기울여 왔고, 서해안 개발의 가시화와 함께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이 지정고시되는 결실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람의 뒤안길에는 우리농촌이 이상저온과 우박피해의 아픔을 겪었고 지금도 UR의 높은 파고를 넘어야 하는 벅찬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200만 도민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서 시대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기찬 충남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계획하신 모든 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갑술년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제 28대 이동우 충청남도지사 이임식 이임사

1993년 12월 28일

저력있는 충남

잔설이 휘날리던 지난 3월 초, 이자리에서 여러분을 뵈었는데,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정자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남은 항상 이별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우리 삶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때 오늘 여러분을 뵙는 것은 제가 지난 3월에 여러분을 만날때 이미 결론 지어지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짧지 않은 10개월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일깨워 주시고, 밀어 주시고, 감싸주심으로써 대과없이 제 소임을 마칠 수 있었고, 또한 신한국 창조의 어려운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면서, 큰 사고없이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0개월동안 여러분들이 보여준 따뜻한 보좌와 우정에 대해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정수행을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우리 200만 도민과 도의회 여러분, 그리고 고향의 선후배 친지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지도 않게 고향의 지사로 발령받고 부임을 하면서, 공직자로서 고향을 위해서 직접 봉사할 수 있다는 뿌듯한 보람과 사명감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는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마음만 바쁘고 생각만 앞섰지, 실제 이룩해 놓은 것이 너무 빈약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제 자신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는 저를 잘 도와주셨고 우리 충남이 여러면에서 금년도 업무평가가 높게 나온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같이 저력있는 충남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잘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몸소 앞장서신 대통령 각하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고, 우리지역의 발전을 희구하는 도민들의 여망에도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채, 이 자리를 물러나게 된 데 대해 내심으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몇 가지 중요한 일은 벌려만 놓고 매듭을 짓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남아 있는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더구나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어촌, 농어민들과 아픔을 같이 하면서 UR의 높은 파고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만, 손도 대지 못하고 떠나게 된 점, 참으로 아쉽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하실 박태권 지사님께서는 고향을 같은 충남에 두신 충청인으로서, 연부역강하실 뿐만 아니라,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서 제2의 건국을 추진하고자 하는 김영삼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충남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새로 부임하시는 박지사님을 잘 보좌하고 지사님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해서 우리 충남이 전국 제일가는 21세기의 복받은 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부덕하고 재주없는 저를 성실하게 도와주셨던 고향 친구, 선후배 친지여러분, 그리고 의회의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고마운 뜻, 따뜻한 정, 소중한 인연을 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어머니 품 같은 고향에서 33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한다는 생각을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남아서 우리 충남발전에 충분히 큰 일을 하실 분들이라 믿고, 마음 편하게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친애하는 15,000여 충남 공직자 여러분, 고향 친구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다가오는 갑술년 새해에도 우리 충남이 계속 발전하게 되기를 기원하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작별인사를 고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요.

'94년 1월

이임서한

1994년 1월 6일

늘 고향발전 성원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정부 인사에 의하여 지난 12월 28일 충남지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고향도정을 맡아온 지난 10개월 동안, 성원해 주셨던 고마우신 분들께 촌서로 인사드리게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한국 건설과 활력에 찬 지역개발에 혼신의 힘으로 땀흘리며 빠쁜 걸음을 재촉했던 기억과 함께 무사히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살펴주신 은덕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고향 발전을 성원하며 미력한 힘을 다할 각오입니다.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건강하시고 축복 가득한 나날이 되시길 빕니다.

李東雨道知事演說文選集

1995年　月　日 印刷
1995年　月　日 發行
發 行：忠　清　南　道
編 輯：公　報　官　室
印 刷：協成文化社
☎ 627－8893

〔非 賣 品〕

CHUNG CHEONG NAM – DO
AM009340